

<사진>

성 명 : 강원신(康元信)

생몰년도 : 1887 ~ 1977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1904년 후일 미주(美洲)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총회장을 역임하는 강영승(康永昇)과 결혼한 뒤, 1905년 5월 도릭선편으로 남편을 비롯한 그의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하였다.

하와이 도착 후, 가파올라 사탕농장과 에와 사탕농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며 남편의 학업을 뒷바라지하였으며, 1913년경 남편이 미본토 시카고로 건너가 법학박사과정을 밟게 됨에 따라 시누이 강혜원(康蕙園)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뉴바 지역으로 이주하여 포도농장에서 시간당 15센트의 노임을 받으며 남편의 학업을 뒷바라지함과 동시에 여성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3월 2일 다뉴바 지방에서 강혜원·한성선·김경애 등과 함께 신한부인회(新韓婦人會)를 결성하고 회장으로 선출되어 한인 부녀자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미주 항일민족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회의 민족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또한 동년 5월 18일 미주 각 지역에 산재한 한인부인회의 운동역량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새크라멘토의 한인부인회(韓人婦人會)와 합동발기문을 선언함으로써 각 지역 부인회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한편, 8월 2일 다뉴바의 한인장로교회에서 미주내 여성단체인 다뉴바 신한부인회, 월로우스지방 부인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인회 합동발기대회를 개최하고 미주 한인사회의 통일운동기관인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을 창설하였다.

대한여자애국단 창설 후 재무 및 제3대 총단장을 역임한 그녀는 동지들과 함께 매월 3달러의 단비(團費)를 수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금하여 외교·선전·군사활동을 후원하였으며, 국내에 각종 구호금을 수합하여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1천 달러, 임시정부 공복위로금으로 5백 달러, 상해 독립신문사(獨立新聞社)에 3백 달러,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에 군축선전비로 5백 달러, 신한민보사(新韓民報社) 식자기 값으로 5백 달러, 간도(間島)동포 기금구제금으로 67달러, 중국 송미령(宋美齡) 여사의 군사위로금으로 370달러, 멕시코 한인 동포의 하바나 이주비용으로 동정금 40달러, 쿠바 맛단사스 지역 한인 구제금으로 55달러, 수재민 구제금 368달러, 본국 수재민 구제금 172달러, 본국 소년갱생운동에 55달러, 황은순고아원에 58달러, 2차 대전시 미군적십자사에 570달러, 로스앤젤레스 출정군인무도회(出征軍人舞蹈會)에 194달러 등 총 46,298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집 송금하여 민족운동단체를 후원하였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미주내 한인 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였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조국의 독립운동에 일평생을 바쳤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강주룡(姜周龍)
생몰년도 : 1901 ~ 1932. 6. 13
포상훈격 : 애족장(2007)

평양에서 일제의 민족 차별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평북 강계에서 태어난 강주룡은 14세 때에 서간도로 이주하여 통화현의 최전빈(崔全斌)과 결혼하였다.
24세때 채찬(蔡燦이명 白狂雲)의 휘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남편이 병사하자, 강주룡은 가족을 데리고 귀국하여 사리원을 거쳐 평양에 정착, 평원(平元) 고무공장의 여공으로 일하며 가장 역할을 했다.
1930대초 평양에서는 고무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1929년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고무공업이 타격을 입자, 고무공업계는 1930년 5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조선고무공업자대회를 통해 임금 인하를 결의하였다.
1930년 8월 1일 평양고무공업조합이 이 결정에 따라 종래 임금의 17% 삭감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하자, 노동자들은 일제와 그에 결탁한 자본가들을 비판하며 반대투쟁을 일으켰다.
강주룡은 1931년 5월 평원고무공장 파업을 주도하던 중 일경의 간섭으로 공장에서 쫓겨나자 을밀대(乙密台) 지붕으로 올라가 무산자의 단결과 노동생활의 참상을 호소하는 한편, 고용주의 비인도성을 거세게 비판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1주일의 구류처분을 받자 다시 6월 11일까지 54시간 단식을 결행하였다.
여장부로 신문지상의 주목을 받던 강주룡은 투옥 중 극도의 신경쇠약과 소화불량 등으로 보석 출감되었지만 병세가 악화되어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강혜원(康蕙園)
생몰년도 : 1886. 11. 21 ~ 1982. 5. 31
포상훈격 : 애국장(1995)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1904년 후일 미주(美洲)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총회장을 역임하는 남동생 강영승(康永昇) 등 가족과 함께 1905년 5월 도릭선편으로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하였다.

하와이 도착 후, 가파올라 사탕농장과 예와 사탕농장에서 노동을 하였으며, 1912년 미국 본토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뒤 이듬해인 1913년 12월 9일 이대위(李大爲) 목사의 주례로 후일 흥사단(興士團) 이사장을 역임한 김성권(金聲權)과 결혼하였다.

그 뒤 캘리포니아주 다뉴바 지방으로 이주하여 강원신(康元信)과 함께 포도농장에서 일하면서 여성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3월 2일 다뉴바 지방에서 강원신·한성선·김경애 등과 함께 신한부인회(新韓婦人會)를 결성하여 다뉴바 지방 한인 부녀자들의 민족정신 고취와 미주 항일민족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회의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또한 동년 5월 18일 미주 각 지역에 산재한 한인부인회의 운동역량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새크라멘토의 한인부인회(韓人婦人會)와 합동발기문을 선언함으로써 각 지역 부인회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한편, 8월 2일 다뉴바의 한인장로교회에서 미주내 각 여성단체인 다뉴바 신한부인회, 로스앤젤레스 부인회 친애회,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 샌프란시스코 한인부인회, 윌로우스지방 부인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인회 합동발기대회를 개최하고 미주 한인사회의 통일운동기관인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을 창설하였다.

대한여자애국단 창설 후 초대 총단장으로 선임된 그녀는 동지들과 함께 매월 3달러의 단비(團費)를 수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금하여 외교·선전·군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국내에 각종 구호금을 수합하여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1천 달러, 임시정부 공복위로금으로 5백 달러, 상해 독립신문사(獨立新聞社)에 3백 달러,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에 군축선전비로 5백 달러, 신한민보사(新韓民報社) 식자기 값으로 5백 달러, 간도(間島) 동포 기금구제금으로 67달러, 중국 송미령(宋美齡) 여사의 군사위로금으로 370달러, 멕시코 한인 동포의 하바나 이주비용으로 동정금 40달러, 쿠바 맛단사스 지역 한인가구제금으로 55달러, 수재민 구제금 368달러, 본국 수재민 구제금 172달러, 본국 소년갱생운동에 55달러, 황은순 고아원에 58달러, 2차 대전시 미군적십자사에 570달러, 로스앤젤레스 출정군인무도회(出征軍人舞蹈會)에 194달러 등 총 46,298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집 송금하여 민족운동단체를 후원하였다.

1930년 이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여 대한여자애국단의 사업과 흥사단·대한인국민회의 민족운동을 적극 후원하였으며, 1940년 다시 대한여자애국단 제8대 총단장으로 선임되어 임시정부와 국민회의 재정을 적극 원조하는 한편, 미주 내 한인 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국의 독립운동에 일평생을 바쳤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고수복(高壽福)
생몰년도 : 1911 ~ 1933. 7. 28
포상훈격 : 애족장(2010)

고수복은 함경남도 정평군 정평공립보통학교 졸업하고, 1931년 9월 종방방직회사(鐘紡紡織會社) 경성제사 공장(京城製絲工場)의 직공으로 입사하였다.

1932년 1월 말 정길성(丁吉成), 김응룡(金應龍) 등과 협의하여 좌익노동조합준비회(左翼勞動組合準備會) 결성하기 위해 경성부내 각 공장으로 분담 활동을 하였으며, 3월 하순 경성부 팔판동에 거주하는 강응진(姜膺鎭)의 집에서 정길성, 김응룡, 권오경(權五敬)과 회합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단체인 좌익노동조합준비위원회(左翼勞動組合準備委員會)를 결성하였다. 준비위원회의 총책임자에 권오경, 조직부 책임에 정길성, 재정부 책임에 김응룡, 선전부 책임에 고수복으로 부서를 분담하였다.

1932년 8월 중순경 문태화(文泰和), 공원회(孔元檜), 이만규(異晩圭) 등이 중심이 되어 적위대(赤衛隊)를 결성하였는데, 적위대는 그 하부에 5개의 조직체를 두고 지도, 통제하는 최고지도기관이었다.

고수복은 1932년 9월 적위대의 예하 기관 중의 하나인 좌익노동조합준비위원회의 선전부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동대문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후 10월 18일 적위대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었던 고수복 외 9명은 동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으며, 1933년 7월 19일 예심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다가 병보석으로 출옥하였다.

고수복은 출옥 후 연건동의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933년 7월 28일 옥고의 여독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순국(殉國)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고수선(高守善)
생몰년도 : 1898. 8. 8 ~ 1989. 8. 11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제주 사람이다. 1915년부터 1918년 사이에 학교에서 일본교사 배척운동을 전개하였던 그는 1919년 3월 1일 박희도(朴熙道)의 지시를 받아 학생을 동원·인솔하여 탑골공원(塔洞公園)으로 가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동년 3월에는 유철향(兪喆鄉)의 집 지하실에서 신경우(申敬雨) 등 동지 학생들과 모여 일편단심을 상징하는 적색 댕기를 수천 매 제작하고 경성여자고등학교(京城女子高等學校) 학생들을 통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게 하였고 신경우(申敬雨)·김숙정(金淑貞)과 벽보를 붙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동년 3월 중순경에 상해(上海)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국내와 연락하는 사무를 보다가 군자금 모집의 사명을 띠고 동년 11월경 귀국하여 370원을 모금해서 박정식(朴偵植) 편에 송금하고 일본(日本)으로 피신하였다. 1921년 동경(東京)에서 동지 이덕요(李德耀)·이낙도(李樂道)·이의향(李義鄉) 등과 상야공원(上野公園)에서 독립운동을 모의하던 중 일경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그러나 1922년에 항일 용의자로 고광수(高光洙)와 함께 피체되어 일경으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받아 손가락이 불구가 되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고순례(高順禮)
생몰년도 : 1911 ~ 미상
포상훈격 : 건국포장(1995)

광주(光州) 사람이다.

1926년 11월 조국의 독립, 사회과학의 연구, 식민지 교육체제 반대를 목적으로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한 장재성(張載性)은 1929년 6월 동경중앙대학(東京中央大學)을 중퇴하고 귀향하여 성진회의 명칭을 독서회중앙본부(讀書會中央本部)로 개칭하였다. 또한 각 학교별로 핵심지도부를 조직한다는 방침에 따라 광주고보(光州高普)는 자신이 맡고, 광주농업학교는 문승수(文升洙), 광주사범학교는 임종근(林鍾根), 광주여자고보(光州女子高普)는 장매성(張梅性)을 조직책으로 하는 학교별 독서회를 결성하여 학생들을 조직하고 이론적으로 훈련시켜 항일독립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28년 11월 초순, 장재성의 누이인 장매성(張梅性)이 독서회중앙본부의 산하조직으로 광주여고보(光州女高普)에서 비밀결사 소녀회(少女會)를 조직하자,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여 민족의 독립과 자유 쟁취, 여성 해방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이들과 함께 학교 내외에서 동지를 포섭하는 한편, 매월 한 차례의 연구회를 개최하고 동 회원들과 함께 학생소비조합(學生消費組合)을 조직하여 30원을 출자하는 등 항일투쟁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29년 11월 광주고보의 한국인 학생들과 광주중학 일본인 학생들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학생운동이 전개되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이듬해인 1930년 1월 15일 동 회원인 광주여고보 이광춘(李光春)이 일제의 식민교육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백지동맹을 단행해야 한다고 연설한 것을 계기로 일경에 피체되었다.

1930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공백순(孔佰順)
생몰년도 : 1919. 2. 4 ~ 1998. 10. 27
포상훈격 : 건국포장(1998)

미주지역의 독립운동은 지역 특성상 교민사회의 자치 및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하거나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대한 독립외교활동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공백순은 미국 워싱턴, 캐나다 퀘벡 등지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와 '태평양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연설을 하는 한편, 신문에 한국독립에 관한 글을 게재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42년 2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자유대회에 참석하여 '태평양전쟁에 한국인은 총동원되어 미국과 연대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전후 일본의 위상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한 아시아의 재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태평양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보장을 주장하였다.

그후 그는 1942~1943년 2년 동안 「신한민보(新韓民報)」·「국민보(國民報)」 영자판에 한국독립에 관한 글을 발표하였고, 1943년 「독립」신문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곽낙원(郭樂園)
생몰년도 : 1859. 2. 26 ~ 1939. 4. 26
포상훈격 : 애국장(1992)

황해도 재령(載寧) 사람이다.

백범(白凡) 김 구(金九)의 생모로서 독립운동가들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뒷바라지하면서 국내 및 중국에서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아들 김 구가 1911년 7월 22일 비밀결시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하여 서울에 도독부(都督府)와 각 도에 총감(總監)을 두고 중국 동삼성(東三省)에 독립운동기지를 창설, 독립군 양성을 꾀하며 황해도 대표로 활동하다가 일경에게 피체되어 징역 15년을 받고 서대문(西大門)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아들을 면회하러 와서 조금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위로하며 집 걱정은 하지 말도록 당부하면서 하루 2번씩 사식을 제공하는 등 뒷바라지를 하였다.

그 뒤 김 구가 1922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경무국장(警務局長)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상해로 가서 때로는 조석이 어려워 중국사람이 버린 쓰레기통에서 배추잎을 주워 끼니를 이어오면서도, 생활비를 절약하여 저축한 돈과 생일축하금으로 단총 2자루를 구입하여 독립운동에 쓰도록 제공하였다. 상해에서 고난을 겪으며 독립운동을 뒷바라지 하다가 1925년 12월 황해도 안악(安岳)으로 돌아와서 생활비를 절약하여 아들 김 구에게 송금하며 계속 독립운동하도록 지원 격려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가 날로 심하여지자 1934년 3월 19일 손자인 김 인(金仁:당시 18세)과 김 신(金信:당시 13세)을 데리고 일경의 감시를 피하여 황해도 안악(安岳)에서 재령을 경유하여 상해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상해에 도착한 후 장손인 김 인을 군관학교에 입교시키는 한편,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中央軍官學校 洛陽分校)에서 군사훈련중인 청년 20여명의 병영생활을 돌보는 등 아들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하다가 병을 얻어, 1940년 4월 26일 평생 소원이던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중국 사천성(四川省) 중경(重慶)에서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곽진근(郭鎭根)
생몰년도 : 1861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5)

강원도 철원(鐵原) 사람이다.

기독교 전도사이던 그는 1919년 3월 10일 강원도 철원군 철원(鐵原) 읍내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철원은 강원도 내에서 서울과 가깝고 또 서울과의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서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어느 지역보다 빨리 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철원에서는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철원농업학교와 철원보통학교 학생들이 합세하여 3월 10일 5백여 명의 시위대가 군청에서 만세시위를 고창하였다.

거사일 저녁 무렵 곽진근은 시위대를 이끌고 친일파 박의병의 집으로 진군하여 "이완용이 이 집에 숨어 있음이 틀림없으니 내 놓으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시위를 전개하였다.

다음날인 11일에 이들 시위대는 철원역 부근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전날에 이어 계속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제는 기마헌병을 동원하여 총을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하였고 주동 인물을 체포하였다.

그는 이 일로 피체되어 1919년 9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여 11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4월에 벌금 10원으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곽희주(郭喜主)
생몰년도 : 1903. 10. 2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2)

1921년 11월 워싱턴회의에 조선독립문제 상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목포부(木浦府) 시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1월 전라남도 목포부 양동(陽洞)의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에 재학 중, 동교생들과 함께 동아일보 등 기타 신문을 통하여 워싱턴회의가 개최됨을 알고, 조선민족대표자도 반드시 이 회의에 참열(參列)하여 조선의 독립문제를 제출하고 그것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모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개시한다면 일반 조선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동(同) 회의에 참석하는 조선인 대표자에게 성원을 주며, 또한 일반 조선인의 독립 희망이 얼마나 절실한지 각국 전권위원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그들의 호응을 얻어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천귀례(千貴禮)·김나열(金羅烈)·박음전(朴陰田)·문복금(文卜今)·김연순(金蓮順)·박복술(朴福述)·주유금(朱有今)·김옥실(金玉實)·김귀남(金貴南)·김자현(金慈賢)·이남순(李南順) 등 동교생 12명과 동교 기숙사 내에 집합하여 위와 같은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그 방법으로 다음날인 14일 정오 오폭(午砲)을 신호로 삼아 각자 대한제국기(大韓帝國旗)를 휴대하고 교문을 나와 목포 시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동 13일 동 기숙사에서 국기 수십 매를 함께 제작한 뒤, 14일 오전 수업 종료 후 학생과 교사 등이 휴식 중인 정오에 오폭을 신호로 20명 모두가 국기를 손에 들고 동교 정문을 나왔다. 이 가운데 11명은 각자 휴대한 국기를 휘두르며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동교 정문으로부터 목포부 남교동(南橋洞)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를 본 수 명의 학생들은 동교 내에 떨어져 있는 국기를 주워서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남교동에서 동부 죽동(竹洞)을 거쳐 창평정(昌平町)·대정정(大正町)을 행진하였다. 만세 시위를 본 학생들은 동교 내에서 국기를 찾아 그것을 휴대하고 동교 뒷문을 나와 십 수명이 일단이 되어 각자 휴대한 국기를 흔들거나, 혹은 손을 들어 모두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연호하면서 대성동(大成洞) 방면을 행진하였다.

1922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件)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7월 2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구순화(具順和)
생몰년도 : 1896. 7. 10 ~ 1989. 7. 31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황해도 신천(信川)사람이다.

1919년 신천군에서는 문화면(文化面)에서 3월 11일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다음날인 3월 12일 신천읍으로 이어졌다.

그는 이날 경신학교(敬信學校)에서 학생과 주민 다수와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다가 일거에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9월 1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아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권기옥(權基玉)
생몰년도 : 1903. 1. 11 ~ 1988. 4. 19
포상훈격 : 독립장(1977)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1919년 평양(平壤)에 있는 송의학교(崇義學校) 졸업반으로서 3·1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주일 동안 구류되었다.

그 후 동창유지 및 임시정부 연락원인 임득삼(林得三)·김정직(金鼎稷)·김순일(金淳一)·김재덕(金在德) 등과 공모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고 임시정부 공채를 대량으로 판매하여 그 자금을 임시정부로 송금하는 등의 일에 관련하여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소위 제령위반(制令違反)이라는 죄목으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출감하였다.

출옥한 후인 1920년 8월에 문일민(文一民)·장덕진(張德震) 등을 도왔으며,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애국 동지들과의 접선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양청년회 여자 전도단을 조직한 후 여자전도대장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고, 비밀 공작도 전개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발각되자 1920년 9월에 목선을 타고 상해(上海)로 탈출하였다. 상해에 도착한 후, 이승만(李承晩)·안창호(安昌浩) 등을 만나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중, 독립전쟁을 위한 군관 양성의 일환으로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1923년에 운남육군항공학교(雲南陸軍航空學校)에 제1기생으로 입학하였다.

1925년 졸업 후에는 임시정부의 소개로 혁명 기독장군 풍옥상(馮玉祥) 휘하 공군에서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로서 복무하였다.

1927년에 장개석총통(蔣介石總統)이 북벌(北伐)할 때, 동로 항공사령부(東路航空司令部)에 최용덕(崔用德)과 함께 가담하는 등, 10여년 동안 중국 공군에서 복무하였다. 또한 1928년 5월 31일에는 남경(南京)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경(重慶)에 있는 국민정부 육군참모학교의 교관으로 임명되어 후진 양성과 함께 적 정보를 연구하여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다.

1943년에는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 직할로 김순애(金淳愛)·방순이(方順伊)·최선화(崔善燁)·최애림(崔愛林)·최형록(崔亨祿) 등과 함께 한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사교부장(社交部長) 등으로 활동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다. 그후, 광복을 맞이하게 되자 1949년에 귀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여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권애라(權愛羅)
생몰년도 : 1897. 2. 2 ~ 1973. 9. 26
포상훈격 : 애국장(1990)

경기도 개성(開城)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충교(忠橋) 예비당 내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어윤희(漁允熙)와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이날의 독립만세운동은 그의 손에 독립선언문이 전해지면서 추진되었다.

그는 이 선언서 80여 매를 호수돈여자보통학교(好壽敦女子普通學校)에서 어윤희에게 넘겨주어 주요인사에게 배부하였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독립운동가와 찬송가를 부르며 만세시위는 시작되었다. 이 만세시위 행렬에 억눌렸던 일반민중도 호응하게 되자 일경이 동원되어 그를 비롯한 많은 주도인사들이 피체되었다.

5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6월형을 언도받았고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되어 9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 후에도 독립운동에 관련된 일에 힘써왔는데 1920년 4월 25일~5월 27일 동안 6회에 걸쳐 수표교(水標橋) 예비당을 비롯하여 정동(貞洞) 예비당에서 '반도의 희망', '잘 살읍시다' 등의 제목으로 한국여성의 애국사상 고취를 위한 강연을 몇차례에 걸쳐 시도하다가 이해 7월 9일 종로(鐘路) 경찰서에 구금되었고 1922년 1월에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인민대표회의(極東人民代表會議) 한민족 여성 대표로 참가하여 당시 민족대표 여운형(呂運亨)·나용균(羅容均) 등과 함께 활동하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1929년에는 중국 소주(蘇州) 경해여숙대학(景海女塾大學)에서 수학하면서 상해(上海)를 중심으로 여성지위향상과 조국광복운동에 활약하였고 이후 동삼성(東三省)에서 지하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42년 4월에는 길림성 시가둔(吉林省 施家屯) 영신농장(永新農場)에서 아들 김봉년(金峰年)과 함께 일제 관동군 특무대에 피체되어 1년 이상 비밀감옥에서 고문취조를 받은 다음 장춘고등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2년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장춘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권영복(權永福)
생몰년도 : 1878. 2. 28 ~ 미상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5)

1915년부터 1937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새크라멘토지방회(朔都地方會), 새크라멘토한인부인회,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로스앤젤레스지부(羅城支部)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15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한인국민회 새크라멘토지방회 국치기념식(國恥紀念式)에 참여하였고, 1917년 한인부인회(韓人婦人會), 1918년 3월 3일 새크라멘토지방회에 가입하였다.

1919년 8월 2일 다뉴바에서 각 부인회 대표자들이 모여 합동발기대회를 개최하자 새크라멘토 한인부인회 대표로 참석하여 합동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한여자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이후 대한여자애국단 새크라멘토지부에서 활동하며 1921년과 1930년 3·1절기념식에서 순국선열 추도, 학생운동 후원 등을 역설하였고, 1924년 8월 대한여자애국단 창립기념식에서 여자애국단의 역사를 강연하였다.

1934년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에서 부단장·단장, 1935년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37년 중국항일전쟁 후원 수전위원(收錢委員)으로 활동하면서 1918년부터 1937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경순(金敬順)
생몰년도 : 1900. 5. 3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6)

1919년 3월 강원도 철원군(鐵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0일 정의학교(貞義學校) 교사로서 철원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 시위에는 철원 지역 학교의 학생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수백 명의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김경순은 동료 교사 엄재형(嚴載亨) 등과 학생들을 이끌고, 군청에 모인 5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날이 어두워지자 월하리(月下里)에 있는 친일파 박의병(朴義秉)의 집으로 가서 시위를 벌였다.

이튿날인 3월 11일에도 만세시위는 계속되었다. 서문거리에 모였던 시위 군중은 철원역으로 향하였다. 철원역에 모인 700명의 군중은 역에 정차해 있던 기차를 향해 만세를 불렀고, 기차에 탔던 사람들도 손을 흔들며 시위 군중을 격려했다. 김경순도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이틀간의 만세시위를 이끌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9월 25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소요죄(騷擾罪)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 벌금 20원을 받고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경희(金慶喜)
생몰년도 : 1888 ~ 1919. 9. 19
포상훈격 : 애국장(1995)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평양 송의여학교(崇義女學校) 교사로 근무하면서 1913년에 비밀결사 송죽회(松竹會)를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비밀결사 송죽회는 송의여학교 출신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비밀결사로서 점조직에 의한 절대 비밀을 유지해 갔다. 이들 송죽회 회원들은 전국 각처의 여학교에서 교편은 잡으며 학생들의 항일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는데, 그는 배일혐의로 1916년 일제에 의해 면직 당하였다.

면직 후 그는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독립의식 고취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평양에서 기독교회 여성들을 주도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의 추격을 받아 상해(上海)로 망명하였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가하던 그는 군자금 모집을 위해 1919년 7월에 비밀리에 귀국하여 평양에서 비밀결사 부인회(婦人會)를 조직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부인회는 회원의 규모가 8백여 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렇듯 부인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던 중 그는 병을 얻어 1919년 9월 19일에 작고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공순(金恭順)
생몰년도 : 1901. 8. 5 ~ 1988. 2. 4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5)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그는 전북 전주(全州)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재학 중 1919년 3월 13일 동군(同郡) 전주면(全州面) 남문 밖 시장부근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항일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이 전주에 전해진 것은 3월 1일 오전 천도교 교구실에 독립선언서 1천 수백 장이 전달되면서였다. 그리하여 천도교 전주교구에서는 기독교측과 연락하여 만세운동의 계획을 추진해 가던 중 선언서의 배포가 일경에 사전 탐지되는 일이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세운동의 계획은 추진되어 갔다.

이 때 사회 인사들과 더불어 기전여학교와 신흥학교(新興學校)의 학생들도 만세운동 계획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3월 13일 전주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정하고, 김공순 등은 신흥학교 지하실에서 호롱불을 켜 놓고 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제작하였다.

그리고 거사 당일에는 채소가마니에 태극기를 숨기고 운반하였으며, 정오 남문에서 울리는 인경소리를 신호로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피체되어 1919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9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기까지 6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귀남(金貴南)
생몰년도 : 1904. 11. 17 ~ 1990. 1. 13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5)

전남 목포(木浦) 사람이다.

1921년 11월 열강(列強)의 대표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군비감축회의(軍備減縮會議)를 개최하고 만주를 비롯한 원동문제(遠東問題)를 의제로 거론한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에서는 이승만(李承晩)·서재필(徐載弼)·정한경(鄭翰景) 등을 대표위원으로 선정하여 워싱턴 군비감축회의에 한국독립청원서(韓國獨立請願書)를 제출하였다.

1921년 11월 14일 전남 목포의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에 재학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워싱턴 군비감축회의에서 거론될 한국 독립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동교 학생 및 사립영흥학교(私立永興學校)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1921년 1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2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귀선(金貴善)
생몰년도 : 1913. 12. 19 ~ 2005. 1. 26
포상훈격 : 건국포장(1993)

전남 보성(寶城) 사람이다.

광주(光州)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9년 5월 비밀결사 소녀회(少女會)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소녀회는 1928년 11월에 당시 광주 지역 학생 비밀결사운동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장재성(張載性)의 실매(實妹) 장매성(張梅性)의 주도로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취지로 하여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1929년 11월 3일 조선인 여학생에 대한 일본인 학생의 희롱이 발단이 되어 광주에서 대대적인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가담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며, 시위항쟁의 주동학생들이 피체 구속되자 이에 항의하여 시험을 거부하고 백지동맹(白紙同盟)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1930년 1월 15일 다른 주동 여학생 11명과 함께 피체되어 동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기까지 9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금연(金錦嬾)
생몰년도 : 1911. 8. 16 ~ 2000. 11. 4
포상훈격 : 건국포장(1995)

경남 밀양(密陽) 사람이다.

1926년 11월 조국의 독립, 사회과학의 연구, 식민지 교육체제 반대를 목적으로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한 장재성(張載性)은 1929년 6월 동경중앙대학(東京中央大學)을 중퇴하고 귀향하여 성진회의 명칭을 독서회중앙본부(讀書會中央本部)로 개칭하였다.

이들은 각 학교별로 핵심지도부를 조직한다는 방침에 따라 광주고보(光州高普)는 자신이 맡고, 광주농업학교는 문승수(文升洙), 광주사범학교는 임종근(林鍾根), 광주여자고보(光州女子高普)는 장매성(張梅性)을 조직책으로 하는 학교별 독서회를 결성하여 학생들을 조직하고 이론적으로 훈련시켜 항일독립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28년 11월 초순, 장재성의 누이인 장매성(張梅性)이 독서회중앙본부의 산하조직으로 광주여고보(光州女高普)에서 비밀결사 소녀회(少女會)를 조직하자, 회원으로 가입하여 민족의 독립과 자유 쟁취, 여성 해방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이들과 함께 학교 내외에서 동지를 포섭하는 한편, 매월 한 차례의 연구회를 개최하고 동 회원들과 함께 학생소비조합(學生消費組合)을 조직하여 30원을 출자하는 등 항일투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29년 11월 광주고보의 한국인 학생들과 광주중학 일본인 학생들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광주학생운동이 전개되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였으며, 이듬해인 1930년 1월 15일 동 회원인 광주여고보 이광춘(李光春)이 일제의 식민교육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백지동맹을 단행해야 한다고 연설한 것을 계기로 일경에 피체되었다.

1930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나열(金羅烈)
생몰년도 : 1907. 4. 16 ~ 2003. 1. 11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2)

1921년 11월 워싱턴회의에 조선독립문제 상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목포부(木浦府) 시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1월 전라남도 목포부 양동(陽洞)의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에 재학 중, 동교생들과 함께 동아일보 등 기타 신문을 통하여 워싱턴회의가 개최됨을 알고, 조선민족대표자도 반드시 이 회의에 참열(參列)하여 조선의 독립문제를 제출하고 그것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모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개시한다면 일반 조선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동(同) 회의에 참석하는 조선인 대표자에게 성원을 주며, 또한 일반 조선인의 독립 희망이 얼마나 절실한 지 각국 전권위원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그들의 호응을 얻어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천귀례(千貴禮)·곽희주(郭喜主)·박음전(朴陰田)·문복금(文卜今)·김연순(金蓮順)·박복술(朴福述)·주유금(朱有今)·김옥실(金玉實)·김귀남(金貴南)·이남순(李南順)·김자현(金慈賢) 등 동교생 12명과 동교 기숙사 내에 집합하여 위와 같은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그 방법으로 다음날인 14일 정오 오폭(午砲)을 신호로 삼아 각자 대한제국기(大韓帝國旗)를 휴대하고 교문을 나와 목포 시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동 13일 동기숙사에서 함께 국기 수십 매를 제작한 뒤, 14일 오전 수업 종료 후 학생과 교사 등이 휴식 중인 정오에 오폭을 신호로 20명 모두가 국기를 손에 들고 동교 정문을 나왔다. 이 가운데 11명은 각자 휴대한 국기를 휘두르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동교 정문으로부터 목포부 남교동(南橋洞)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이를 본 수명의 학생들은 동교 내에 떨어져 있는 국기를 주워서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남교동에서 동부 죽동(竹洞)을 거쳐 창평정(昌平町)·대정정(大正町)을 행진하였다.

만세시위를 본 학생들은 동교 내에서 국기를 찾아 그것을 휴대하고 동교 뒷문을 나와 십 수명이 일단이 되어 각자 휴대한 국기를 흔들거나 혹은 손을 들어 모두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연호하면서 대성동(大成洞)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1922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件)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 통산 50일)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7월 2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나현(金羅賢)
생몰년도 : 1902. 3. 23 ~ 1989. 5. 11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5)

전주지역 만세시위계획은 1919년 3월 1일 전북 전주(全州) 천도교 교구실에 서울에서 온 인종익(印宗益)이 독립선언서를 전하면서부터 추진되었다.

주도자들은 3월 13일 전주장날을 기하여 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전주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학생이던 그녀는 김순실(金淳實) 등 동교 학생들과 함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날 정오경 남문에서 울리는 인경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였다. 천도교와 기독교 및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학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시위대열은 남문시장에서부터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을 시작하였다. 도중에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눠 주었다.

시위대는 제2보통학교를 거쳐 대화정(大和町, 현재 영화동)을 지나 우편국 앞에 이르렀다. 이때 일본 헌병과 경찰이 출동하여 총검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광분하였다.

일시 해산한 시위군중은 오후 3시경 다시 남문 부근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남문을 출발할 때 1백여 명 정도였던 시위군중은 우편국에 이르렀을 때는 5백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다시 일본 헌병과 소방대가 출동하여 총검을 휘두르고 심지어 소방용 갈구리로 군중을 마구 찍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세시위는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5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그녀를 비롯한 기전여학교 학생들이 전주감옥 분관에 입감되어 있을 때 시학관(視學官) 다나카[田中]가 와서 그녀들을 심문실로 불러내어 회유·설득하려 하였으나, 그녀들은 독립운동을 중지하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거절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낙희(金樂希)
생몰년도 : 미상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6)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加州)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부인회(韓國婦人會) 대표로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결성에 참여하여 동 단의 총단 재무·서기, 조선여자대학 협조회 발기인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1914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부인회(桑港婦人會)를 조직하기로 논의하고 샌프란시스코 한국부인회를 조직하였다.

1919년 5월 18일 다뉴바의 신한부인회(新韓婦人會)와 새크라멘토의 한인부인회(韓人婦人會)가 연합 발기하여 부인회 합동(合同)을 발표하자, 이를 계기로 부인회 통합운동이 일어났다. 같은 해 8월 2일 5개 지방 부인회가 개최한 합동발기대회에 전그레이스·박애나·최유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한국부인회 대표로 참석하여 대한여자애국단을 조직하였다. 1924~1925년, 1927~1929년, 1932~1933년 동 애국단 총단(總團)의 재무로 활동하였다.

1928년 김필레·차재명 등과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의 재정 곤란 소식을 전해 듣고, 한인여성 교육을 후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였다. 1930년 3월 애국단 총단 위원으로 광주학생운동에 관한 진상을 영문 책자로 출판·선전하려는 대한인유학생총회에 60달러를 지원하였다.

1931년 애국단 총단 위원으로 한국에 여자대학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여자대학 협조회 발기인이 되어 2천 달러를 모집하여 기부하였다.

1942년 애국단 총단 위원을 역임하고 1943년 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羅城支部)에서 활동하였다. 1945년 1월에는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 기관지 독립신문사로부터 로스앤젤레스 본사에서 개최되는 제3차 사우총회 참석을 요청받았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의연금, 대한민국임시정부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난줄(金蘭茁)
생몰년도 : 1904. 6. 1 ~ 1983. 7. 1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3월 부산 좌천동(左川洞)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3일경 독립선언서가 부산에 전해지자 일신여학교 교사 주경애(朱敬愛)는 부산상업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동료 교사를 규합하고 고등과 학생들에게 알려 거사를 독려했다. 이에 김난줄은 김응수(金應守)·송명진(宋明進) 등 고등과 학생 10명과 함께 기숙사에서 밤새워 태극기 50개를 준비하였다. 3월 31일 이들은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교사 주경애·박시연(朴時淵)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기숙사 문을 뛰쳐나왔다. 여학생들이 좌천동 거리를 누비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군중 수백 명이 호응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김난줄은 1919년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덕세(金德世)
생몰년도 : 1894. 12. 28 ~ 1977. 5. 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4)

1918년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와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단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18년 대한인국민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1921년 12월 17일 윤병구(尹炳求) 등 42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다뉴바(dinuba) 한인교회에서 시사연구회(時事研究會)를 발기 조직하였다.

1944년 4월 11일 다뉴바에서 대한여자애국단 중가주(中加州) 지부가 조직되자, 단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로스앤젤레스 대한인국민회 총회관에서 개최된 재미한족전체대표회에 대한여자애국단 대표로 참석하여 주미외교위원부 외교위원 15인을 선출하였다. 1921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덕순(金德順)
생몰년도 : 1901. 8. 8 ~ 1984. 6. 9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8)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3월 6일 김복현(金福鉉), 김강(金剛), 서정희(徐廷禧) 등은 송일학교(崇一學校) 교사 최병준(崔丙浚), 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 교사 박애순(朴愛順) 등과 3월 10일 광주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결행하기로 계획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3월 10일 오후 3시경 광주교(光州橋) 아래 강독 소시장에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양림동(楊林洞) 방면에서는 기독교인, 송일학교,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광주천(光州川)을 따라 내려왔고 서문거리로 많은 시민들이 몰려오고 농업학교 학생들과 군중은 북문 방면에서 모여들었다. 또 지산면(芝山面) 쪽에서는 수백 명의 농민이 달려왔다. 이렇게 모여드는 군중을 상대로 송일·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고, 시위군중은 태극기를 휘날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장을 출발하였다. 이들은 서문통(西門通)을 지나 우편국을 돌아 본정통(本町通)을 행진하는 등 광주 시내의 중요한 거리를 누비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에 참여하였던 수피아여학교 학생 김덕순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도연(金道演)
생몰년도 : 1894. 1. 28 ~ 1987. 8. 12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6)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맥스웰지부 서기, 로스앤젤레스지부(羅城支部) 단장, 애국단 총단(總團) 서기, 딜라노지부 재무, 맨티카 국어학교 임원, 딜라노구제회 재무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1919년 북미(北美) 각 지방 부인회가 통합하여 대한여자애국단을 창립하자, 단원으로 가입하였다. 1920년 4월경 이성례(李聖禮) 등과 맥스웰에 애국단 지부를 설립하고 서기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해 12월경 애국단 총단으로부터 맥스웰 지방 수금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24년 맨티카한인교회 내 국어학교 임원으로 선임되어 한인 2세 아동의 교육에 힘썼다. 1927년 9월경 김자혜(金慈惠)·양제현(梁齊賢)·신선희 등과 함께 부인전도회를 활성화 시켰다.

1932년 9월 샌프란시스코(桑港) 한인교회 주일학교 교사, 11월 로스앤젤레스여자청년회 서기로 활동하였다.

1934년 3월 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단장, 6월 애국단 총단 서기, 1936년 애국단 총단 서기로 활동하였다.

1944년 애국단 딜라노지부 재무로 딜라노지방회에서 주최한 3·1절기념식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1916년부터 1944년까지 독립금, 광복금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독실(金篤實)
생몰년도 : 1897. 9. 24 ~ 1944. 11. 3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7)

평남 용강(龍岡) 출신의 이화학당 교사로서,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한 것을 듣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경 서울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수천인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가두 행진하였다.

또 3월 5일에는 이화학당 교당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김독실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미결구류 90일 통산)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두석(金斗石) 생몰년도 : 1915. 11. 17 ~ 2004. 1. 7 포상훈격 : 애족장(1990)
------	---

경상남도 마산(馬山) 사람이다.
1939년 7월 20일 마산(馬山) 사립의산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일제의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동 교사직에서 해임 당하였다.
1940년 5월 17일부터 1941년 7월 30일까지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대한 거부와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반대하다가 5회에 걸쳐서 구금당하였다고 한다.
1942년 8월 23일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식민지 탄압정책이 가중되었을 때 신사참배요구와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비판하다가 다시 일제 경찰에게 피체되었다.
1944년 9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김락(金洛)
생몰년도 : 1863. 1. 21 ~ 1929. 2. 12
포상훈격 : 애족장(2001)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김락은 1910년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자정(自靖) 순국한 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의 며느리이자, 1919년 '파리장서' 운동의 주모자로 활동하다가 순국한 이중업(李中業)의 부인으로, 안동군 예안면(禮安面)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예안시위는 고종인산에 참가했던 이동봉(李東鳳)·이용호(李用鎬)·김동택(李東澤)·신응한(申應漢) 등이 서울의 시위를 직접보고 돌아와 그 소식을 전하면서 계획이 추진되었다.

예안시위는 2차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1차 시위는 3월 17일에 발생하였다.

이날의 만세운동은 오후 3시 30분 경 30여 명의 군중이 면사무소 뒤편 선성산(宣城山)에 올라가 일본이 세운 '어대전기념비(御大典紀念碑)'를 쓰러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시장주변에 나뉘어 있던 3개의 시위대 100여 명이 일제히 시장을 향하여 진격해 갔다. 시위대는 미리 정보를 탐지하고 수비대까지 동원한 일본 경찰의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동봉의 인솔 하에 예안주재소로 몰려갔다.

그러나 주동자를 비롯한 15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위군중들도 해산하였다.

그런데 오후 6시경, 격분한 시위군중들이 구금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로 몰려왔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1,500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은 구금자를 탈환하고자 돌멩이와 기왓장을 던지면서 주재소로 밀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시 25명이 피체되었다.

그러나 예안 시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3월 22일 다시 2차 시위가 일어났다. 오후 7시부터 약 2천명의 시위군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동부동과 서부동, 선성산 위에서 무리를 이루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발포로 13명이 부상을 입고 3명이 피체되었다. 김락도 예안의 3·1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녀는 이 일로 피체되어 신문과정에서 받은 고문으로 인해 두 눈을 실명하여 고통 속에 여생을 마쳤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p>성 명 : 김마리아(金瑪利亞) 생몰년도 : 1892. 6. 18 ~ 1944. 3. 13 포상훈격 : 독립장(1962)</p>
------	--

황해도 장연 사람이다.
조실부모하고 서울로 올라와 정신(眞信)여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의 교사로 재직하였다.
그 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하다가 28독립선언문 수습 장을 가지고 귀국하여, 1919년 3·1독립운동 준비에 참여하여 황해도 지역에 동지 규합을 담당하였다.
그녀는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즉시 정신여학교 기숙사에서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동년 8월에 면소 석방되었다.
출옥 후 정신여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대한애국부인회의 출옥 환영연에서 그녀는 동회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이후 상해에서 조직된 대한적십자회 대한지부를 결성하고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로 보내고, 독립선언문을 배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19년 11월 이러한 사실이 일경에 탐지되어 체포되었으며 6개월 여의 예심 중 일경의 모진 고문으로 중병에 걸려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러나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고등법원에 상고하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1921년 3월 경성복심법원의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때 병으로 해변에서 휴양하도록 승인 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그녀는 상해로 탈출할 수 있었다.
상해에서 수개월의 치료 끝에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남경 금릉대학(金陵大學)에서 수학하였으며, 1923년 6월에는 국민대표회의에 대한애국부인회 대표로 참가하여 성명서 발표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1923년에 치료차 미국으로 건너가 휴양하다가 미조리주의 팍대학을 졸업한 후 시카고대학 도서관에 근무하였다.
1935년에 귀국하여 원산의 신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44년 고문의 여독으로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마리아(金馬利亞)
생몰년도 : 1903. 9. 5 ~ 미상
포상훈격 : 애국장(1990)

서울 성동(城東) 사람이다.

고려혁명군 정치공작대원으로서 서백리아에서 항일전투에 참가하였다.

1940년 9월 광복군이 창설되자 참모장인 부군 이범석(李範奭)을 보좌하며 중앙군관학교 제7분교의 노어교관, 전간단 제7분단한청반(戰幹團第七分團韓靑班)의 노어·중국어 교관으로 광복군 대원 교육에 활약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반수(金班守)
생몰년도 : 1904. 9. 19 ~ 2001. 12. 22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2)

경남 동래(東萊) 사람이다.

1919년 당시 부산(釜山)에 있는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학생으로 서울로부터 학생대표가 내려와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며 시위 소식을 알리자 이곳에서도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동료들과 태극기 100여매를 만들어 같은해 3월 11일 기숙사를 뛰쳐나와 좌천동(佐川洞) 일대에 모인 군중에게 나누어주고 주민 수백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 행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병인(金秉仁)
생몰년도 : 1915. 6. 2 ~ 2012
포상훈격 : 애족장(2017)

1940년 中國 重慶에서 韓國革命女性同盟 창립에 참여하고, 1943년까지 韓國獨立黨 第二區 黨員으로 활동함.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복선(金福善)
생몰년도 : 1901. 7. 27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3월 부산 좌천동(左川洞)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2~3일경 독립선언서가 부산에 전해지자 일신여학교 교사 주경애(朱敬愛)는 부산상업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동료 교사를 규합하고 고등과 학생들에게 거사를 독려했다. 이에 김복선은 김난줄(金蘭茁)·김응수(金應守)·송명진(宋明進) 등 고등과 학생 10명과 함께 기숙사에서 밤새워 태극기 50개를 만들었다.

3월 31일 이들 10명의 여학생은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교사 주경애·박시연(朴時淵)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기숙사 문을 뛰쳐나왔다. 여학생들이 좌천동 거리를 누비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군중 수백명이 호응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김복선은 1919년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봉식(金鳳植)
생몰년도 : 1915. 10. 9 ~ 1969. 4. 23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북 경주(慶州) 사람이다.

1940년 2월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에 입대하여 항일투쟁 활동을 전개하던 중 1941년 1월 1일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이 창군되자 중국서안(西安)에 본부를 둔 광복군 제5지대에 편입되어 지대장 나월환(羅月煥)의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1942년 5월 제5지대가 광복군 제2지대로 개편됨에 따라 그는 제2지대 제2구대원으로 활동하다가 1945년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봉애(金奉愛)
생몰년도 : 1901. 11. 18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3월 부산 좌천동(左川洞)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3월 2~3일경 독립선언서가 부산에 전해지자 일신여학교 교사 주경애(朱敬愛)는 부산상업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뜻을 같이할 동료 교사를 모으고, 고등과 학생들에게 거사를 독려했다.
이에 김봉애는 김난줄(金蘭茁)·김응수(金應守)·송명진(宋明進) 등 고등과 학생 10명과 기숙사에서 태극기 50개를 만들었다.
3월 31일 이들은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교사 주경애·박시연(朴時淵)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기숙사 문을 뛰쳐나왔다. 여학생들이 좌천동 거리를 누비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군중 수백 명이 호응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김봉애는 1919년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성심(金誠心)
생몰년도 : 1883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3)

1919년 4월 평안남도 함흥군(咸興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고, 동년 11월 평안남도 평양(平壤)에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를 조직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독립운동자금 모집과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평안남도 함흥군에서 차명건(車明建)은 김성심의 집에서 시위운동을 계획하였고, 동군의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校)에서 3천여 명의 민중이 회집한 가운데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소위 출판법(出版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기소되어 동월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1919년 6월경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파(長老派)와 감리파(監理派)의 부인 신도들이 각기 자기교파의 부인 신도들을 결속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부인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년 8월경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원인 김정목(金貞穆)·김순일(金淳一) 등의 권유에 의하여 두 교파의 부인 신도들이 서로 제휴·연합을 논의한 끝에 동년 11월 연합에 성공하여 명칭을 대한애국부인회라 하며, 평양에 연합회 본부를 두고 주요 지방에 지회를 두는 계통적 비밀결사를 이루었다.

이후 김성심은 강서군(江西郡)읍내에서 전도부인(傳道婦人)으로 활동하면서 대한애국부인회 강서군 감리파지회(監理派支會)의 모집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의 부인 유지들에게 권유하여 지회를 조직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군자금 2400여 원을 회원 및 동지들로부터 모집하였다. 이 가운데 2107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원조하고, 나머지 돈 312원은 본회의 경비에 사용하였다.

1920년 10월 15일 송치되어 1921년 2월 24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12월 1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성일(金聖日)
생몰년도 : 1898. 2. 17 ~ 1961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0)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기생 이벽도(李碧桃), 문향희(文香姬) 등과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2월 말, 김성일[예명 月姬]은 고종의 인산(因山)을 봉도하기 위해 상경하여 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고종의 인산을 배관하고 해주로 돌아왔다. 3월 10일 해주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수수방관할 수 없었던 김성일은 3월 하순, 문응순(文應淳, 예명 月仙), 김용성(金用性, 海中月), 문재민(文載敏, 예명 馨姬), 옥운경(玉雲瓊, 예명 彩珠) 등과 거사를 논의한 후 4월 1일 거사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김성일과 문응순이 직접 한글로 독립선언서를 지어 5천장을 인쇄하는 한편, 태극기를 손수 제작하여 준비를 마쳤다.

4월 1일 오후 2시경 김성일을 비롯한 해주 기생들은 남문 쪽을 향해 나가며 태극기를 흔들고 전단을 뿌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소식을 듣고 동료 기생들을 비롯한 군중들이 모여들어 행렬은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 행렬은 재판소를 거쳐 동문으로 들어와 다시 종로로 향하였다. 이때 출동한 일제 경찰에 의해 김성일 등 주동자 5명은 잡혀 종로경찰서로 끌려갔다. 이들은 종로경찰서 앞에 이르자, 돌을 집에 유리창을 부수는 한편, 다시 만세를 부르는 의기를 보였다. 경찰서에서 이들은 심한 악형으로 온 몸이 멍이 들고,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김성일은 1919년 6월 26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19년 12월 28일 출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수현(金秀賢)
생몰년도 : 1898. 6. 9 ~ 1985. 3. 25
포상훈격 : 애족장(2017)

1940년 中國 重慶에서 韓國革命女性同盟 창립에 참여하고, 1943년부터 해방 때까지 韓國獨立黨 黨員으로 활동함.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숙경(金淑卿)
생몰년도 : 1886. 6. 20 ~ 1930. 7. 27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함북 경원(慶源) 사람이다.

훈춘(琿春)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황병길(黃炳吉)의 부인이다.

1886년 함북 경원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출생하였으며, 1897년 12세의 어린 나이에 황병길에게 시집갔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에 분개하여 남편 황병길이 항일 운동을 일으키자 여기에 참여하여 함께 활동 중 체포되어 10여일 동안 구류를 살았다.

1910년 남편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 연추(煙秋 : 노보끼예브스크, 현재의 그라스끼노)지역으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11년에는 다시 훈춘으로 이사하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국내에서 3·1운동이 전개되자 여기에 참여하였으며, 동년 9월 29일에는 훈춘 동문내(東門內) 박봉식(朴鳳植) 집에서 훈춘대한애국부인회(琿春大韓愛國婦人會)를 조직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함께 활동한 주요 간부로는 회장 송신덕(宋信德), 총무 권정숙(權貞淑), 회계 오신애(吳信愛), 서기 김현희(金顯姬)·황영은(黃永恩) 등을 들 수 있다.

본회는 목적을 독립운동의 후원, 여성의 교육과 여권신장, 부상당한 군인의 구호에 두고 있었으므로 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동지들과 의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발하여 월자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패물이나 옷감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마련에 노력하기도 하였다.

1920년 4월 남편이 사망하였으며, 동년 10월에는 일제의 간도출병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일군에 체포되어 고생을 겪기도 하였다. 1930년 7월 27일 급성위장염으로 만주에서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숙영(金淑英)
생몰년도 : 1920. 5. 22 ~ 2005. 12. 13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남 평원(平原) 사람이다.

광복군 제2지대 제2구대 제3분대원에 입대하여 공작활동을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순도(金順道)
생몰년도 : 1891 ~ 1928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평북 선천(宣川) 사람이다. 1909년 3월 국권 회복과 독립군기지(獨立軍基地) 개척을 준비하고 있던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의 활동을 포착한 일제는 1910년 12월 소위 '안명근사건(安明根事件)'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건을 확대 날조하여 신민회 간부들을 검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11년 1월 '안악사건(安岳事件)'과 '양기탁(梁起鐸) 등 보안법위반 사건'을 조작하여 신민회의 관련 고위핵심간부를 체포하는데 성공한 일제는 신민회의 나머지 애국지사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일제의 조선총독 사내정의(寺內正毅)가 1910년 12월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하고 철로편으로 서순(西巡)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신민회 회원들이 사내정의의 암살을 기도했다는 이른바 사내정의총독 암살미수사건(또는 105인 사건)을 또다시 조작하여 1911년 9월 신민회의 회원을 체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05인 사건에 연루된 그녀 역시 동년 9월 피체되어 1년여 동안 일경의 악형과 잔혹한 고문을 당하는 등 옥고를 치른 끝에 석방되었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남만주·상해(上海)·광둥(廣東) 등지를 옮겨 다니며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그녀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조직되자, 투신하여 임시정부 요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중국 상해지역 청년 동지들의 자모(慈母)로 활동하며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 주었다. 또한 항일독립문서 배포를 통해 한인교포들의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항일독립투쟁에 필요한 무기를 운반하는 등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동하였다.

그 후 중국 광둥에서 황포군관학교의 한국인 교관과 학생들을 후원하던 중, 병을 얻은 그녀는 황포탄으로 옮겨 투병 중 1928년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순애(金淳愛)
생몰년도 : 1889. 5. 12 ~ 1976. 5. 17
포상훈격 : 독립장(1977)

항해도 장연(長淵) 사람이다.

만주에서 독립운동가 김규식(金奎植)과 결혼한 후 중국 상해(上海)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듬해에 파리에서 강화회의(講和會議)가 열린다는 상해영자보(上海英字報)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파리에 파견되어 강화회의에서 활동할 사람으로서 김규식이 결정되었다. 이에 그녀는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목적으로 1919년 1월 서병호(徐丙浩) 등과 함께 상해에서 새로운 독립운동조직으로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만들었다. 당원 150명의 신한청년당의 이사장으로는 서병호가 선출되고 그녀는 여운형(呂運亨) 김구(金九) 선우 혁(鮮于赫) 이광수(李光洙) 등 8명과 함께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사로 선출된 그녀는 상해와 만주, 국내를 왕래하며 한국 청년에게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며 광복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을 주장하며 활약을 하였다. 한편 상해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1920년 1월 상해에서 손정도(孫貞道) 김철(金徹) 김립(金立) 윤현진(尹顯振) 김구와 함께 조국광복운동을 위한 의용단(義勇團)을 발기하였다. 이 의용단은 임시정부를 지원키 위해 결성되었는데 본부는 상해에 있고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상해에서 파견된 사람들에 의해 국내에도 지단이 조직되었다. 즉 평양에는 김석환(金錫璜)에 의해서 조직되었고 이외에도 부산과 항해도 지방에도 새로 조직되거나 혹은 기존의 다른 명칭의 단체가 명칭 변경을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띤 의용단으로 구성되었다. 의용단에서는 독립신문을 배달하는 등 독립사상의 계몽, 임시정부의 독립공채(獨立公債) 모집, 기타 재정자금(財政資金)을 수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무장독립운동도 조국광복을 위한 일환으로 하였다. 또한 그녀는 같은 해 상해에서 이화숙(李華淑) 이선실(李善實) 강천복(姜千福) 박인선(朴仁善) 오의순(吳義順) 등과 함께 조국독립운동에 여성들도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대한애국부인회에서의 김순애는 한국 지도(地圖)의 제작 및 태극기의 제작 보급, 임시정부의 회의장 준비 등 임시정부의 선전을 민중의 저변으로 확대시키는 독립운동을 담당하였다.

한편 여성활동(女性活動)을 통한 여권(女權)의 지위 상승을 위하여 애쓰던 결과 1922년 모스크바의 극동인민대표대회(極東人民代表大會)에 권애라(權愛羅) 김원경(金元慶) 두 사람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듬해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 때에는 그녀 자신이 부인회의 대표로 참석하였으나 임시정부 내의 개조파(改造派)와 창조파(創造派)의 대립으로 부인회 회장직을 떠났다. 또한 구한말(舊韓末)에 있었던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가 일제 침략과 더불어 해체되었던 것을 1919년 8월 상해에서 서병호(徐丙浩) 이희경(李喜敬) 안창호 등의 논의로 대한적십자회가 발기되자 사검(査檢)에 선임되었다. 이어서 11월 23일 병원의 설립과 간호원양성소 설립을 목적으로 대한적십자회 회원 대모집의 경쟁회의를 공고하였다. 이에 이듬해 1월 27일에는 남녀 13명으로 구성된 적십자 간호원양성소를 개교(開校)하여 국제적십자회에 대한적십자회를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간호원양성소는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립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1921년 초에는 대한적십자회를 일본적십자회에서 독립시키기 위한 국제적십자회의의 교섭을 파리위원부의 이관용을 대표로 하여 전개하였다. 또한 1920년 일본이 간도 출병(間島出兵)에서 저지른 만행을 폭로하여 적십자 정신에 의해 일본을 규탄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1920년 11월에는 상해대한인거류민단(上海大韓人居留民團)의 의원으로 피선된 그녀는 임시정부가 중경(重慶)으로 이전될 때까지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하며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1926년 7월에는 안창호(安昌浩) 염온동(廉溫東) 엄항섭(嚴恒燮) 송병조(宋秉祚) 등과 임시정부경제후원회를 발족시켜 쇠퇴하여가는 임정활동을 지원하였다. 1930년 8월 16일에는 상해한인여자청년동맹을 조직하여 김구경(金九經) 박영봉(朴英峰) 등과 함께 1933년까지 독립운동을 측면에서 도왔다.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옮겨지면서부터 전시체제(戰時體制)로 돌입하게 되자 모든 주의(主義)와 이념(理念)이 다른 각 당파(黨派)들도 모두 임시정부를 지지 옹호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의와 이념을 초월하여 애국, 구국을 다짐하는 사회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1943년 2월 23일에는 중경에 있던 각계 각파의 부인 50여 명이 임시정부 집회실에 모여 애국부인회 재건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그녀가 주석으로 선출되었고 방순희(方順熙) 연미당(延薇堂) 김운택(金潤澤) 권계옥(權桂玉) 정정화(鄭正華) 최소정(崔素正) 강영파 등이 간부로 선출되었다. 그녀는 임원들과 함께 3.1독립운동 당시 애국부인회의 혁명적 애국 활동을 이어 구국을 위한 애국여성이 될 것 등 7개의 강령을 제시하였다.

재건된 애국부인회는 방승으로 국내외의 동포 여성들에 대한 분발과 각성을 촉구 호소하거나 위문금품을 거두어 무력항쟁하는 광복군을 위문하는 등 독립투쟁에 앞장을 섰다. 또한 포로수용소를 통해 넘어오는 동포여성들을 계몽교육하여 조국광복 운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해외 각지의 한국여성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 성원을 두텁게 하는데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광복운동을 위한 중국 각지에 있던 당파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재중국자유한인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그녀는 한국부인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그 외 한국독립당의 홍진·조선민족혁명당의 김충광·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규·무정부주의 연맹의 유월파·한국청년회의 한지성 등이 참석하여 주석단으로 추대되었다. 이들은 "한국은 완전 독립하여야 한다. 외국의 어떠한 간섭이라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강연과 토론을 가지고 한국민족의 독립, 민족국가의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4개항의 재중국한인대회 선언을 국내외에 발표하여 거족적인 결의를 표시하였다. 또한 대회 주석단의 명의로 각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을 통해 부당한 언론 탄압에 대한 반대로쟁의 전개와 동맹국 영수(領袖)에게는 우리의 완전독립보장과 대일작전의 원조를 요청하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1945년 11월 23일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보낸 비행기편으로 김구·김규식·이시영·김삼덕·엄항섭·유동열·유진동·김진동·안미생 등 임정요인들과 함께 귀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순이(金順伊)
생몰년도 : 1903. 7. 18 ~ 1919
포상훈격 : 애국장(2014)

1919년 3월 경남 통영군(統營郡) 통영면(統營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김순이는 통영면 신정(新町) 구장 이봉철(李奉哲), 대화정(大和町) 유치원 여교사 문복숙(文福淑) 등과 함께 1919년 3월 18일 통영 읍내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때 김순이와 문복숙은 태극기 제작과 선언서 배부를 맡았다. 이들은 태극기와 선언서를 집집마다 배포한 뒤, 군중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시위에는 신정에 있는 한문학당 관란제(觀瀾齋)의 서당 학생들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김순이는 1919년 4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1919년 9월 6일 가출옥하였으나 고문후유증으로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신희(金信熙)
생몰년도 : 1899. 4. 16 ~ 1993. 4. 23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0)

전북 전주(全州)에서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재학 중 임영신(任永信), 김공순(金恭順)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3일 오후 1시경 김신희를 비롯한 11명의 여학생들은 수백명의 군중과 함께 전북 전주군 전주면(全州面) 남문(南門) 밖 시장 부근에서부터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남문을 거쳐 대정정(大正町) 우편국 부근까지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3개월간 고초를 치르다 1919년 6월 보석된 김신희는 같은 해 9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씨(金氏(姜太成夫人))

생몰년도 : 1899 ~ 1919. 4. 15

포상훈격 : 애족장(1991)

경기도 화성(華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鄉南面 發安)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이날 남편 강태성과 함께 1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인 발안 장터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장터를 행진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경찰과 충돌하여 그들의 무차별 발포로 3명이 부상하였다. 분노한 시위군중은 투석으로 대항하여,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일본인 거주자들도 부상하였다. 이에 수원(水原)에서 일본 경찰과 헌병이 대량으로 파견되어 보복적인 검거작업을 벌였고, 그후에도 제암리(堤岩里) 일대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4월 15일 오후 2시경 유전준부(有田俊夫)라는 일본군 중위가 인솔한 20여 명의 군경이 제암리에 도착하여, 민간인들에게 알릴 일이 있다고 속여 기독교(基督教), 천도교(天道教)인 약 30명을 제암리 기독교 교회당에 모이게 했다. 이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이 때 유전준부(有田俊夫)는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게 하고 집중사격을 명령하였다. 이같은 만행으로 23명이 현장에서 죽고, 이어 고주리에서 6명이 죽었는데, 일본군은 학살만행 현장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같은 일제의 만행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분노를 사게 하여, 4월 17일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f.w.schofield)는 현장으로 달려가 사진을 찍어, 「수원에서의 잔학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국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양식있는 일본인들조차 분격케 하여 「저팬 애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와 「저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등은 학살사진과 목격자의 증언까지 곁들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때 그녀는 일제의 만행으로 그녀의 남편과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씨(金氏(洪元植夫人))
생몰년도 : 1877. 10. 13 ~ 1919. 4. 15
포상훈격 : 애족장(1991)

경기도 화성(華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鄉南面 發安) 장날을 이용하여 일으킨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녀는 이날 남편 홍원식과 함께 1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인 발안 장터에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장터를 행진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경찰과 충돌하여 그들의 무차별 발포로 3명이 부상하였다. 분노한 시위군중은 투석으로 대항하여,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일본인 거주자들도 부상하였다. 이렇게 되자 수원(水原)에서 일본 경찰과 헌병이 대량으로 파견되어 보복적인 검거작업을 벌였고 그후에도 제암리(堤岩里) 일대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4월 15일 오후 2시경 유전준부(有田俊夫)라는 일본군 중위가 인솔한 20여 명의 군경이 제암리에 도착하여, 민간인들에게 알릴 일이 있다고 속여 기독교(基督教), 천도교(天道教)인 약 30명을 제암리 기독교 교회당에 모이게 하였다. 이에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함께 교회안으로 들어갔다. 이 때 유전준부(有田俊夫)는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게 하고 집중사격을 명령하였다. 이같은 만행으로 23명이 현장에서 죽고, 이어 고주리에서 6명이 죽었는데, 일본군은 그들의 학살만행 현장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일제의 만행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4월 17일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f.w.schofield)는 현장으로 달려가 사진을 찍어, 「수원에서의 잔학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국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양식있는 일본인들조차 분격케 하여 「저팬 애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와 「저팬 크로니클(japan chronicle)」등은 학살사진과 목격자의 증언까지 곁들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 때 그녀는 일제의 만행으로 그녀의 남편과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안순(金安淳)
생몰년도 : 1900. 3. 24 ~ 1979. 4. 4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1)

전남 광주(光州)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나주(羅州) 출신 김복현(金福鉉)이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김강(金剛)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10일 오후 3시 30분경 광주시장에서 송일학교(崇一學校) 학생과 수피아(須比亞)여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0일 김복현 등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자, 수백 명의 군중은 태극기를 흔들며 송일학교 학생과 수피아여학교 학생들과 합세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당시 수피아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안순도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김안순은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알렉산드라
생몰년도 : 1885. 2. 22 ~ 1918. 9. 16
포상훈격 : 애국장(2009)

1914년 말부터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러시아 우랄 지방 삐름스크 대공장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진력했으며, 1917년 초 러시아사회민주당에 가담하여 그해 삐름스크 대공장의 조선인 노동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이전 羅子溝무관학교 생도 출신인 이들 조선인 노동자들로 '우랄노동자동맹'을 조직하였으며, 1918년 1월 하바로프스크에서 극동인민위원회 외교인민위원이 되어 러시아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李東輝 석방운동을 전개하고, 4월 李東輝 등과 함께 '反日反帝의 사회주의 노선'을 강령으로 채택한 최초의 한인 사회주의정당인 韓人社會黨을 창립하여 산하 출판사인 보문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일본군이 연해주에 출병했을 때 일본군병사들을 상대로 한 反帝反戰 사업을 전개하고 韓人들을 모집 '韓人社會黨 적위군'을 조직하여 일본군 및 백위군과 전투를 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9월 하바로프스크가 일본군과 백위군에 함락되었을 때 체포되어 총살당한 사실이 확인됨.

성 명 : 김애련(金愛蓮)
생몰년도 : 1906. 8. 30 ~ 1996. 11. 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2)

부산(釜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1일 당시 부산진공립보통학교(釜山鎭公立普通學校) 학생으로서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학생들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킨 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갖은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분개하여 동료인 김호봉(金浩鳳)·이갑이(李甲伊) 등과 함께 일신여학교생 50여명과 인근 주민들을 규합, 좌천동(佐川洞) 셋길 주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5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연실(金蓮實)
생몰년도 : 1898. 1. 16 ~ 미상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5)

1919년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고, 1920년 중국 상해(上海)에서 인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애국부인회에서 활동하였으며, 1924년부터 1936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로스앤젤레스지부에서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평남 평양(平壤) 대찰리(大察里)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배포하고 혈성가(血誠歌)를 부른 뒤 평양 시내를 행진하며 만세를 불렀다. 이 일로 평양경찰서에 붙잡혀 같은 해 7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월 중국 상해에서 애국부인회, 3월 흥사단(興士團), 인성학교(仁成學校), 4월 적십자회 간호부양성소에서 활동하였다.

1924년 8월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회원, 1926년 서기, 1928년 재무, 1933년 사교원과 행정 담당 위원, 1934년 총서기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부터 1942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영순(金英順)
생몰년도 : 1892. 12. 17 ~ 1986. 3. 17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서울 사람이다.

정신여학교 교사로 있던 그는 오현주(吳玄洲)의 권유로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 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 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되어 대조선 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 청년외교단(大韓民國青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이후 동회는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하여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그는 서기로 선임되어 동회의 취지서, 본부와 지부규칙을 복사하여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폈다.

동회는 본부와 지부를 통해 임시정부 국내연통부(聯通府)의 역할과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대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19년 11월 일경에 피체되어 그는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7년 4월 신간회(新幹會) 자매단체인 근우회(槿友會)의 창립준비위원회에 참가하여 회원모집 활동을 폈으며 동년 5월 28일 개최된 동회의 창립대회에서 21인의 집행위원 중 한명으로 선출되어 교양부를 맡아 여성의 지위향상과 항일독립운동에 힘썼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영실(金英實)
생몰년도 : 미상 ~ 1945. 10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학도병으로 일본군에 징집된 후 서주(徐州)에서 일본군 진영을 탈출하였다.

탈출 후 곧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공작활동을 하였다.

광복 후 광복군 총사령부 주호판사처(駐 辦事處)가 상해에 설치됨에 처원으로 근무 중 같은 해 10월 순직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옥련(金玉連)
생몰년도 : 1907. 9. 2 ~ 2005. 9. 4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3)

제주도 북제주(北濟州) 사람이다.

1932년 1월 제주도 구좌면(舊左面)에서 해녀들의 권익침탈에 항거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1931년 해녀들에 대한 일본 관리들의 가혹한 대우와 제주도해녀조합 어용화의 폐단이 있자, 해녀들은 1931년 12월 20일 요구조건과 투쟁방침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김옥련은 1932년 1월 7일과 12일 제주도 구좌면에서 해녀조합의 부당한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해녀들의 권익을 위해 부춘화(夫春花) 등과 함께 도사(島司) 전구정희(田口禎熹)와 담판을 벌여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1월 26일 경에는 제주도 민족운동가의 검거를 저지하려다 피체되어 6개월 정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옥선(金玉仙)
생몰년도 : 1923. 12. 7 ~ 1996. 4. 25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重慶)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총사령부(韓國光復軍總司令部)는 임시로 광복군을 4개 지대(支隊)로 편성하고 각 지대 내에 3개 구대(區隊)를 두고, 다시 각 구대 내에 3개 분대(分隊)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복군의 부대 편성은 부대원의 다수 부족으로 1942년 4월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조선의 용대(朝鮮義勇隊)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함에 따라 겨우 2개 지대로 편성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광복군총사령부가 1942년 2월 김학규(金學奎)를 산둥성(山東省)으로 특파하여 일본군으로 강제 징집당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모공작(招募工作)을 전개하도록 하자, 김학규는 양자강 이남의 안휘성(安徽省) 부양(阜陽)에 머물면서 3년 남짓 초모활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1월경 중국 하남성(河南省) 녹읍(鹿邑)에서 광복군 제3지대 전방 지하공작원 김 철(金哲) 및 김기극(金基極)과 접선한 그는 적지구공작대(敵地區工作隊) 연락원으로 활동하다가 동년 2월 동지(同地)를 탈출하였다.

그리하여 5월 광복군에 입대하여 김학규가 이끄는 제3지대 제1구대 본부 구호대원(救護隊員)으로 조국독립 투쟁을 위해 적극 활동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옥실(金玉實)
생몰년도 : 1906. 11. 18 ~ 1926. 6. 2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2)

1921년 11월 워싱턴회의에 조선독립문제 상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목포부(木浦府) 시내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1월 전라남도 목포부 양동(陽洞)의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에 재학중, 동교생들과 함께 "동아일보" 등 기타 신문을 통하여 워싱턴회의가 개최됨을 알고, 조선민족대표자도 반드시 이 회의에 참열(參列)하여 조선의 독립문제를 제출하고 그것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모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개시한다면 일반 조선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동(同) 회의에 참석하는 조선인 대표자에게 성원을 주며, 또한 일반 조선인의 독립 희망이 얼마나 절실한지 각국 전권위원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그들의 호응을 얻어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 경 천귀례(千貴禮)·곽희주(郭喜主)·김나열(金羅烈)·박음전(朴陰田)·문복금(文卜今)·김연순(金蓮順)·박복술(朴福述)·주유금(朱有今)·이남순(李南順)·김귀남(金貴南)·김자현(金慈賢) 등 동교생 12명과 동교 기숙사 내에 집합하여 위와 같은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그 방법으로 다음날인 14일 정오 오폭(午砲)을 신호로 삼아 각자 대한제국기(大韓帝國旗)를 휴대하고 교문을 나와 목포 시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동 13일 동 기숙사에서 함께 국기 수 십 매를 제작한 뒤, 14일 오전 수업 종료 후 학생과 교사 등이 휴식 중인 정오에 오폭을 신호로 20명 모두가 국기를 손에 들고 동교 정문을 나왔다. 이 가운데 11명은 각자 휴대한 국기를 휘두르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동교 정문으로부터 목포부 남교동(南橋洞)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이를 본 수 명의 학생들은 동교내에 떨어져 있는 국기를 주워서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남교동에서 동부 죽동(竹洞)을 거쳐 창평정(昌平町)·대정정(大正町)을 행진하였다.

만세시위를 본 학생들은 동교 내에서 국기를 찾아 그것을 휴대하고 동교 뒷문을 나와 십 수명이 일단이 되어 각자 휴대한 국기를 흔들거나 혹은 손을 들어 모두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연호하면서 대성동(大成洞) 방향을 행진하였다.

1922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件)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 통산 50일)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7월 2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온순(金溫順)
생몰년도 : 1898. 3. 3 ~ 1968. 1. 31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황해도 해주(海州) 사람으로 독립투사 김광희(金光熙)의 부인이다.
부인은 평양 송의여중(崇義女中) 출신이며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해주(海州)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부군을 도와 독립운동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1930년 3월 3일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의 지도당으로 조직된 신한농민당(新韓農民黨)의 여성부장으로 뽑혀, 북만주 독립운동 노선이 공산주의자들의 획책으로 인하여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힘썼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용복(金用福)
생몰년도 : 1890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3)

1919년 6월 평안남도 평양(平壤)에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를 조직하여 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동년 11월 대한애국부인회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6월경 평안남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파(長老派)와 감리파(監理派)의 부인 신도들이 각기 자기 교파의 부인 신도들을 결속하여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부인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년 8월경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원인 김정목(金貞穆)·김순일(金淳一) 등의 권유에 의하여 두 교파의 부인 신도들이 서로 제휴·연합을 논의한 끝에 동년 11월 연합에 성공하여 명칭을 대한애국부인회라 하며, 평양에 연합회 본부를 두고 주요 지방에 지회를 두는 계통적 비밀 결사를 이루었다.

김용복은 평양의 사립(私立) 숭실여학교(崇實女學校) 교사로서, 한영신(韓永信)의 발기로 1919년 6월경 이겸양(李謙良)·김경선(金景善)·김보원(金寶源)·한영신 등과 함께 평양부 신양리(新陽里) 김경희(金景禧)의 방에서 장로파 부인들을 중심으로 애국부인회라는 단체를 조직한 뒤, 한영신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임원을 천거하고 동지규합, 회비의 징수, 군자금 모집, 배일사상의 고취, 결사대·독립단 기타 운동원의 원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다. 동년 8월 상순김용복의 집에서 한영신 외 7명의 간부가 집합하여 활동의 경과, 임원의 개선 및 감리파와의 합동 가부(可否)를 협의하고 연합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년 11월 양파 연합의 논의가 성립하자, 동월 상순경 다시 김경희의 방에서, 박승일(朴昇一) 등 양파 간부 각 6명이 함께 모여 박승일·최순덕+(崔順德)·이성실(李聖實)·손진실(孫眞實)·황신덕(黃信德) 등이 조직한 애국부인회와 연합하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는 것을 주도하였다. 이 날 모임에서는 본부를 평양에, 지회를 각지에 둘 것, 본부의 임원은 양파가 공평하게 선임할 것, 이미 설치된 각파 부인회는 그대로 지회로 할 것, 각 지방의 각 파 부인 유지에게 권유하여 지회를 설립할 것, 일반으로부터 회비 이외의 군자금을 모집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후 김용복은 평양 장로파 지회장으로서, 1920년 4월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외국인이 경영하는 평양의 기흥병원(紀筊病院) 등 기타 장소에 모여 임원의 개선, 회원의 모집, 회비의 징수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동년 5월 이래 각 지방의 부인 유지들에게 권유하여 지회를 조직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군자금 2400여 원을 회원 및 동지들로부터 모집하였다. 이 가운데 2107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원조하고, 나머지 돈 312원은 본회의 경비에 사용하였다.

1920년 10월 15일 송치되어 1921년 2월 24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 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원경(金元慶)
생몰년도 : 1898. 11. 13 ~ 1981. 11. 23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63)

서울 무교동(武橋洞) 사람이다.
이화학당(梨花學堂)을 졸업하였으며, 1919년 3·1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동년 4월에 최숙자(崔淑子) 백성현(白性玄) 경하순(慶河順) 김희옥(金熙玉) 등과 함께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를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애국부인회의 특사로 상해에 파견되었으며, 그곳에서 동년 9월에 혈성단(血誠團)과 통합하여 애국부인회가 조직되자 이화숙(李華淑)을 회장에 추대하고 그녀는 부회장이 되었다.
1920년 2월말에는 다시 그녀가 회장에 선출되어 계속 애국부인회를 이끌고 임시 정부를 지원하였다.
1920년 11월에는 상해 대한인거류민단(大韓人居留民團)이 조직되자 그녀는 최창식(崔昌植)과 같이 서구(西區)의원에 뽑혀 교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22년에 모스크바에서 극동인민대표회의가 열리게 되자 그녀는 권애라와 같이 한국 대표로서 이 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어 임시정부 요인인 최창식과 결혼하여 임정의 뒷바라지를 계속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고려공산당의 여자청년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인정하여 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윤경(金允經)
생몰년도 : 1911. 6. 23 ~ 1945. 10. 10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황해도 안악(安岳) 사람이다.

일찍 부모와 함께 중국땅으로 이주하여 유년시절부터 중국에서 보냈다. 1924년 8월 15일부터는 상해 프랑스조계(租界)에 있는 김 구(金九)의 집에서 기숙하면서 임시정부 산하 인성(仁成)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녀는 항일의식과 민족의식을 직접 간접적으로 고취하여 독립운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케 되었다.

이에 1930년에는 상해에서 항일운동을 위해 의기가 투합한 젊은 여성들을 모아 여자청년동맹(女子靑年同盟)을 조직하여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녀는 여성항일운동의 선봉에 서서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독립운동을 위한 정보수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즉 여자청년동맹에서는 일본 관헌들로부터 얻는 정보를 임시정부에 전달한다거나 혹은 임시정부에서 대일(對日) 독립항쟁을 위해 일본 관헌을 교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성단체인 동 여자청년동맹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1933년 상해에서 남경(南京)으로 거처를 옮긴 그녀는 이곳에서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의 여성 당원으로서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정책은 만주(滿洲)를 강점하고 만주국(滿洲國)을 건립하여 노구교(蘆溝橋)사건을 조작하고, 1937년 마침내 중 일전쟁을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중국의 남경이 함락 당하여 이곳에 기지를 둔 각종 항일단체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그녀도 곧 동지들과 중경(重慶) 방향으로 남경을 탈출하였다.

중경에 도착 후 계속 임시정부 및 한국독립당 산하에서 부인회 등에 참여하여 항일 전선에서 활동하다가 이국땅에서 영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응수(金應守)
생몰년도 : 1901. 1. 21 ~ 1979. 8. 18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5)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그는 부산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고등과에 재학 중 1919년 3월 11일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서울의 3·1운동 소식이 부산에 전달된 것은 3·1운동 다음날인 3월 2일경으로 이 때 기독교 인사들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비밀리에 배포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내 각급 학교에서는 만세시위를 준비해 갔는데, 김응수는 일신여학교 교사 주경애(朱敬愛)·박시연(朴時淵)을 비롯한 송명진(宋明進)·김순이(金順伊)·김난출(金蘭出)·박정수(朴貞守)·김반수(金班守) 등 일신여학교 기숙사 학우 10여 명과 함께 만세시위를 추진하였다.

이 때 이들은 부산상업학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3월 11일 밤을 기해 거사하기로 뜻을 모으고, 3월 10일 저녁에는 기숙사 벽장속에 숨어서 밤을 세워 태극기 50여 매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사일인 3월 11일에는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뒤 오후 9시를 기해 교사 주경애·박시연 등과 함께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한 뒤 시내로 나아가 좌천동(佐川洞) 등지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때 그는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면서 시위행렬의 선봉에 섰다가 이를 탄압하는 일경에 피체되었다.

피체 후 그는 일경으로부터 뺨을 맞고 구두발로 차이는 등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세살 먹은 아이도 제 밥을 빼앗으면 달라고 운다.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돌려 달라고 운동하는데 무엇이 나쁘냐?"면서 당당하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는 민족적 기개를 잃지 않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3월 12일 피체되어, 4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인애(金仁愛)
생몰년도 : 1898. 3. 6 ~ 1970. 11. 20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9)

1919년 3월 13일 전북 전주군(全州郡) 전주면(全州面) 남문(南門) 밖 시장, 대정정(大正町) 우편국 일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동월(同月) 12일 밤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학생이었던 김인애는 임영신(任永信) 등 13명의 동지들과 결사대를 조직하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품고 동지의 집에 모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거사 당일 정오 이들이 준비했던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뿌리며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치니 군중들도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김인애는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녀는 동지들과 함께 유치장으로 들어가면서도 독립만세를 외쳤다. 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은 단식으로 저항하며 독립항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또한 일본 검사가 위압된 자세로 복종을 강요하자, 이들은 '우리가 어찌 너희들의 판결에 복종할 자이라? 너희들은 우리의 강토를 강탈하고 우리의 부형을 학살한 강도이거늘 도리어 3천리 강산에 주인이 되려는 우리를 비법이라 하니 이는 비법한 판결이다'라고 역설하였다.

결국 김인애는 3개월 여의 옥고를 치른 후 1919년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자혜(金慈惠)
생몰년도 : 1884. 9. 22 ~ 1961. 11. 22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4)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과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2일 다뉴바에 신한부인회가 조직되자, 5월 18일 한인부인회 대표로 신한부인회 임원들과 8월 합동발기대회를 개최하고 대한여자애국단을 설립하였다.

1923년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 새크라멘토 지방 재무, 1924년 대한여자애국단 오클랜드지부 단장, 1927년 부인전도회(婦人傳道會) 회장, 1929년 대한인여자저금회 회장, 오클랜드지방회 재정부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1년 2월 조선여자대학 기부금 협찬 발기인, 10월 대한인국민회총회 오클랜드지방 선전부장으로 일본 상품 배척을 위한 선전비를 모집하였다. 이후 오클랜드지방회에서 1936년 대의원, 1938년 구제원, 1940년 집행위원장, 1941~1944년 대표원, 1945년 구제위원, 1939~1944년 대한여자애국단 오클랜드지부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점순(金点順)
생몰년도 : 1861. 4. 28 ~ 1941. 4. 30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5)

서울 사람이다.

김상옥(金相玉) 의사의 어머니인 그는 김상옥 의사의 의열투쟁을 지원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19년 11월경 김상옥이 서울에서 암살단(暗殺團)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피체되자 인쇄용 등사판을 파괴하여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1921년 김상옥이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을 위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할 때 일경에 탐지되자 김상옥을 피신시키고 대신에 전가족과 함께 구금되어 고초를 치렀다.

1923년에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투탄의거를 결행할 때 거사에 필요한 권총을 은닉해 주고 또한 무기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거를 지원하였다. 당시 김상옥은 의거에 필요한 폭탄을 어머니 김점순으로부터 건네 받아 의거를 결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고초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정숙(金貞淑) 생몰년도 : 1916. 1. 25 ~ 2012. 7. 4 포상훈격 : 애국장(1990)
------	--

평남 용강(龍岡) 사람이다.

1919년 부친 김봉준(金朋濬 : 임정 의정원 의장 역임)을 찾아 모친과 같이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1937년 7월 광둥(廣東) 중산(中山)대학 재학 중 학생전시복무단을 조직하고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1938년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였으며, 1940년 6월 17일에는 중경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하여 상임위원 겸 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9월 17일 광복군이 창립되자 여군으로 입대하여 대적심리공작을 수행하였다.

1942년 4월 임시정부 교통부 비서, 1943년에는 의정원 비서, 1944년 6월에는 법무부 비서 겸 총무과장에 임명되었다.

1945년에 심리작전 부문을 중요시하게 된 광복군 총사령부가 작전처내에 심리작전 연구실을 신설하게 되자 여기에 파견되어 보좌관으로서 한국어를 전담하여 전단작성, 전략방송, 원고작성 등 각종 심리작전을 수행하였다.

1945년 11월까지 임시정부 국무위원의 주화대표단 비서처 비서로 활동하다가 귀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김정옥(金貞玉)
생몰년도 : 1920. 5. 2 ~ 1997. 6. 7
포상훈격 : 애족장(1995)

서울 사람이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重慶)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총사령부(韓國光復軍總司令部)는 임시로 광복군을 4개 지대(支隊)로 편성하고 각 지대 내에 3개 구대(區隊)를 두고, 다시 각 구대 내에 3개 분대(分隊)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복군의 부대 편성은 부대원의 다수 부족으로 1942년 4월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함에 따라 겨우 2개 지대로 편성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광복군총사령부가 1942년 2월 김학규(金學奎)를 산둥성(山東省)으로 특파하여 일본군으로 강제 징집당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모공작(招募工作)을 전개하도록 하자, 김학규는 양자강 이남의 안휘성(安徽省) 부양(阜陽)에 머물면서 3년 남짓 초모활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3월 중국 북경(北京)에서 광복군 제3지대원 목연욱(睦然旭)을 도와 적지구공작대(敵地區工作隊) 연락원으로 활동한 그는 동년 6월 김학규가 이끄는 중국 부양의 광복군에 입대하여 제3지대 제1구대 본부 구호대원(救護隊員)으로 조국독립 투쟁을 위해 적극 활동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김조이(金祚伊)
생몰년도 : 1904. 7. 5 ~ 미상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8)

김조이는 1922년 1월 창원에서 계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 고학을 하던 중 여자고학생상조회(女子苦學生相助會)에 가입해 1926년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1월 21일 서울에서 허정숙(許貞淑)·주세죽(朱世竹)·김필순(金弼順)·정봉(鄭烽)·배혁수(裴赫手)·박정덕(朴貞德) 등과 함께 사회주의 여자청년단체인 경성여자청년동맹(京城女子青年同盟)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종로구 낙원동에 사무실을 연 경성여자청년동맹은 여성해방 서적 연구·토론, 여성노동자 위안 음악회 개최 등의 사업을 펼쳤고, 무산아동학원 설립, 여성을 위한 문고 설치, 학술강좌 개최 등을 계획하였다. 동년 2월 김조이는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준비위원에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4월, '적기(赤旗) 시위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기도 하였다.

'적기시위사건'이란 '4·21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가 경찰의 불허로 무산되자 300여 명의 대표들이 종로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건이었다.

1925년 4월경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 후보로 활동했으며, 11월경 고려공산청년회 추천으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였다.

1930년 '조선공산당재조직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되었으나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1931년 9월 하순 김조이는 코민테른(국제공산당) 동양부의 지시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 김복만과 함께 귀국, 함흥을 중심으로 '조선노동좌익재결성'을 주도하다가 1932년 8월 일명 '제2태평양 노사사건'의 주동인물로 지목되어 함흥경찰서에 검거되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함남공청사건'이라고 불렀다.

김조이는 이 사건으로 2년간 구금되었다가 기소되어 1934년 12월 1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 100일 통산)을 선고받았다. 함흥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됐고, 1937년 9월 20일 출소하였다.

해방 후 1945년 11월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에 인천대표로 참석했고, 12월 조선부녀총동맹에 가입하였다.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 부녀총동맹 대의원으로 참석하여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고, 7월 중순경 서울에서 강제 납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종진(金鍾振)
생몰년도 : 1903. 1. 13 ~ 1962. 3. 11
포상훈격 : 애족장(2001)

평안북도 강계(江界)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운동과 같은 해 11월 28일의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종진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여기에 참여하여 시가(市街)를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리고 그 해 3월말에 대동단(大同團)이 조직되자 여기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대동단은 전 조선민족의 대단결을 표방하고,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1919년 3월 말 대동단 결성을 주도한 전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은 그 해 10월 초순경 대동단의 본부를 상해(上海)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의친왕(義親王)의 상해(上海) 망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3·1 독립운동과 같은 대대적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거사 내용과 방법도 3·1 독립운동의 방식을 좇아 진행시켰다.

이때 김종진은 자신의 숙소를 거사 논의 장소로 제공하고, 대동단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거사를 준비하던 중 의친왕(義親王)의 상해 망명계획이 일본 경찰에 사전 탐지되고, 그 해 11월 11일 만주 안동역(安東驛)에서 의친왕 일행이 피체됨으로써 대동단의 조직은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경찰의 포위망을 피한 김종진은 나머지 인사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강행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11월 28일 김종진을 비롯한 정규식(鄭奎植)·박정선·나창헌(羅昌憲) 등은 종로 안국동(安國洞) 경찰관주재소 앞 광장에서 미리 준비해 온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살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체포된 김종진은 1920년 12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처벌령 및 출판법,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1년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죽산(金竹山)
생몰년도 : 1891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3)

1919년부터 1920년까지 중국 봉천성 안도현에서 다수의 물품과 금전 등을 독립운동단체에 지원하였다.
1919년 당시 중국 봉천성(奉天省) 안도현(安圖縣) 내도산(內島山)에 거주하는 29세의 여성으로 3·1운동 이후 물품과 금전을 끊임없이 지원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독립군의 출동 소식을 접하고 관첩(官帖) 300적(吊)을 독립군에 기부하였다.
이후 1920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독립운동 지원사업에 일신을 희생할 것을 맹세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치현(金致鉉)
생몰년도 : 1897. 10. 10 ~ 1942. 10. 9
포상훈격 : 애족장(2002)

황해도 봉산(鳳山) 사람이다.

1920년 황해도 국내비밀결사였던 독립단결사대에서 활동했다. 3·1 운동 이후 국내에서 많은 비밀결사들이 조직되었으며 이러한 국내비밀결사들은 상해임시정부와의 밀접한 관련속에서 활동하였다.

비밀결사들은 임시정부의 특파원이나 선전대원들이 국내에 잠입해 조직한 단체들이 많았으며 국내에서 조직된 단체라 하더라도 임시정부에 단원을 파견해 임시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활동하는 특징을 보였다. 당시 황해도에도 많은 비밀결사들이 조직되어 활동했는데 독립단 결사대는 1920년 6월 황해도 사리원에서 조직되었다.

독립청년단으로도 알려진 독립단결사대는 손재흥·이정률·김청풍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결사였다 김치현은 독립단결사대에 가입하고 김청풍 등과 함께 독립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독립신문'과 '신한청년' 등을 황해도 일대에 배포하였다. 또한 '독립신문' 4천매, '신한청년' 40부를 경성으로 비밀리에 가지고 가 정의도·이원식 등에게 교부하는 등 독립단결사대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 활동으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죄처벌령(政治犯罪處罰令)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태복(金泰福)
생몰년도 : 1886 ~ 1933. 11. 24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0)

김태복은 1919년 11월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 경성부 동대문 부인병원(婦人病院) 대표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국으로 송치되었으며, 12월 16일 동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1920년 평양부 기흥병원(紀筊病院) 간호부로 근무 하던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파원 김석황(金錫璜)의 권유로 의용단(義勇團)에 가입하고 평양지단(平壤支團)을 조직하여 동지규합에 노력하다 체포되었다.

1922년 1월 26일 기흥병원에서 수간호부로 재직하던 중 부인적십자단(婦人赤十字團)에 연루되어 강서경찰서에 체포된 뒤 6일 동안 취조를 받았다.

그 후 김태복은 1925년 6월 대동군 기림리(箕林里) 예수교청년회의에서 등사 출판한 '기림리예수교통신'이라는 잡지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동회원 10여 명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당일로 석방되었으며, 1929년 7월 10일 근우회(槿友會) 평양지회 집행위원회에서 선전조직부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김태복은 일찍 해외에 망명한 남편과 헤어지고 슬하에 하나뿐인 딸을 데리고 경성부 동대문 부인병원과 평양기독교연합병원의 간호부로 10수년 근무하다가 의생면허를 얻어 대동군 기림리에서 태성의원(泰成醫院)을 경영하면서 근우회 평양지회와 신간회(新幹會) 평양지회, 예수교청년회, 평양고아원(平壤孤兒院) 등 사회단체와 기관에 투신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필수(金必壽)
생몰년도 : 1905. 4. 21 ~ 1972. 11. 23
포상훈격 : 애족장(2010)

김필수는 1926년 12월 5일 서울 낙원동에서 여성들의 대중적 교양과 조직적 훈련을 목적으로 중앙여자청년동맹(中央女子靑年同盟)을 조직하였다. 같은 해 조선공산주의청년회(朝鮮共產主義靑年會)에 가입하여 독서회와 웅변모임 등을 조직하였으며, 이 모임을 통해 청년 특히 여성 청년들에게 항일민족독립에 관한 선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28년 3월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학생부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동년 7월 근우회(槿友會) 중앙집행위원(中央執行委員)으로 선출되었다.

1928년 10월 러시아로 건너가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여 수학하였다. 1932년 5월 대학 졸업 후 모스크바 교외에 있는 우제르나 휴양소에서 국제노동운동에 대한 문제와 지하공작에 관계되는 기술과 지식을 배웠다.

그해 9월 국제직업동맹 중앙본부로부터 조선의 함흥과 흥남지구에서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라는 비밀임무를 맡고 1933년 5월부터 함경남도 흥남(興南), 함흥(咸興), 원산(元山) 등을 중심으로 태평양노동조합운동과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 전개하였다.

김필수는 1935년 봄 흥남경찰서에 체포되어 1936년 3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고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해중월(金海中月)
생몰년도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4월 1일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해중월은 1919년 4월 1일 황해도 해주에서 기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김월희(金月姬)·문월선(文月仙)·향희(馨姬) 문재민(文載敏)·채주(彩珠) 옥운경(玉雲瓊) 등과 함께 3월 하순부터 복풍원(福豊園) 청요리 집 뒤채를 빌려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거사일을 4월 1일로 정하고 이곳에서 호소문과 태극기를 만들었다.
4월 1일 오후 2시경 해주 종로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남문 밖 훈련장으로 행진하여 약 5분 동안 만세를 부르자, 사방에서 3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어 호응하였다. 이들은 다시 동문으로 돌아와 종로에서 연설을 하고 격려문을 낭독한 뒤, 다시 서문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의 탄압으로 흩어졌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김해중월은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향화(金香花)
생몰년도 : 1897. 7. 16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9)

1919년 3월 29일 경기 수원군(水原郡) 자혜병원(慈惠病院) 앞에서 기생 3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수원의 기생조합(妓生組合) 출신인 김향화는 검진을 받기 위해 자혜병원으로 가던 중 동료들과 함께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또한 귀가할 때 역시 경찰서 앞에서 독립만세를 주도하여 의기(義妓)로서 기상을 높였다.

김향화는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현경(金賢敬)
생몰년도 : 1897. 6. 20 ~ 1986. 8. 15
포상훈격 : 건국포장(1998)

충남 공주(公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공주면(公州面) 공주시장(公州市場)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 12·15일 만세시위에 이어 4월 1일 공주 장날 영명학교(永明學校) 교사 김관회(金寬會)·이규상(李圭尙)과 학생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3월 31일 오후 3시경, 이들은 영명학교 기숙사에 모여 윤봉균(尹鳳均)이 경성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를 바탕으로 대한독립사상을 고취하고 시위운동을 선동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1,000매를 등사하였다.

4월 1일 오후 2시경 인쇄된 선언서와 태극기를 들고 공주시장으로 가서 군중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때 김현경은 이규상으로부터 태극기를 받고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 일로 일경에게 검거되어, 이해 8월 2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출옥 후 유관순(柳寬順)이 옥사 순국하자 아펜젤러 목사와 함께 형무소를 찾아가 유관순의 유해를 인수하여 학교장을 치르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화순(金華順)
생몰년도 : 1894. 9. 21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6)

1919년 3월 전남 광주군(光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간호사인 김화순은 3월 10일 광주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시위는 광주 지역 학교의 학생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군민이 함께 준비하였다. 오후 2시경이 되자 독립선언서 배포를 시작으로 부동교(不動橋) 아래 작은 장터에서 1,000여 명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양림동(楊林洞) 쪽에서는 기독교인과 송일학교(崇一學校)·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 학생들이 광주천(光州川)을 따라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였고, 북문 쪽에서는 광주농업학교(光州農業學校) 학생과 시민들이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만세시위는 오후 5시 무렵까지 계속되었는데, 시위 참가자 100여 명이 체포되면서 군중은 흩어졌다. 김화순도 이날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광주형무소(光州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김화용(金花容)
생몰년도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4월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4월 1일 황해도 해주에서 기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김월희(金月姬)·문월선(文月仙)·해중월(海中月) 김용성(金用性)·향희(馨姬) 문재민(文載敏)·채주(彩珠) 옥운경(玉雲瓊) 등과 3월 하순부터 북풍원(福豊園) 청요리 집 뒤채를 빌려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거사일을 4월 1일로 정하고 이곳에서 호소문과 태극기를 만들고, 동료 기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4월 1일 오후 2시경 김월희를 선두로 종로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김화용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기생들이 남문 밖 훈련장으로 행진하여 약 5분 동안 만세를 부르자, 사방에서 3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어 호응하였다. 이들은 다시 동문으로 돌아와서 종로에서 연설을 하고 격려문을 낭독한 뒤, 다시 서문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의 탄압으로 흩어졌다.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김화용은 경찰에게 붙잡혀 해주감옥에서 6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김효숙(金孝淑) 생몰년도 : 1915. 2. 11 ~ 미상 포상훈격 : 애국장(1990)
------	--

평남 용강(龍岡) 사람이다.

1919년 부친 김봉준(金朋濬)을 따라 모친(盧英哉)과 오빠(金德穆), 동생(金貞淑) 등 가족전원이 상해로 망명하였다.

1936년 광둥(廣東)의 중산(中山)대학을 졸업하고 동생 김정숙 등과 함께 중산대학 학생전시복무단을 조직하고 선전공작에 참가하였으며 1937년 중일전이 일어나자 남경(南京)으로 옮겨가 남기가(藍棋街)에서 한글교사로 근무하였다.

1938년에는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 가입하여 대일선무공작(對日宣撫工作)에 참가하였으며, 1939년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여 한국혁명여성동맹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한편 장사, 사천, 중경 등지에서 교포아동교육을 담당하였다.

1940년에는 한국혁명여성동맹 부회장에, 그리고 1941년 10월에는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피선되어 활약하였다.

1944년에는 민족혁명당의 감찰위원이 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광복군 제2지대에 종군하여 대일 심리전 활동을 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김효순(金孝順)
생몰년도 : 1902. 7. 23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12월 서울 종묘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이던 김효순은 1919년 12월 2일 훈정동(薰井洞) 대묘(大廟)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 간호사 노순경(盧順敬)·박덕혜(朴德蕙)·이도신(李道信)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저녁 7시경 김효순은 붉은 글씨로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휘저으며, 시위 군중 20여 명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 뒤 1929년 근우회(勤友會) 재령지회(載寧支會) 집행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나은주(羅恩周)
생몰년도 : 1890. 2. 17 ~ 1978. 1. 4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황해도 금천(金川) 사람이다.

1919년 4월 2·3일에 걸쳐 현내면 송정리(縣內面松亭里) 일대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3월 2일 오후 1시경, 그의 고향으로 시위행진 해 온 80여명의 백마면(白馬面)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이때 출동한 일본 헌병대에 의해 강제 해산되고, 30여명의 시위군중이 체포되었다. 이에 그는 이튿날 오후 2시경, 3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전날 체포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하여 헌병주재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미 그들이 금천읍의 헌병분견대로 이송되었음을 알고 해산하였다. 그후 일본 헌병의 주동자 검거 때 체포되었으며, 이해 8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남자현(南慈賢)
생몰년도 : 1872. 12. 7 ~ 1933. 8. 22
포상훈격 : 대통령장(1962)

경북 영양(英陽) 사람이다.

19세때 영양군 석보면(石保面) 김영주(金永周)에게 출가하였다. 출가한지 6년후인 1895년에 부군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니 그녀는 삼대독자인 유복자를 기르며 시부모를 봉양(奉養)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동년 3월 9일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 참가하여 활약하는 한편 각 독립운동 단체와 군사기관 및 농촌등을 순회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동만(東滿)일대 12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10여 곳에 여자교육회(女子教育會)를 설립하여 여성계몽과 해방운동에 성심을 다하였다. 또한 남만(南滿)각지를 순회하면서 동지들간의 불화를 화해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에도 힘을 다하였다.

1925년에는 채 찬(蔡燦 : 白狂雲)·이청산(李靑山) 등과 함께 일제총독 재등실(齋藤實)을 암살하기로 결의하고 서울 혜화동 28번지 고(高)씨댁에 근거를 두고 거사를 계획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삼엄한 경계망을 돌파하고 만주로 돌아갔다. 마침 그때 길림주민회장(吉林住民會長) 이규동(李圭東), 의성단장(義成團長) 편강열(片康烈), 양기탁(梁起鐸)·손일민(孫一民) 등이 주동이 되어 재만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을 발기하자 그녀는 이에 적극 참가하여 통합에 큰 공헌을 하였다.

1928년에는 길림에서 김동삼(金東三)·안창호(安昌浩)와 47인이 중국경찰에 잡히게 되자 감옥까지 따라가서 지성으로 옥바라지를 하였으며 그 석방에 노력하였다.

1931년 10월에 김동삼이 「하얼빈」에서 체포되자 김동삼의 친척을 가장하고 일본영사관에서 여러 동지에게 중요한 연락을 취하고 김동삼이 국내로 호송될 때 탈환을 계획하였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1932년 9월에는 국제연맹 조사단 「릿톤」경이 「하얼빈」에 조사를 왔을 때 왼손 무명지 두마디를 잘라서 흰수건에 「韓國獨立願」이란 혈서를 써서 자른 손가락을 싸가지고 조사단에게 보내어 우리의 독립정신을 국제연맹에 호소하였다.

1933년에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무등신의(武藤信義)를 격살(擊殺)할 것을 계획하고 만주 건국일인 3월 1일을 기다렸다. 그녀는 동지와의 연락 및 무기운반 차 「하얼빈」에 가서 2월 27일 중국결인 노파로 변장하고 무기와 폭탄을 운반하다가 「하얼빈」교외 정양가(正陽街)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일본영사관에 구금되어 여섯달동안 혹형을 받아오다가 그해 8월부터 단식항쟁을 시작하였다. 그후 15일만에 사경에 이르자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라는 말을 남기고 1933년 8월 22일 순국하여 「하얼빈」 남강(南崗) 외국인묘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남협협(南俠俠)
생몰년도 : 1912 ~ 미상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3)

1928년 11월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에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光州女子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비밀결사 소녀회(少女會)에 가입하였으며, 1930년 1월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1928년 11월 초순경 전라남도 광주군에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장매성(張梅性)의 발의에 따라 동교생들로 동지를 규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광주읍내 공립사범학교(公立師範學校) 부근에서 남협협·박옥련(朴玉連) 등 6명이 모여, 여성을 남성의 압박으로부터, 또한 무산대중을 자본계급의 압박으로부터 각각 해방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할 것에 찬동하고 소녀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인(同人)들을 회원으로 삼아 매월 한 차례 회합하여 우선 사회모순을 연구할 것을 협의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났을 때 소년회 회원들은 광주역전에서 봉대와 도포약을 가지고 뛰어들어 부상 학생을 구원하였다.

1930년 1월 15일 학생비밀결사가 일본 경찰에 노출되어 남협협 등 12명이 광주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30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명 : 노순경(盧順敬)
생몰년도 : 1902. 11. 10 ~ 1979. 3. 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5)

황해도 송화(松禾) 사람이다.

1919년 12월 2일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훈정동 대묘(大廟)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독립운동가 노백린(盧伯麟) 장군의 차녀로 평소부터 독립을 염원하면서 항일의식을 길러 왔다.

3·1운동 이후 그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재차 만세운동의 기회를 기다리던 중, 12월 2일에 2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태극기를 제작하여 일제 총독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독립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그는 만세현장에서 피체되었으며,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노영재(盧英哉)
생몰년도 : 1895. 7. 10 ~ 1991. 11. 10
포상훈격 : 애국장(1990)

평남 용강(龍岡) 사람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장을 지낸 애국지사 김봉준(金朋濬)의 부인으로 1921년 6월 중국 상해(上海)에서 밀파된 안내원을 따라 전 가족이 인천항에서 어선을 타고 상해로 망명할 때 당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회장인 김마리아가 일경에 피체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정신이상 상태인 것을 동반하여 상해까지 수행하였다. 이후 8·15광복에 이르기 까지 25년간을 임시정부를 따라 중국 각지를 전전하며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임시정부 요인들과 독립투사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뒷바라지에 힘썼다. 또한 1941년 6월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의 결성에 참여하였고 1944년 3월에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노예달(盧禮達)
생몰년도 : 1900. 10. 12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4)

1919년 3월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식과 함께 만세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자, 이화학당 고등과 2학년 노예달도 학교 기숙사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어 3월 5일 남대문역 앞 광장에서 강기덕(康基德)·김원벽(金元璧) 등 학생들이 주도하는 만세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아침 9시쯤 남대문 역에 이른 노예달은 '독립기(獨立旗)'를 인쇄하고, 붉은 천을 휘두르며 10,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앞에서 만세를 이끌던 강기덕, 김원벽이 붙잡혔지만, 시위대는 종로 보신각 앞까지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이어갔다. 노예달도 군중과 함께 종로까지 행진하며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동풍신(董豊信)
생몰년도 : 1904 ~ 1921
포상훈격 : 애국장(1991)

함경북도 명천(明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의 하가면 화대동(下加面花臺洞)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곳에서는 3월 14일 함경북도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중 최대 인파인 5천여명의 시위군중이 화대헌병분견소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헌병의 무차별 사격으로 5명이 현장에서 순국한 곳이다. 이러한 만행사실을 들은 주민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는데, 이때 박승룡(朴承龍)·김성련(金成鍊)·허영준(許英俊)·김하용(金夏鏞) 등이 주동이 되어, 다시 대규모의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3월 15일 다시 5천여명의 시위군중이 화대장터에 모였는데, 이때 그는 오랜 병상에 누어있던 그녀의 아버지 동민수(董敏秀)는 전날의 시위 때 일제의 흉탄에 동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을 각오하고, 새옷으로 갈아 입은 후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 이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면사무소와 헌병분견소에서 만세시위를 벌이던 중, 길주(吉州) 헌병대에서 지원나온 제27연대 소속 기마헌병과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현장으로 달려와 아버지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슬픔을 딛고 결연히 일어나 독립만세를 외치자 헌병의 발포로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던 시위군중은 크게 감동하여 그녀와 함께 다시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면사무소로 달려가 사무실과 면장집·회계원집을 불태워 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일본 헌병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악랄한 일본 고문으로도 그녀의 기개를 꺾지 못하자 경찰은 화대동 출신의 화류계 여성을 그녀와 같은 감방에 수감하여 그녀의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몇 번을 기절하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사람들은 남에는 유관순, 북에는 동풍신이라 칭송하며, 그녀의 애국정신을 찬양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두권혜이(杜君慧)

생몰년도 : 1904 ~ 1981

포상훈격 : 애족장(2016)

1943년 2월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외무부(外務部) 부원(部員) 등으로 활동하였고, 1945년 5월 한국구제총회(韓國救濟總會) 이사를 역임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독립(獨立)』에 한중 연합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29년 김성숙(金星淑)과 결혼한 이래 한중우호와 항일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약하였다.

1935년 12월 12일에는 김성숙 등과 함께 「상해문화계구국운동선언(上海文化界救國運動宣言)」을 발표하였고, 상해여성구국회에도 가입하여 중국 여성계의 항일구국운동에도 참여하였다.

1942년 10월 중국 중경(重慶)에서 설립된 한중문화협회(韓中文化協會)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43년 2월 3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회의(國務會議)에서 외무부 부원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4월 2일에는 외무부 과원(科員)으로 임명되었다.

1943년 9월 28일까지 외무부 정보과(情報科) 과원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5월부터는 안정근(安定根)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구제총회의 이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45년 7월 11일 미주에서 발행되었던 신문 『독립』에 「해외 조선부녀 동포들에게 - 혁명자 후원 사업을 하자」라는 글을 통해 조선 해방을 위한 혁명자 후원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렇듯 조선인 항일독립 운동가들과 교류하며 한중 우호를 다지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문복금(文卜今)
생몰년도 : 1907. 12. 13 ~ 1937. 5. 22
포상훈격 : 건국포장(1993)

전남 해남(海南) 사람이다.

목포 정명(貞明)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1년 11월 14일, 다른 학우들 및 영흥(永興)학교 학생들 그리고 일반 청년들과 함께 태극기를 다량으로 만들어 독립만세 시위를 하였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 후 1921년 12월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922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문응순(文應淳)
생몰년도 : 1900. 12. 4 ~ 미상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0)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기생들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2월 말, 문응순(예명 月仙)은 김성일(金聖日, 예명 月姬)과 함께 고종의 인산(因山)을 봉도하기 위해 상경하여 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고종의 인산을 배관하고 해주로 돌아왔다.

3월 10일 해주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수수방관할 수 없었던 문응순은 3월 하순, 김성일, 김용성(金用性, 海中月), 문재민(文載敏, 예명 馨姬), 옥운경(玉雲瓊, 예명 彩珠) 등과 거사를 논의한 후 4월 1일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김성일과 문응순이 직접 한글로 독립선언서를 지어 5천장을 인쇄하는 한편, 태극기를 손수 제작하여 준비를 마쳤다.

4월 1일 오후 2시경 문응순을 비롯한 해주 기생들은 남문 쪽을 향해 나가며 태극기를 흔들고 전단을 뿌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소식을 듣고 동료 기생들을 비롯한 군중들이 모여들어 행렬은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 행렬은 재판소를 거쳐 동문으로 들어와 다시 종로로 향하였다. 이때 출동한 일제 경찰에 의해 문응순 등 주동자 5명은 잡혀 종로경찰서로 끌려갔다. 이들은 종로경찰서 앞에 이르자, 돌을 집어 유리창을 부수는 한편, 다시 만세를 부르는 의기를 보였다. 경찰서에서 이들은 심한 악형으로 온 몸이 멍이 들고,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문응순은 1919년 6월 26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1919년 12월 28일 출감할 때까지 약 9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문재민(文載敏)
생몰년도 : 1903. 7. 14 ~ 1925. 12
포상훈격 : 애족장(1998)

황해도 해주(海州)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해주읍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기생이었던 문재민은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동료 기생들을 동지로 규합하여 만세시위를 추진하였다.

3·1운동은 남녀노소·직업의 귀천을 불문하고 전민족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지만, 특히 기생들의 참여는 3·1운동의 의미를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이었다. 문재민은 동료 기생들과 함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그린 태극기를 들고 해주 종로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종로를 출발하여 남문으로 행진해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시위군중이 동문으로 나갈 때는 군중의 수는 3,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다시 종로 큰 거리로 들어선 기생들은 일시 행진을 중지하고 독립연설을 하였다. 어떤 기생은 준비하였던 격려문을 들고 나와 고성 대독하기도 하였다. 당시 해주 기생 중에는 서화에도 능숙한 기생조합장 문월선(文月仙)을 비롯한 학식있는 기생들이 많았다. 그들의 이러한 독립연설과 격려문 낭독은 군중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기생들은 종로에서 다시 서문 밖으로 행진을 계속하던 중, 헌병과 경찰에 의해 강압적인 해산을 당했으며, 이들 중 문재민을 비롯한 기생 7명이 구속되었다. 이해 6월 26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명 : 미네르바 루이즈 구타펠(Minerva Louise Guthapfel)
생몰년도 : 1873 ~ 1942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5)

1919~1920년 미국 시카고에서 한국친우회 서기로 활동하며 미국 의회와 정부에 한국 독립 문제를 청원하고 친한 여론 형성을 위해 순회 강연활동을 하였다.

성 명 : 민영숙(閔泳淑)
생몰년도 : 1920. 12. 27 ~ 1989. 3. 17
포상훈격 : 애국장(1990)

서울 종로 사람이다.

1927년 두 오빠(閔泳玖, 閔泳琬)와 함께 상해로 건너가 인성학교 등을 다녔다.

1942년 2월 중국 사천성(四川省) 중경(重慶)에서 임시정부의 법무부 직원에 임명되어 근무하였으며, 1944년 4월에는 임시정부 법무부 총무과에서 근무하였다.

동년 6월 1일 임시정부 외무부의 정보과원에 전보되어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1944년 7월에는 회계검사원 조리원(助理員)의 직을 맡아 일하는 한편, 대적 방송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민영주(閔泳珠)
생몰년도 : 1923. 8. 15 ~ 생존
포상훈격 : 애국장(1990)

서울 종로(鍾路) 사람으로 상해에서 민필호(閔弼鎬)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는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창설되었을 때 광복군에 입대하였다.
1942년 1월에는 한국임시정부 내무부 부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며, 중경방송국(重慶放送局)을 통한 심리작전 요원으로 활동하였다.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였으며, 임시정부 주석판공실 서기로 파견 근무하기도 하였다.
1945년 4월에 광복군 제2지대에 편입되어 복무하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받았으며, 역시 광복군이던 김준엽(金俊燁)의 부인이다.

성 명 : 민옥금(閔玉錦)
생몰년도 : 1905. 9. 5 ~ 1988. 12. 25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충남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경 충남 천안군(天安郡) 입장면(笠場面) 양대리(良垞里)에 소재한 사립광명여학교(私立光明女學校)에 재학 중 학우인 한이순(韓二順)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태극기를 준비하여 3월 20일 10시경 동교학생 80여명을 규합하여 양대리 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고, 이어 입장면 장터로 진출하여 장터에 모인 300여 명의 군중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하다가 피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1919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아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7일 가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박계남(朴繼男)
생몰년도 : 1910. 4.25 ~ 1980. 4. 27
포상훈격 : 건국포장(1993)

광주(光州) 사람이다.

광주(光州)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9년 5월 비밀결사 소녀회(少女會)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소녀회는 1928년 11월에 당시 광주 지역 학생비밀결사운동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장재성(張載性)의 실매(實妹) 장매성(張梅性)의 주도로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취지로 하여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1929년 11월 3일 조선인 여학생에 대한 일본인 학생의 희롱이 발단이 되어 광주에서 대대적인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였으며, 시위항쟁의 주동학생들이 피체 구속되자 이에 항의하여 시험을 거부하고 백지동맹(白紙同盟)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1930년 1월 15일 다른 주동 여학생 11명과 함께 피체되어, 동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기까지 9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금녀(朴金女)
생몰년도 : 1926. 10. 21 ~ 1992. 7. 28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기도 의정부(議政府) 사람이다.

광복군 제3지대 1구대 본부 구호대(救護隊)에 입대하여 활동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박기은(朴基恩)
생몰년도 : 1925. 6. 15 ~ 2017. 1. 7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북 선천(宣川) 여성이다.

광복군 제3지대 제1구대본부 구호반에 입대하여 구호분대원으로 광복시까지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박복술(朴福述)
생몰년도 : 1903. 08. 30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2)

이명 : 朴貞禧

1921년 11월 워싱턴회의에 조선독립문제 상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목포부(木浦府) 시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1월 전라남도 목포부 양동(陽洞)의 정명여자학교(貞明女學校)에 재학 중, 동교생들과 함께 <동아일보> 등 기타 신문을 통하여 워싱턴회의가 개최됨을 알고, "조선민족대표자도 반드시 이 회의에 참열(參列)하여 조선의 독립문제를 제출하고 그것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모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개시한다면 일반 조선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동(同) 회의에 참석하는 조선인 대표자에게 성원을 주며, 또한 일반 조선인의 독립 희망이 얼마나 절실한 지 각국 전권위원회에 알릴 수 있으므로 그들의 호응을 얻어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동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천귀례(千貴禮)·곽희주(郭喜主)·김나열(金羅烈)·박음전(朴陰田)·문복금(文卜今)·김연순(金蓮順)·이남순(李南順)·주유금(朱有今)·김옥실(金玉實)·김귀남(金貴南)·김자현(金慈賢) 등 동교생 12명과 동교 기숙사 내에 집합하여 위와 같은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그 방법으로 다음날인 14일 정오 오폭(午砲)을 신호로 삼아 각자 대한제국기(大韓帝國旗)를 휴대하고 교문을 나와 목포 시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동 13일 동 기숙사에서 함께 국기 수 십 매를 제작한 뒤, 14일 오전 수업 종료 후 학생과 교사 등이 휴식 중인 정오에 오폭을 신호로 20명 모두가 국기를 손에 들고 동교 정문을 나왔다. 이 가운데 11명은 각자 휴대한 국기를 휘두르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동교 정문으로부터 목포부 남교동(南橋洞)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를 본 수 명의 학생들은 동교 내에 떨어져 있는 국기를 주워서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남교동에서 동부 죽동(竹洞)을 거쳐 창평정(昌平町)·대정정(大正町)으로 행진하였다.

만세시위를 본 학생들은 동교 내에서 국기를 찾아 그것을 휴대하고 동교 뒷문을 나와 십 수명이 일단이 되어 각자 휴대한 국기를 흔들거나 혹은 손을 들어 모두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연호하면서 대성동(大成洞)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1922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10월(미결 통산 50일)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7월 23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성순(朴聖淳)
생몰년도 : 1901. 4. 12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6)

1919년 3월 전남 광주(光州) 시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에 재학 중 1919년 3월 10일 광주시장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수피아여학교·승일학교(崇一學校) 등 광주 지역 학생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전개하였다. 수피아여학교 학생의 참여는 교사 박애순(朴愛順)·진신애(陳信愛) 등이 맡았다. 이들의
인솔 아래 박성순은 양순희(梁順禧)·최경애(崔敬愛) 등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양림동(楊林洞) 쪽에서 광
주천을 따라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박성순은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
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광주형무소(光州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 같은 해 8월 1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순애(朴順愛)
생몰년도 : 1900. 2. 2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4)

1919년 전북 전주군(全州郡) 이동면(伊東面) 화산리(華山里)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학생들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순애는 서울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에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1919년 12월 28일과 30일 사립 기전여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기숙사에서 김공순(金恭順) 등 수 명을 만나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여, 1920년 1월 5일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다 체포되었다.
1920년 2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4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920년 징역 6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르다 같은 해 10월 14일 대구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승일(朴昇一)
생몰년도 : 1896. 09. 19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3)

이명 : 朴昇壹, 朴升日

1919년 6월 평안남도 평양(平壤)에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를 조직하여 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동년 11월 대한애국부인회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6월경 평안남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파(長老派)와 감리파(監理派)의 부인 신도들이 각기 자기 교파의 부인 신도들을 결속하여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부인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년 8월경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원인 김정목(金貞穆)·김순일(金淳一) 등의 권유에 의하여 두 교파의 부인 신도들이 서로 제휴·연합을 논의한 끝에 동년 11월 연합에 성공하여 명칭을 대한애국부인회라 하며, 평양에 연합회 본부를 두고 주요 지방에 지회를 두는 계통적 비밀 결사를 이루었다.

1919년 6월 박승일·최순덕(崔順德)·이성실(李聖實)·손진실(孫眞實)·황신덕(黃信德) 등이 평안남도 평양부 서대문 밖 백동엽(白東燦)의 집에 집합하여, 박승일이 감리교파 부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원조할 목적의 단체 결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동이 찬성하자 임원을 선정하였다. 동월 중순경 평양 남산현(南山峴) 교회의 유치원 내에서 다시 회합을 개최하였으며, 이어 7월 15일 남산현교회당의 방에서 회합하여 임원의 개선, 회비 금액의 개정, 활동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동년 8월 중순 같은 장소에서 회합하여 활동의 경과 및 장로파와의 연합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고 일동이 이에 찬성하였다.

동년 11월 양파 연합의 논의가 성립하자, 동월 상순경 박승일 등 양파 간부 각 6명이 평양부 신양리(新陽里) 김경희(金景喜)의 방에 모여, 한영신(韓永信)의 발기로 1919년 6월경 이겸양(李謙良)·김경선(金景善)·김보원(金寶源)·김경희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장로파 부인 단체인 애국부인회와 연합하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는 것을 주도하였다. 이 날 모임에서는 본부를 평양에, 지회를 각지에 둘 것, 본부의 임원은 양파가 공평하게 선임할 것, 이미 설치된 각파 부인회는 그대로 지회로 할 것, 각 지방의 각 파 부인 유지에게 권유하여 지회를 설립할 것, 일반으로부터 회비 이외의 군자금 모집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후 박승일은 평양의 기흥병원(紀笏病院) 내에 근무하면서 평양 감리파 지회장으로서, 1920년 4월경까지 수 차례 걸쳐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흥병원 등 기타장소에 모여 임원의 개선이며 회원의 모집, 회비의 징수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동년 5월 이래 각 지방의 부인 유지들에게 권유하여 지회를 조직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군자금 2400여 원을 회원 및 동지들로부터 모집하였다. 이 가운데 2107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원조하고, 나머지 돈 312원은 본회의 경비에 사용하였다.

1920년 10월 15일 송치되어 1921년 2월 24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 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6월 1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박신애(朴信愛)
생몰년도 : 1889. 6. 21 ~ 1979. 4. 27
포상훈격 : 애족장(1997)

황해도 봉산(鳳山) 사람이다.

미주 하와이에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0년대 말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부터 재정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편지를 받고 하와이 동포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자금모집에 앞장섰다.

당시 임시정부는 본국 뿐만 아니라 만주와의 연락이 모두 끊겨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미국 하와이의 애국부인회를 주도하던 그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국 독립의 기회로 포착하고 중국 관내지역에서 활동하던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등 중국 관내 독립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을 결성하였다. 이러한 광복진선에는 미주지역의 6개 단체들도 참가하였다. 이때 그도 애국부인회의 대표로 광복진선에 참가하였다.

광복진선은 중일전쟁을 한중 민족의 생사 존망이 걸린 최후의 관건으로 파악하고, 중국과 함께 항일전선에 참가할 것을 결의하는 등 한중연대를 강조하였다. 이렇듯 그는 미주에서 중국관내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독립운동자금을 수합하는 한편 한인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신원(朴信元)
생몰년도 : 1872 ~ 1946. 5. 21
포상훈격 : 건국포장(1997)

평북 선천(宣川) 사람이다.

만주에서 민족교육운동에 종사하였다.

평북 선천에서 독립단의 통신연락을 담당하면서,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내는 일, 평양감옥에서 탈출한 독립지사를 만주로 도피시키는 일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 말을 전후하여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요 독립군 부대들이 소련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대한독립단, 광복단, 광복군총영 등이 잔류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효과적인 대일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922년 8월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대한통의부가 분열되면서 통의부의 군사조직인 의용군은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제휴하여 1923년 8월,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의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로 재편성 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 박신원은 1924년 4월 중순 흥경(興京)에서 동지 27명과 함께 민족교육과 여성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여자교육회(女子教育會)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후 만주 관전현(寬甸縣)으로 망명하여 생활하던 중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불 속에 던져지는 등 고문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박애순(朴愛順)
생몰년도 : 1896. 12. 23 ~ 1969. 6. 12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전남 목포(木浦) 사람이다.

1919년 3월 9일 광주 수피아여학교(光州須彼亞女學校) 교사로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김복현(金福鉉)·김 강(金剛)으로부터 독립선언문 50여 통을 받아 다음날인 3월 10일 광주 장날의 독립만세 시위에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을 대거 참가시켰으며, 독립선언문을 시위군중에게 배포하며 활동하다가 피체되었다. 이에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연이(朴連伊)
생몰년도 : 1900. 2. 20 ~ 1945. 4. 7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3월 부산 좌천동(左川洞)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3일경 독립선언서가 부산에 전해지자 일신여학교 교사 주경애(朱敬愛)는 부산상업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뜻을 같이할 동료 교사를 모으고, 고등과 학생들에게 알려 거사를 독려했다. 이에 박연이와 김난줄(金蘭茁)·김응수(金應守)·송명진(宋明進) 등 고등과 학생 11명은 3월 10일 기숙사에서 태극기 50개를 만들었다.

3월 11일 이들은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교사 주경애·박시연(朴時淵)의 인솔 아래 독립만세를 부르며 기숙사 문을 뛰쳐나왔다. 여학생들이 좌천동 거리를 누비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군중 수백 명이 호응하였다.

박연이는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영숙(朴永淑)
생몰년도 : 1891. 7. 20 ~ 1965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7)

1919년 3월 미국 다뉴바에서 신한부인회 서기, 1919년부터 1924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 총부 위원, 1921년 다뉴바 국민대표회 회원, 1922년 대한여자애국단 다뉴바 총부 재무로 활동함.
1930년부터 1939년까지 대한인국민회 딜라노 지방회원, 1940년부터 1942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 딜라노 지부 재무, 1943년 同 지부 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함.

<사진>

성 명 : 박옥련(朴玉連)
생몰년도 : 1914. 12. 12 ~ 2004. 11. 21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광주(光州) 사람이다.

광주여고보 재학중 1928년 11월, 장매성(張梅性)·장경례(張慶禮)·남협협(南俠俠)·고순례(高順禮)·이금자(李錦子) 등과 함께 광주사범학교 뒷산에 모여 조국의 독립과 여성해방을 목적인 항일학생결사, 소녀회(少女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매월 1회 월례연구회를 통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한편 동회는 성진회(醒進會)의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광주학생의 항일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29년 6월에 결성된 독서회본부와도 연락을 갖고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동본부가 독서회원의 친목단결 및 재정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소비조합을 조직할 때 각학교 독서회 및 학생들로부터 자본금을 출자하게 했는데 이때 광주여고보에서는 소녀회가 주동이 되어 자본금 30원을 출자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소녀회가 앞장서서 가두시위도중 다친 부상학생을 치료하며, 식수공급, 돌맹이를 날라다 주는 남학생들의 가두시위를 도왔다. 그후 소녀회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30년 1월 15일에 피체되었으며,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형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박우말례(朴又末禮)
생몰년도 : 1902. 3. 13 ~ 1986. 12. 7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1)

전남 광주(光州)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나주(羅州) 출신 김복현(金福鉉)이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김강(金剛)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10일 오후 3시 30분경 광주시장에서 송일학교(崇一學校) 학생과 수피아(須比亞)여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0일 김복현 등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자, 수백명의 군중은 태극기를 흔들며 송일학교 학생과 수피아여학교 학생들과 합세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당시 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박우말례도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우말례는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박원경(朴源炅)
생몰년도 : 1901. 8. 19 ~ 1983. 8. 5
포상훈격 : 애족장(2008)

1919년 2월 28일 서울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가져온 후 이를 필사하여 황해도 재령군의 각지에 배포하였다.

3월 9일 재령군 재령읍 장날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이를 주도한 박원경은 시위 직후 체포되어 1919년 3월 31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월을 받고,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3월 6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박원희(朴元熙)
생몰년도 : 1898. 3. 10 ~ 1928. 1. 5
포상훈격 : 애족장(2000)

서울 사람이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철원보통학교의 교사로 3년간 재직하다 일본에 유학하였다. 귀국 후 여성운동에 뛰어들어 남편인 김사국(金思國)이 주도한 서울청년회계의 청년당대회(靑年黨大會)에 참여하였다. 1923년 김사국이 간도 용정(龍井)에 동양학원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항일선전문을 배포하고 폭탄으로 일제 기관의 파괴를 계획하자 이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으나 임신 중이었으므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귀국 후 1924년 5월 서울에서 여성동우회(女性同友會)를 창립하면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계몽운동에 투신하였다. 이어 1925년에는 경성여자청년회(京城女子靑年會)를 주도 조직하고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동회는 일요강습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 4월에는 중앙여자청년동맹(中央女子靑年同盟)의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청소년 남녀의 인신매매 금지, 만 18세 이하 남녀의 조혼폐지, 청소년 남녀직공의 8시간 이상 노동야업 폐지, 무산아동 및 산모의 무료요양소 설립'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927년 4월 당시의 여성운동가가 망라되어 신간회(新幹會)의 자매단체로서 근우회(槿友會)를 조직할 때 창립준비위원으로 참가하여 회원모집의 임무를 맡았으며 이후 교양부의 책임자로서 계몽강연에 힘쓰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의식 향상과 민중계몽에 힘쓰던 중 그는 병을 얻어 30세의 나이에 서거하였다. 그의 장례는 사회단체연합장으로 1,000여 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유복(朴有福)
생몰년도 : 1869. 9. 10 ~ 1919. 4. 1
포상훈격 : 애국장(1995)

그는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군 병천(竝川 ; 아우내) 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유관순(柳寬順)의 활약으로 유명한 병천의 만세시위는 병천뿐 아니라 수신면(修身面)과 성남면(城南面), 동면(東面) 등 인근 지역 3천여 명의 사람이 모여 대대적인 만세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병천의 만세시위는 각 면에서 조직적으로 군중을 동원하여 병천에서 합류하여 일제히 일으킨 것이었다. 이 때 박유복은 김상철(金相喆) 등 갈전면(葛田面 ; 병천면)의 20대 청년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당시 병천은 청주와 진천,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로로써 병천 시장은 천안의 각 면과 멀리 충북의 청주(淸州)-진천(鎭川)에서 까지 장꾼이 모이는 큰 장을 이루었다. 때문에 병천의 만세시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병천 장날인 4월 1일 오후 1시를 기해 일어났다.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일제는 군경을 동원하여 발포하면서 총검으로 마구 찌르는 등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시위군중 가운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격분한 시위군중은 전열을 가다듬어 주재소를 습격하고 면사무소와 우편소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일제에 대항하였다. 이 때 그는 독립만세를 절규하면서 시위하던 중 일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현장에서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음전(朴陰田)
생몰년도 : 1907. 04. 14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2)

이명 : 朴音全

1921년 11월 워싱턴회의에 조선독립문제 상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목포부(木浦府) 시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1월 전라남도 목포부(木浦府) 양동(陽洞)의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에 재학 중, 동교생들과 함께 동아일보 등 기타 신문을 통하여 워싱턴회의가 개최됨을 알고, 조선민족대표자도 반드시 이 회의에 참여(參列)하여 조선의 독립문제를 제출하고 그것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모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개시한다면 일반 조선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동(同) 회의에 참석하는 조선인 대표자에게 성원을 주며, 또한 일반 조선인의 독립 희망이 얼마나 절실한 지 각국 전권위원회에 알릴 수 있으므로 그들의 호응을 얻어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천귀례(千貴禮)·곽희주(郭喜主)·김나열(金羅烈)·이남순(李南順)·문복금(文卜今)·김연순(金蓮順)·이남순(李南順)·주유금(朱有今)·김옥실(金玉實)·김귀남(金貴南)·김자현(金慈賢) 등 동교생 12명과 동교 기숙사 내에 집합하여 위와 같은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그 방법으로 다음날인 14일 정오 오폭(午砲)을 신호로 삼아 각자 대한제국기(大韓帝國旗)를 휴대하고 교문을 나와 목포 시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동 13일 동 기숙사에서 함께 국기 수 십 매를 제작한 뒤, 14일 오전 수업 종료 후 학생과 교사 등이 휴식 중인 정오에 오폭을 신호로 20명 모두가 국기를 손에 들고 동교 정문을 나왔다. 이 가운데 11명은 각자 휴대한 국기를 휘두르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동교 정문으로부터 목포부 남교동(南橋洞)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를 본 수 명의 학생들은 동교 내에 떨어져 있는 국기를 주워서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남교동에서 동부 죽동(竹洞)을 거쳐 창평정(昌平町)·대정정(大正町)을 행진하였다.

만세시위를 본 학생들은 동교 내에서 국기를 찾아 그것을 휴대하고 동교 뒷문을 나와 십 수명이 일단이 되어 각자 휴대한 국기를 흔들거나 혹은 손을 들어 모두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연호하면서 대성동(大成洞)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1922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件)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 통산 50일)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7월 2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자선(朴慈善)
생몰년도 : 1880. 10. 27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0)

1920년 3.1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상인들의 철시를 주장하는 경고문을 대전,대구,마산 등지로 전달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이동욱(李東旭)은 1920년 2월 24일경 서울 원동(苑洞) 자택에서 장병준(張炳俊),박기영(朴琪永)과 함께 다가오는 3월 1일이 조선독립선언 제1주년 기념일이므로 동맹 휴교를 전개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26일경 동맹휴교와 상점 철시(撤市)를 권유하는 경고문을 인쇄하였다. 28일경 이동욱은 박자선의 집에서 그를 만나 충남 대전의 이길용(李吉用), 대구의 최일문(崔一文), 마산의 팽동주(彭東柱)의 집에 위 경고문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박자선은 위 경고문을 가지고 이길용과 팽동주에게 전달한 후 돌아왔다. 다만, 최일문은 만나지 못해 팽동주에게 부탁한 후 서울로 돌아왔다. 이 일로 체포된 박자선은 1920년 12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처벌령,출판법위반,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박자혜(朴慈惠)
생몰년도 : 1895. 12. 11 ~ 1943. 10. 16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기 고양(高陽) 사람이다.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의 부인이다. 그녀는 조선총독부 부속병원의 조산원(助産員)으로 근무하던 중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이필주(李弼柱)목사와 연락을 취하며 동 병원의 조산원과 간호원들로 조직된 간우회(看友會)의 회원들을 규합하여 비밀리에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또한 동년 3월 10일 간우회원들을 주도하여 독립만세시위운동을 폈다.

그녀는 동년 3월 동 병원에의 동료들과 김형익(金衡翼)등의 한국인 의사를 규합하고 시내 국·공립병원 직원들의 동조를 얻어 태업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1920년 동 병원에서 근무하던 김용채(金容採) 등 3명의 의사가 사직하자 그녀는 더 이상 일제를 위해 일할 수 없다는 각오 하에 병원을 그만두고 중국 길림성(吉林省)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신채호와 결혼한 그녀는 이후 남편을 따라 각지를 전전하면서 온갖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1924년 신채호가 일경에 피체되어 대련(大連)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게 되자 그녀는 북경(北京)·천진(天津) 등지의 독립운동가와 국내인사들과의 연락임무를 띠고 귀국하였다.

1926년 12월 나석주(羅錫疇) 의사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의거 당시 사전에 위치·지리를 안내하는 등 독립지사들간의 연락과 편의제공에 힘을 쏟았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면서 그녀는 일경의 끊임없는 감시 속에 수없이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그녀는 신채호가 여순(旅順) 감옥에서 순국한 후 병을 얻어 1944년 10월 10일 영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재복(朴在福)
생몰년도 : 1918. 1. 28 ~ 1998. 7. 18
포상훈격 : 애족장(2006)

박재복은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군시제사주식회사(郡是製絲株式會社) 대전공장에서 일을 하며, 동료들에게 반일적인 말을 수 차례 하는 등의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군시 공장은 일본 대재벌 미쓰이[三井] 계열의 회사로서 식민수탈이 가혹했던 곳으로, 1929년 4월과 1932년 11월에 동맹파업이 일어났던 곳이었다.
1938년 10월 박재복은 대전 군시 공장의 여공으로 근무하면서 동료들에게 “일본은 현재 (중일)전쟁에 승리하고 있지만 돈이 적기 때문에 불리하며, 지나(支那)·러시아는 돈이 많고 또 자동차, 비행기도 일본에 비해 많기 때문에 장기간에 이르면 물자가 부족하여 일본은 패전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11월에도 이들에게 중일전쟁에 일본이 패전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1939년 3월에도 직장 동료들에게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해 박재복은 중일전쟁에 관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한 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1년 10월 2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육군 형법 위반으로 금고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정선(朴貞善)
생몰년도 : 1874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07)

대동단(大同團)의 일원으로 이른바 제2차 독립선언 계획에 따라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박정선은 1919년 대동단에 가입하였다.

3.1운동의 토양 위에서 조직된 대동단은 전민족의 대동단결을 표방하며 한국 독립을 주창하였다.

대동단은 비밀결사로서 󰡔대동신보(大同新報)󰡕를 발행, 배포하는 등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조직을 중국 상해(上海)로 옮기고, 의친왕(義親王) 이강(李堉)의 상해 망명을 추진하였으나 일제에 탐지되어 좌절되었다. 이후 대동단은 제2차 독립선언계획을 통해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성과 3.1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일제의 야만성을 힐책(詰責)하고 한국 독립을 주창했다.

1919년 11월 28일 박정선은 서울 안국동 광장 등지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짖던 중 일경에 붙잡혀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정수(朴貞守)
생몰년도 : 1901. 3. 8.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3월 부산 좌천동(左川洞)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3일경 독립선언서가 부산에 전해지자 일신여학교 교사 주경애(朱敬愛)는 부산상업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는 한편, 동료 교사와 고등과 학생들에게 알려 거사를 독려했다.

박정수는 김난줄(金蘭茁)·김응수(金應守)·송명진(宋明進) 등 고등과 학생 10명과 함께 기숙사에서 태극기 50개를 만들었다.

3월 31일 박정수는 교사 주경애·박시연(朴時淵)의 인솔 아래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기숙사 문을 뛰쳐나왔다. 여학생들이 좌천동 거리를 누비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군중 수백 명이 호응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박정수는 1919년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박차정(朴次貞)
생몰년도 : 1910. 5. 7 ~ 1944. 5. 27
포상훈격 : 독립장(1995)

부산(釜山) 사람이다.

1924년 5월 조선소년동맹(朝鮮少年同盟) 동래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동래(東萊) 일신(日新)여학교에 재학 중 조선청년동맹(朝鮮青年同盟) 동래지부 집행위원장인 숙부 박일형(朴日馨)의 권유로 조선청년동맹 및 근우회(槿友會) 동래지부 회원, 동래노동조합 조합원, 신간회 동래지회 회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9년 3월 일신학교를 졸업한 뒤 동년 7월 서울 수운회관(水雲會館)에서 개최된 근우회 제2회 전국대회에 동래지부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동년 9월에는 조사연구부장·상무위원·선전 및 출판부장 등의 직책을 맡아 여성들의 민족운동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근우회 중앙간부들과 함께 서울 시내 각 여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를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반일학생운동으로 확산시키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 후 1930년 1월 부산방직(釜山紡織) 파업사건을 주도하다가 동래에서 피체된 그녀는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나 병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출옥 후 1930년 2월 중국 북경으로 망명한 그녀는 1931년 의열단장(義烈團長) 김원봉(金元鳳)을 만나 결혼하고 의열단 단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32년 의열단이 한중연합 항일투쟁의 일환으로 장개석(蔣介石)의 도움을 받아 남경에 위치한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中國中央陸軍軍官學校) 교외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를 설립하자 제1기 여자부 교관으로 선정되어 사관생도 양성을 담당하였다.

1935년 6월에는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 부녀부(婦女部) 주임, 1936년 7월에는 이청천(李靑天)의 처 이성실(李聖實)과 함께 민족혁명당원 가족들을 규합할 목적으로 남경조선부인회(南京朝鮮婦人會)를 조직하여 일선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민족의식을 고취·단합시켰다. 그 후 1937년 11월 의열단의 한중민족연합전선(韓中民族聯合戰線)의 일환으로 파견된 그녀는 대일본 라디오방송을 통해 선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938년 4~5월경에는 기관지 『조선민족전선(朝鮮民族戰線)』에 「경고, 일본의 혁명대중」, 「조선부녀와 부녀운동」이라는 글을 투고하여 총체적인 무장궤기를 촉구하였다.

그 후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가 창설되자,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婦女服務團)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선임되어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하다가 1939년 2월 강서성 곤륜산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

그 후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44년 5월 27일 중경에서 서거하였다. 광복 후 그녀의 유해는 경남 밀양 감천동 뒷산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채희(朴采熙)
생몰년도 : 1913. 07. 05 ~ 1947. 12. 01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3)

1929년 5월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에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光州女子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비밀결사 소녀회(少女會)에 가입하였으며, 1930년 1월 광주 학생운동에 참가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1928년 11월 초순경 전라남도 광주군에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장 매성(張梅性)의 발의에 따라 동교생들로 동지를 규합하여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광주읍내 공립사범학교(公立師範學校) 부근에서 남협협·박옥련(朴玉連) 등 6명이 모여, 여성을 남성의 압박으로부터, 또한 무산대중을 자본계급의 압박으로부터 각각 해방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를 조직 할 것에 찬동하고 소녀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인(同人)들을 회원으로 삼아 매월 한 차례 회합하여 우선 사회모순을 연구할 것을 협의하였다.

1929년 5월 박계남(朴繼男)·박현숙(朴賢淑)·김금연(金錦?)·김귀선(金貴先) 등과 함께, 장매성의 집에서 개최하는 월례회에 참석하여 장매성의 권유를 받아 동회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가입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났을 때 소년회 회원들은 광주역전에서 봉대와 도포약을 가지고 뛰어들어 부상 학생을 구원하였다.

1930년 1월 15일 학생 비밀결사가 일본 경찰에 노출되어 박채희 등 12명이 광주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30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소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박치은(朴致恩)
생몰년도 : 1897. 2. 7 ~ 1954. 12. 4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남 대동(大同) 사람이다.

1919년 8월 추도일(秋道一)·강희성(姜熙成) 등 1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대한독립부인청년단(大韓獨立婦人青年團)을 조직하고 부단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동단은 이후 독립운동자금의 모집과 독립투사들에 대한 편의제공, 투옥지사와 가족들의 후원활동을 폈다. 한편 그녀는 1919년 8월경 김봉규(金琫圭)·곽치문(郭致文)·나진강(羅鎭綱)·김국홍(金國洪) 등과 함께 국민향촌회(國民鄉村會)를 조직하였으나 회원들이 피체되어 활동이 위축되자 다시 동년 11월경 대한독립대동청년단(大韓獨立大同青年團)을 조직하였다.

동단은 중국 관전현(寬甸縣)에서 활동 중이던 대한독립광복군사령부(大韓獨立光復軍司令部)와 연계하여 권총을 입수한 후 대동군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는데 그녀는 동단에서 무기와 군자금의 보관을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1921년 5월 일경에 피체되어 1922년 4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생후 1개월된 영아(兒)가 옥중에서 사망하는 비운을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박현숙(朴賢淑)
생몰년도 : 1914. 3. 28 ~ 1981. 1. 23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광주(光州) 사람이다.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중 1929년 5월에 장매성(張梅性)의 권유로 항일학생결사 소녀회(少女會)에 가입하였다.

소녀회는 1928년 11월 장매성의 주도로 광주여고보생 6명이 조직한 항일학생결사로서 조국의 독립과 여성해방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들은 매월 월례연구회를 갖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1929년 6월에 광주학생의 조직적 활동을 위해 결성된 독서회중앙본부와도 긴밀한 연락을 맺으며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동본부가 독서회원의 친목단결 및 재정지원활동을 목적으로 학생소비조합을 조직할 때 각학교 독서회 및 학생들로부터 자본금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이때 광주여고보에서는 소녀회가 주동이 되어 자본금 30원을 출자하였다.

그를 이러한 소녀회 활동을 통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던 중, 1929년 11월 3일에 광주학생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소녀회가 앞장서서 가두시위도중 다친 부상학생을 치료하며, 식수공급과 돌멩이를 날라다 주는 남학생들의 가두시위를 도왔다. 그 후 소녀회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그는 1930년 1월 15일에 피체되었다.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형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박현숙(朴賢淑)
생몰년도 : 1896. 10. 17 ~ 1980. 12. 31
포상훈격 : 애국장(1990)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송의여학교에 재학중이던 1913년 김경희(金敬熙)·황애덕(黃愛德) 등이 주도·조직한 비밀결사 송죽형제회(松竹兄弟會)에 가입·활동하였다. 동회는 항일민족의식의 고취와 독립지사 가족들의 후원활동을 폈다.

그녀는 졸업 후 전주 기전(紀全)여학교에 교사로 부임하여 교내에 송죽결사대지부를 조직하고 황애덕에 이어 제3대 회장에 선임되어 동회를 이끌었으며 기전여학교에서 과외수업으로 한국사를 가르치는 등 구국교육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3·1독립운동 당시에는 평양시내의 시위운동을 주도하다 일경에 피체되어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았으나 신병으로 인해 집행유예로 출옥하였다.

1919년 11월 기독교 감리파와 장로파의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가 통합하여 확대·조직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평양감리파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동회는 재무부·교통부·적십자부의 부서를 갖추고 평양을 비롯한 서부지역의 부인회 조직을 동회의 지회로 흡수하였으며 본부는 지회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었다. 동회는 이후 항일독립사상의 고취와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힘써 2천 백여원의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녀는 1920년 12월 일경에 피체되어 1929년 2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5월 28일 가출옥하였다. 그 후 그녀는 신간회(新幹會)의 자매단체로서 1927년에 결성된 근우회(槿友會)에 가입하여 1928년 7월 근우회 임시전국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29년 7월 평양지회 정기대회에서 조신성(趙信聖) 등과 함께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재무부와 검사부의 분과를 맡아 여성의 지위향상과 항일독립운동에 힘썼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방순희(方順熙)
생몰년도 : 1904. 1. 30 ~ 1979. 5. 4
포상훈격 : 독립장(1963)

함경남도 원산(元山) 사람이다.

일찍이 상경하여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에 입학,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주권의식과 애국사상을 터득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항상 포악무도한 일제의 만행을 응징해야 하겠다는 애국정열을 간직하고 있었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여성계몽운동에 앞장서 활동하다가 상해로 망명하였다.

1938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함경남도 대의원에 선임되어 1945년까지 입법활동과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최초의 임시정부 여성의원으로 활약한 그녀는 의정원 회의에서 주미대표부 대표권을 둘러싼 김약산(金若山)파와의 대결에서 이를 압도하였다. 또 광복군 창설, 대일 대독 선전포고, 조소앙의 건국강령 등의 채택 문제,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 등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1939년에는 임정 승인을 위해 소련에 파견되어 외교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1942년 5월에는 한국독립당 중경구당(重慶區黨) 간부로 선임되어 독립정신 고취,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43년 10월에는 중경에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부회장에 선출되어 여권운동도 겸하였으며 한국임시정부 선전부원으로 한국어 방송을 하면서 활약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임시정부 국내 연락원으로 임명되어 선발대로 귀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백신영(白信永)
생몰년도 : 1889. 7. 8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1990)

부산(釜山) 사람이다.

기독교 전도사로 있던 그는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青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동회는 이후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하여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동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와 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그녀는 결사대장으로 선임되어 활약하였다.

동회는 본부와 지부를 통해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대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녀를 비롯한 동지들은 1919년 11월 일경에 피체되어 그녀는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병을 얻어 보석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백옥순(白玉順)
생몰년도 : 1913. 7. 3 ~ 2008. 5. 24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북 정주(定州) 사람이다.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하여 특수훈련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활동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백운옥(白雲玉)
생몰년도 : 1892. 1. 14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7)

1920年 平南 江西郡에서 國民鄉村會 女子部の 후신으로 조직된 大韓愛國婦人青年團에 참여하여 同團 및 同團長印을 조각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懲役 8月을 받음.

<사진>

성 명 : 부덕량(夫德良)
생몰년도 : 1911. 11. 5 ~ 1939. 10. 4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5)

해녀로서 1932년 1월 7일과 12일 제주도 구좌면(舊左面)에서 제주도해녀조합의 부당한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제주에는 관제조합인 해녀어업조합의 부정으로 해녀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에 제주도 해녀들은 자생적으로 해녀회를 조직하고 부당한 해녀어업조합에 맞서 나갔다. 이는 시위투쟁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구좌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1932년 1월 7일과 12일 구좌면 세화장터에서는 1천여 명의 해녀들이 세화주재소의 저지를 뚫고 호미와 비창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 후 동월 24일경 일경이 제주도 출신 민족운동가들을 체포하려는 것을 몸으로 맞서 저지하려다가 체포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부춘화(夫春花)
생몰년도 : 1908. 4. 6 ~ 1995. 2. 24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3)

제주도 북제주(北濟州) 사람이다.

1932년 1월 제주도 구좌면(舊左面)에서 해녀들이 권익침탈에 항거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1931년 일본 관리들이 해녀들을 가혹하게 대우하고 제주도해녀조합을 어용화하려 하자, 해녀들은 1931년 12월 20일 요구조건과 투쟁방침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부춘화는 1932년 1월 7일과 12일 제주도 구좌면에서 해녀조합의 부당한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시위운동을 주도하고, 해녀들의 권익을 위해 김옥련(金玉蓮) 등과 함께 도사(島司) 전구정희(田口禎熹)와 담판을 벌여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1월 26일 경에는 제주도 민족운동가의 검거를 저지하려다 피체되어 3개월 정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송금희(宋錦姬)
생몰년도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4월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해주 기생 송금희는 1919년 3월 하순부터 김월희(金月姬)·문월선(文月仙)·해중월(海中月) 김용성(金用性)·향희(馨姬) 문재민(文載敏)·채주(彩珠) 옥운경(玉雲瓊) 등과 북풍원(福豊園) 청요리 집 뒤채를 빌려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였다. 이들은 거사일을 4월 1일로 정하여 이곳에서 호소문과 태극기를 만들고, 동료 기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4월 1일 오후 2시경 송금희·김월희 등은 종로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이 남문 밖 훈련장으로 행진하여 만세를 부르자, 사방에서 3,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어 호응하였다. 이들은 다시 동문으로 돌아와 종로에서 연설을 하고 격려문을 낭독한 뒤, 다시 서문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의 탄압으로 흩어졌다.
이날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송금희는 해주감옥에서 6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송명진(宋明進)
생몰년도 : 1902. 1. 28.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3월 부산 좌천동(左川洞)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3일경 독립선언서가 부산에 전해지자 일신여학교 교사 주경애(朱敬愛)는 동료 교사를 모으는 한편 고등과 학생들에게 알렸다. 주경애의 지도를 받은 송명진·박두천(朴斗天) 등 고등과 학생 11명은 3월 10일 기숙사에서 밤새워 태극기 50개를 만들었다.

3월 11일 밤 9시 이들 11명의 여학생은 준비한 태극기를 손에 들고 교사 주경애·박시연(朴時淵)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기숙사 문을 뛰쳐나왔다. 여학생들이 좌천동 거리를 누비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자, 군중 수백 명이 호응하였다. 그러나 두 시간 뒤 주도자 전원이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송미령(宋美齡)
생몰년도 : 1897. 3. 5 ~ 2003. 10. 23
포상훈격 : 대한민국장(1966)

1932년 中國 上海에서 尹奉吉의 의거가 일어나자 韓人愛國團에 1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고 1940년 重慶에서 光復軍이 조직되자 다시 1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1942년 中國婦人戰時救濟會 會長으로 光復軍 출정 군인의 가족에게 10만원의 救濟費를 지원함.

성 명 : 송수은(宋受恩)
생몰년도 : 1882. 09. 12 ~ 1922. 07. 0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3)

1920년 12월부터 1921년 3월까지 평안남도 평양(平壤) 등지에서 반석대한애국부인청년단(磐石大韓愛國婦人靑年團)의 단원으로 선전문 을 배포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2월 최봉주(崔奉周)·조형신(曹亨信)의 권유로 최령반(崔靈磐)·안인대 (安仁大) 등이 평안남도 강서군 (江西郡) 성태면(星台面) 반육리(班六里)에서 국 민향촌회(國民鄉村會) 여자부(女子部)라는 비밀결사를 조직 하였는데, 송수은은 강서군 반석면(班石面) 반석리(班石里) 자신의 집에서 이 회에 가입하였다. 여자 부는 남자부와 연락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군자금의 모집, 독립사상과 배일사 상을 선전하는 문서를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다. 동회는 1920년 4월 안인대 등과 함께 강서군 반육리 북장로(北長老) 예수교회당 부속 반석 학교(磐石學校) 여학 생 교실에 모여 일동이 찬성함으로써, 조선독립을 위하여 상해의 대한민국임시 정부와 서로 연락을 취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자는 취지의 비밀단체로서 반석대 한애국부인청년단을 조직하였다. 이후 동년 12월부터 1921년 3월 10일경까지 각 단원이 평양과 기타 지방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고유순 (高有順)의 손을 거쳐 김례진(金禮鎭)에게 교부하고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하였다.
1921년 3월 25일에 체포되어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서 징역 8월을 받 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송영집(宋永濼)
생몰년도 : 1910. 4. 1 ~ 1984. 5. 14
포상훈격 : 애국장(1990)

평남 용강(龍岡) 사람이다.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하여 의무대(醫務隊)에서 의사 및 간호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송정헌(宋靜軒)
생몰년도 : 1919. 1. 28 ~ 2010. 3. 22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남 강서(江西) 사람이다.

1938년 중국 유주(柳州)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青年工作隊)가 조직되자 대원으로 입대하고 적후방 공작을 하며 첩보원으로 활동하였다.

1940년 6월 17일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 창립요원으로 동맹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였으며, 1944년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일원으로 1945년 광복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신경애(申敬愛)
생몰년도 : 1907. 9. 22 ~ 1964. 5. 13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8)

신경애는 개성 호수돈여학교를 졸업하고, 1927년부터 중앙여자청년동맹·근우회(槿友會)·신간회(新幹會)의 회원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였다.

1927년 5월 27일 전여성의 통일기관으로 결성된 근우회(槿友會)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였다.

1927년 4월 16일, 중앙여자청년동맹 제1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출되어 서무부원으로 4월 25일 제1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9월 8일에는 근우회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하였다. 12월 12일 서울청년회 수제회(首題會)에서 준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8년 7월경, 근우회 임시대회에 경성지회 대의원으로 참석하였다. 7월 30일 근우회 경성지회 수제회에서 정치문화부를 맡게 되었다. 9월 10일 근우회 본부 및 지회 연합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관북지역 수해 동정금 모집 위원에 선출되었다. 12월 18일 신간회 광주지회 기금부(基金部) 부원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근우회 제2회 전국대회가 경운동 천도교기념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 광주지회 대의원으로 참석하였고, 경기도 전형위원에 선임되었다.

1929년 9월 10일 광주 흥학관(興學館)에서 조선청년총동맹 전남 도연맹 제2년 제2회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1930년 10월을 전후하여 만주에서 국내로 들어온 오산세의 지도를 받아 경성제국대학생 유기춘(柳基春)·황봉순(黃鳳舜)과 함께 1931년 3월 하순경 공청 가두(街頭) 야체이카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이때를 즈음하여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가 해소되고, '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직준비회'가 결성되었다.

1931년 4월경 신철(辛鐵)·정종명(鄭鍾鳴), 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직준비회 중앙상무위원·이적효(李赤曉, 경성청년회 집행위원)와 함께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하여 전날 4월 30일에 서울에서 일제히 공장이나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격문을 뿌려 노동운동을 선동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발각되어 4월 22일에 용산경찰서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다.

신경애는 5월 27일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나, 7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8월 좌익노동조합 전국평의회조직준비회에 가입하여 12월까지 조선공산당 재건에 주력하던 중 다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신관빈(申寬彬)
생몰년도 : 1885. 10. 4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1)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개성읍(開城邑) 일대에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다.
1919년 2월 26일 기독교 남감리교 여성 전도사 어윤희(魚允姬)는 개성읍내 성경학원 기숙사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조선독립선언서 2,000여 매를 배포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3월 1일 어윤희는 동료 여성 전도사 신관빈에게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신관빈과 어윤희는 오후 2시경 개성읍내 만월정(滿月町),북본정(北本町),동본정(東本町) 거리에서 주민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신관빈은 1919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신마실라(申麻實羅)
생몰년도 : 1892. 2. 18 ~ 1965. 4. 1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부터 1921년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한인구제회 서기로 한국독립을 촉구하는 순회강연을 하였고, 1928년 뉴욕과 1931년 필라델피아에서 3·1절기념식에 참가해 연설하였다.
1919년 5월경 워싱턴에서 감리교 선교백년대회에 참석하여 3·1운동 당시의 참상을 연설하고, 같은 해 6월 대한자유공동대회에 참석하였으며, 8월에는 3·1운동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 구제금을 모집했다.
1919년 10월 한인구제회(韓人救濟會) 서기, 1920년 4월 학생연합회 발기인으로 한국친우회(韓國親友會)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
1921년 5월 펜실베니아주 감리교 외국선교사회 통상회의에서 한국의 참상을 연설하였다.
1923년 뉴욕지방회에서 개최된 3·1절기념식에서 서재필(徐載弼)과 함께 연설하였고, 1931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3·1절기념식에서 친목회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신분금(申分今)
생몰년도 : 1886. 5. 21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7)

경북 영덕군(盈德郡) 지품면(知品面) 원전동(院前洞) 시장에서 윤악이(尹岳伊)와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신분금은 남편이 독립운동을 계획하다 검거된 후 같은 처지인 윤악이와 함께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1919년 3월 24일 장날 원전동 시장에서 윤악이가 앞장서 “우리는 여자인데도 한국독립을 희망하고 한국의 만세를 부르짖는다”고 연설하자 신분금은 이에 호응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신분금은 체포되어 1919년 4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신순호(申順浩)
생몰년도 : 1922. 1. 22 ~ 2009. 7. 30
포상훈격 : 애국장(1990)

충북 청원 사람이다.

1938년 8월에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하여 한중 합동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이 창립되자 오광심(吳光心)·김정숙(金貞淑)·조순옥(趙順玉)과 함께 여군으로 참가하여 이채를 띠었다.

1942년 9월에는 임시정부 생계위원회 회계부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1945년 8월에 임시정부 외무부 정보과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신의경(辛義敬)
생몰년도 : 1898. 2. 21 ~ 1997. 8. 11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서울 사람이다.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 교사로 있던 그는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青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이후 동회는 기독교회·병원·학교 등을 이용하여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그는 서기 및 경기도지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동회는 본부와 지부를 통해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역할을 대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녀를 비롯한 동지들은 1919년 11월 일경에 피체되어 그는 1920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신정균(申貞均)
생몰년도 : 1899 ~ 1931. 7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7)

신정균은 신간회(新幹會)·근우회(槿友會) 등을 통해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문맹퇴치를 위한 부인 교육 등에 힘썼다.

1928년 7월부터 신정균은 근우회 경성지회(京城支會) 재무부를 담당하며 중앙집행위원으로 활약하였다. 근우회는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된 여성운동단체로 민족독립과 여성차별 철폐 등에 앞장섰다. 그는 재무부 및 정치문화부 등을 담당하는 한편, 1929년에는 근우회 전국대회 준비위원 및 중앙검사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신정균은 1929년 8월 경성여자소비조합(京城女子消費組合) 창립을 주도하여 창립위원이 되었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여성운동 및 사회운동을 전개하던 그는 1930년 2월 '조공재조직준비위원회사건'으로 일경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던 중 불기소처분을 받아 풀려났다.

석방 후에도 신정균은 근우회 중앙검사위원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했으나, 1931년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신정숙(申貞淑)
생몰년도 : 1910. 5. 12 ~ 1997. 7. 8
포상훈격 : 애국장(1990)

평북 의주(義州) 사람이다.

광복군에 입대하여 1941년 3월 1일 임시정부 청사에서 제3분처 징모위원 임명식을 갖고 그녀는 제3분처위원 겸 회계조장으로 파견되어 활약하였으며, 1942년 10월에는 광복군 제2지대 3구대 3분대에 편성되었다. 그 후 제3분처는 본부를 연산현 하구진(鉛山縣河口鎭)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그녀는 김문호(金文鎬)와 함께 전선과 후방에서 중국 유격대와 합동 공작으로 정보, 선전공작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또 포로심문을 통하여 적의 일선 및 후방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작에 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신정완(申貞婉)
생몰년도 : 1916. 4. 8 ~ 2001. 4. 29
포상훈격 : 애국장(1990)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후 부친인 해공 신익희를 따라 중국 각지를 전전하였다.

1937년에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39년부터 1941년에는 임시정부에 의하여 산둥성(山東省) 제2전구 사령부에 공작원으로 파견되어 지하공작 첩보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1943년에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피선되어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신태실(申特實)
생몰년도 : 1900. 3. 17. ~ 미상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4)

1919년 3월 1일과 5일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는 독립선언에 이어 독립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신태실은 선언식에 참여한 뒤, 군중과 함께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어 3월 5일 서울 남대문역 광장에서 강기덕(康基德)·김원벽(金元璧) 등이 주도한 만세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아침 8시 무렵 남대문역 앞 광장에는 1만여 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과정에서 만세를 이끌던 강기덕·김원벽이 붙잡혔지만, 시위 군중은 종로 보신각 앞까지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이어갔다. 신태실도 붉은 천을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약 11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심계월(沈桂月)
생몰년도 : 1916. 1. 6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0)

심계월은 함남 삼수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함흥원잠종제조강습소(咸興原蠶種製造講習所)에 입소했다가 도중 퇴소하고 경성여자상업학교(京城女子商業學校) 학생으로 재학하였다.

1929년 9월 학교 입학 이후 교내 독서회를 조직하여 9월 30일까지 토요일마다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고, 그 주간에 연구한 것을 상호 발표 비판하면서 의식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신사상 연구와 동지 규합을 위해 활동했다.

심계월은 1933년 1월경 학우인 이분성(李粉星)의 소개로 이재유를 만나게 되어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매진하게 되었다.

1934년 5월 김월옥(金月玉), 이현우(李鉉雨)와 만나 '코민테른 제13회 테제'를 지침으로 한 사회주의운동에 더욱 진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6월부터 김명식(金明植), 이인행(李仁行) 등을 만나 사상사건으로 도피 중인 동지들에 대한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의 협의를 나누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이 일경에 적발되어 같은 해 8월 이후 치안유지법 위반 및 방조, 범인장닉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미결구류 250일 통산)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심순의(沈順義)
생몰년도 : 1903. 11. 13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2)

부산(釜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당시 부산에 있는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 학생으로 서울에서 학생대표가 내려와서 거사를 알리며 독립선언서를 전달, 시위를 벌일 것을 종용하자 이곳에서도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친구들과 태극기 100여매를 만들어 3월 11일 기숙사를 뛰쳐나와 좌천동(佐川洞) 일대로 행진하면서 주위에 모여든 수백명의 시위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4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심영식(沈永植)
생몰년도 : 1887. 7. 15 ~ 1983. 11. 7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개성군 송도면(松都面)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맹인여성(盲人女性)으로서 호수돈여학교(好壽敦女學校) 졸업생이었다. 그는 1919년 3월 3일 송도면에서 모교인 호수돈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부자유한 몸을 무릅쓰고 군중대열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5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심영신(沈永信)
생몰년도 : 1882. 7. 20 ~ 1975. 2. 16
포상훈격 : 애국장(1997)

황해도 송화(松禾) 사람이다.

미주 하와이에서 대한인부인회(大韓人婦人會)를 결성하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13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인사회의 민족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황마리아 등과 함께 여성운동단체인 대한인부인회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자녀의 국어교육 장려, 일제용품 구매 거부운동, 교회와 사회단체 후원, 재난동포 구제를 주요 행동 지침으로 삼았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국내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와이 각지방의 부녀대표자를 소집하는 부녀공동대회의 개최에 앞장섰고, 같은 해 3월 이 대회에서 조국 독립운동에 대한 후원을 결의하였다. 또한 그는 1920년대 말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부터 재정부족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고 하와이의 동포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자금모집에 앞장섰다.

1941년 4월 그는 하와이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海外韓族大會)에 대한부인구제회 대표로 참석, 동대회에서 조직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으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후원과 대미외교 및 선전사업을 통해 독립운동에 봉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7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안경신(安敬信)
생몰년도 : 1888. 7. 22 ~ 미상
포상훈격 : 독립장(1962)

평남 대동(大同) 사람이다.

출생 후 강서군 읍내 덕흥리(江西郡邑內德興里)에 이주하여 살았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개월간 구류를 살았다. 그러나 그 후 더욱 분발하여 조국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1919년 11월 감리교 여성 신자로서 중진(重鎭)이던 오신도(吳信道 : 목사 손정도의 모친)·안정석(安貞錫) 등과 같이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를 조직하고, 평양본부의 교통부원(交通部員)겸 강서지회(江西支會) 재무(財務)를 담당하여 활약하였다.

동회에서는 많은 군자금을 거두어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는 등 활동하다가 1920년 초에 동지 106명이 일경에 체포되자, 김행일(金行一)을 따라 상해로 망명하였다. 그러다가 때마침 1920년 8월 미국의원단 일행이 내한(來韓)하게 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항일투쟁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자는 목적으로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에서 국내에 결사대를 파견하게 되자 제2대에 참가해서 장덕진(張德震)·박태열(朴泰烈) 등과 함께 상해를 출발해서 평양까지 들어왔다. 이들은 동년 8월 3일 평남경찰국 청사에 폭탄을 던져 평양시내를 진동시켰고, 평양시청과 평양경찰서에도 투탄하였으나 도화선이 비에 젖어 불발되고 말았다. 그 후 피신하여 함남 이원군 남면 호상리(南面湖上里)에 숨어있었으나 일경에 탐지되어 1921년 3월에 마침내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모친 고문과 악형 끝에 평양지방법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다가, 공소하여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안애자(安愛慈)

생몰년도 : 1869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06)

1920년 5월 평안남도 평양(平壤)에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를 조직하고 진남포 감리교 지회장으로 선임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 군자금 모집, 배일사상 고취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19년 6월 평양을 중심으로 예수교 장로파와 감리파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각각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를 조직하였다.

두 애국부인회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였으며, 강서·진남포 등의 지방에도 조직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의 비밀조직을 통합하고자 김정목(金貞穆)·김순일(金淳一) 등을 파견해 두 단체의 연합을 제안하였다. 2개월간 회합, 논의한 끝에 두 단체는 연합하였고 이름을 대한애국부인회라 하였다.

대한애국부인회는 1920년 11월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로 송금하던 중 금산지회장 송성겸(宋聖謙)이 체포됨으로써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

안애자는 진남포 감리교 지회장으로서 1920년 12월 2일 강서경찰서에 체포되어 1921년 2월 23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안영희(安英姬)
생몰년도 : 1925. 1. 4 ~ 1999. 8. 27
포상훈격 : 애국장(1990)

평남 진남포(鎭南浦) 사람이다.

1940년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에서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광복군의 창설과 함께 광복군 제5지대에 편입되었다. 그 후 광복군 제2지대 본부 의무실에 배속되어 복무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안인대(安仁大)
생몰년도 : 1898. 10. 11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7)

1920년 2월 平南 江西郡에서 國民鄉村會 女子部를 조직하여 군자금 모집 등을 계획하고, 同年 4월 大韓愛國女子靑年團을 조직하여 書記로 활동하며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내다 체포되어 懲役 1年을 받음.

성 명 : 안정석(安貞錫)

생몰년도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1913년 김경희(金敬喜)·황애덕(黃愛德) 등과 함께 여성들의 항일구국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송죽회(松竹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이후 중년 여성(松兄弟)과 젊은 여성(竹兄弟)을 고루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회비와 자수등을 통해 군자금을 모금하여 국외 독립운동기지에 전달하였다.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평양에서 만세시위를 준비하던 광성(光成)·송의(崇義)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의 집을 모의장소로 제공하고 항일격문·태극기 등의 제작에 필요한 경비도 부담하였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3주일에 걸친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다. 1919년 11월 감리파와 장로파의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가 통합하여 확대·조직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의 회장에 선임되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동회는 재무부·교통부·적십자부의 부서를 갖추고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역의 부인회 조직을 동회의 지회조직으로 흡수하였으며 본부는 지회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었다.

동회는 이후 항일독립사상의 고취와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2천 백여원의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1921년 2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양방매(梁芳梅)
생몰년도 : 1890. 8. 18 ~ 1986. 11. 15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5)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후기의병장 가운데 한 사람인 강무경(姜武景)의 부인으로 남편을 따라 항일전에 투신하였다.

전북 무주 출신의 강무경이 심남일(沈南一)과 함께 전남 함평에서 의병을 일으킨 뒤 1908년에는 영암으로 이동했을 때 영암군 금정면(金井面)의 선비 양덕관(梁德寬)의 집에 유숙한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하였다. 양덕관은 그녀의 친아버지였고 큰 오빠였던 양성일(梁成一)도 20세 청년으로 의병에 가담하였다. 일본군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영암을 떠나게 된 강무경이 여자가 따라나설 데가 아니라며 집에 남을 것을 권유했으나,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남편,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며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강무경을 따라 의병이 되어 항일전에 나섰다.

이듬해 1909년 10월 9일 전남 화순군(和順郡) 능주면(綾州面) 바람재 바윗굴에서 남편과 함께 일경에 체포될 때까지 1년 동안 양방매는 남편부대의 일원으로 장흥(長興)·보성(寶城)·강진(康津)·해남(海南)·광양(光陽) 등지까지 전남 동남부 일대 산악지방을 무대로 유격전을 전개했다. 특히 1909년 3월 8일 강무경 의병이 남평(南平) 월교리(月橋里)에 머물다가 일본군 15명이 운곡으로 갔다는 보고를 받고 작전계획을 세운 다음 본진을 장암에 두고, 의진을 5개 부대로 나눈 후 대치(大峙)·대항봉(大巷峰)·월임치(月任峙)·덕룡산(德龍山)·병암치(屏岩峙) 등지에 매복시켜 놓고 유인작전으로 협공을 벌여 다수의 일본 군경을 사살하는 등 큰 전과를 올린 남평의 거성동(巨聲洞)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여기에 직접 참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1909년 9월부터 일제가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을 벌여 호남의병에 대해 파상적 탄압을 가해오자 10월 9일 강무경과 함께 체포되고 말았다.

강무경은 1910년 9월 1일 심남일과 함께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였고, 양방매는 어린 여성의 몸이었기에 석방될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양순희(梁順喜)
생몰년도 : 1901. 9. 9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6)

1919년 3월 전남 광주군(光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수피아여학교(須比亞女學校)에 재학 중, 3월 10일 광주시장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시위는 광주 지역 학생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군민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수피아여학교 학생의 참여는 교사 박애순(朴愛順)·진신애(陳信愛) 등이 맡았다.
양순희는 이들의 인솔 아래 박영자(朴永子)·최경애(崔敬愛) 등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양림동(楊林洞) 쪽에서 광주천을 따라 시위행진을 하였다. 오후 2시부터 5시경까지 시위를 이어가던 군중은 100여 명이 체포되면서 흩어졌다.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같은 해 8월 1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양제현(梁齊賢)
생몰년도 : 1892 ~ 1959. 6. 15
포상훈격 : 애족장(2015)

1917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한인부인회,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샌프란시스코지부(桑港支部),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샌프란시스코지방회(桑港地方會) 등에서 활동하였다.
1917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朔都)에서 대한인국민회 후원과 일화(日貨) 배척을 목적으로 한인부인회(韓人婦人會)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2일 캘리포니아주 다뉴바(dinuba)에서 조직된 신한부인회(新韓婦人會)의 대표 등과 같은 해 8월 2일 대한여자애국단을 조직하였다.
1920년 3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지휘 아래 3·1절기념식에서 '여자의 일생'이란 제목으로 독립군을 따라 생을 마칠 것을 연설하였다.
1925년 8월 대한여자애국단 샌프란시스코지부(상항지부) 단장으로 창립기념식을 주관하였고, 9월에는 서기로 선출되었다.
1927년 2월 애국단 총단 행정위원, 1928년 총단 위원, 1929년 총단장 겸 위원, 1930년 총단장으로서 장인환(張仁煥) 의사 장례식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1931년 대한인국민회 상항지방회 수봉위원(收捧委員), 1931년 지방회 구제원이 되었다.
1932년 3·1절 기념식 준비위원장 및 총단 서기 등으로 활동했다.
1933~1934년 애국단 상항지부 단장, 1935년 상항지방회 재무, 1936년 상항지부 위원장, 상항지방회 학무, 1937년 국민회 중앙집행위원 겸 상항지방회 집행위원장, 1938년 상항지방회 학무위원, 상항지부 단장, 1939년 상항지방회 학무위원, 1940년 12월 상항지방회 교육위원, 1941년 상항지부 단장, 1942년 상항지방회 실업위원, 상항지부 단장, 1943년 상항지부 서기, 1944년 상항지부 단장을 역임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양진실(梁眞實)
생몰년도 : 1875 ~ 1924. 05
포상훈격 : 애족장(2012)

1919년 11월 평안남도 평양(平壤)에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 조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배일사상을 고취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6월경 평안남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파(長老派)와 감리 파(監理派)의 부인 신도들이 각기 자기 교파의 부인 신도들을 결속하여 상해 대 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부인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년 8월경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원인 김정목(金貞穆)·김순 일(金淳一) 등의 권유에 의하여 두 교파의 부인 신도들이 서로 제휴·연합을 논 의한 끝에 동년 11월 연합에 성공하여 명칭을 대한애국부인회라 하며, 평양에 연합회 본부를 두고, 주요 지방에 지회를 두는 계통적 비밀 결사를 이루었다.

1919년 10월 상순경 최매지(崔梅智)의 집에서 안애자(安愛慈) 등과 함께 애국부 인회의 진남포(鎭南浦) 지회를 조직하고(회장 : 안애자, 부회장 최매지), 집금계(集 金係)가 되어 각각 책임의 분담을 정하고 활동하여 약 3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한 편,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그 중 현금 약 90원을 애국부인회 평양 본부에 송부하였다.

동 단체가 대한애국부인회로 통합된 이후에도 전도부인(傳道婦人)으 로 종교 활동을 하는 동시에, 평안남도의 진남포(鎭南浦) 감리교 지회(監理敎 支會) 의 모집원(募集員) 자격으로 군자금 모집하는 데 주력하였다.

1920년 10월 15일 송치되어 1921년 2월 24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 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2년 6 개월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어윤희(魚允姬)
생몰년도 : 1880. 6. 20 ~ 1961. 11. 18
포상훈격 : 애족장(1995)

충청북도 충주 사람이다.

그는 서울에서 송달된 독립선언서를 개성(開城) 일대에 배포함으로써 개성의 만세운동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기독교 남감리파의 전도사인 그는 1919년 2월 26일 개성읍내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好壽敦女子高等普通學校) 기숙사에서 개성 충교(忠橋) 예배당 유치원 교사인 권애라(權愛羅)로부터 독립선언서 80여 매를 받아 개성 지역 주요인사들에게 전달하였다. 아울러 그는 만세운동을 추진하면서 서울에서 배포한 것과 같은 독립선언서를 2천 부 정도 인쇄하여 읍내 각지에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는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신관빈(申寬彬)과 함께 읍내의 만월정(滿月町)·북본정(北本町)·동본정(東本町) 등 각 거리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개성에서는 3월 3일에 개성 호수돈여자보통학교 학생들에 의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1천 5백 명의 시민이 만세시위에 참가함으로써 대대적인 시위 행진이 이루어졌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1919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엄기선(嚴基善)
생몰년도 : 1929. 1. 21 ~ 2002. 12. 9
포상훈격 : 건국포장(1993)

경기도 여주(驪州) 사람이다.

1938년 12월경부터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의 전신인 한국광복진선청년전지공작대(韓國光復陣線靑年戰地工作隊)의 공작대열에 오희옥(吳姬玉)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이들은 일본군내의 한국인 병사에 대한 초모공작의 일환으로 연극이나 무용 등을 통하여 적국의 정보를 수집 보고하는 한편 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켰으며, 중국 국민들에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이때 그는 박영준·이재현·노복선 등의 선배들과 함께 활동하였다. 그 뒤 1943년 2월경부터 중경(重慶)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전부장으로 활약하던 부친 엄항섭(嚴恒燮)을 도와 중국측 방송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활동상황과 중국에서의 일본군의 만행을 동맹국과 국내 동포들에게 알렸고, 일본군 내의 한국인들과 국내 동포들에게 염전사상(厭戰思想)을 고취시켰다. 또한 중국 토교(土橋)의 깊은 산 계곡에 소재한 수용소를 찾아가 일본군 포로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사병들을 위문하고,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는 선전공작에 진력하는 등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연미당(延薇堂)
생몰년도 : 1908. 7. 15 ~ 1981. 1. 1
포상훈격 : 애국장(1990)

경기도 여주(驪州) 사람이다.

1930년 8월 중국 상해(上海)에서 한인여자청년동맹(韓人女子青年同盟)이 조직되었을 때 5명의 임시위원 중 한사람으로 선출되어 상해 청년여자교민에 대한 조사 및 상해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교민들의 단합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1931년 10월 일제의 무력침략으로 발발한 만주사변 이후 상해에 왔는 한인 각단체 대표자회의에 여자청년동맹의 대표로 참석하여 배일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상해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윤봉길(尹奉吉) 의사의 의거가 있는 다음 일제의 포악한 탄압을 피해 1932년 4월부터 1936년 5월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가흥(嘉興)·진강(鎭江)을 거쳐 장사(長沙)로 이동할 때 임시정부 요인들을 수행하며 봉사하였고 장사에 있는 남목청(楠木廳)에서 3당 통일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이운한(李雲漢)의 저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김구(金九)를 정성으로 간호하였다.

1938년 10월에는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원(韓國光復陣線青年工作隊員)이 되어 선전과 홍보활동에 주력하였고 1943년 2월 중경(重慶)에서 한국애국부인회(韓國愛國婦人會)의 조직부장으로 선출되어 반일의식을 고취하는 방송을 담당하며 활동하였다. 또한 1944년 중국 국민당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간의 협조로 대적선전위원회(對敵宣傳委員會)를 통해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활동상황을 우리말로 방송하였고 일본군내의 한국인 사병에 대하여 초모공작을 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총궐기를 촉구하며 활동하는 한편 1944년 3월에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 입당하여 조국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오건해(吳健海)

생몰년도 : 1894. 02. 29 ~ 1963. 12. 25

포상훈격 : 애족장(2017)

1940년 韓國革命女性同盟 창립에 참여하였으며, 1942년부터 해방 때까지 韓國獨立黨黨員으로 활동함.

<사진>

성 명 : 오광심(吳光心)
생몰년도 : 1910. 3. 15 ~ 1976. 4. 7
포상훈격 : 독립장(1977)

평북 선천(宣川)여성으로 김학규(金學奎)의 부인이다.

1934년에 부군(夫君) 김학규(金學奎)가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 국민부(國民府) 등 3개단체(三個團體)의 전권대표가 되어 임무를 띠고 만주(滿洲)에서 남경(南京)으로 갈 때, 동행하였다.

1935년 7월에는 남경에서 5당통일로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이 창립되자 부녀부 차장에 피임되어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40년 9월 17일에 한국광복군이 창립되자 김정숙(金貞淑), 조순옥(趙順玉) 등과 함께 여군복을 입고 광복군 창립식에 참가하였다. 중경(重慶)에서 창립식을 가졌던 광복군은 같은 해 11월 29일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에 본부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서안(西安)에서 총사령부에 소속되어 복무하였다. 그 후, 광복군이 편성됨에 따라 제3지대장인 부군 김학규(金學奎)와 함께 제3지대의 간부로서 광복군 선전활동을 담당하여 활동하였다.

1944년 광복군의 초모 공작활동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초모 공작 대상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청년에 대한 초모 공작도 병행하였다. 광복군의 간부였던 그녀는 「한국 여성 동지들에게 일언을 드림」이라는 글에서 「광복군은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여성의 광복군도 되는 것이니 우리 여성들이 참가하지 아니하면, 마치 사람으로 말하자면 절름발이가 되고, 수레로 말하면 외바퀴 수레가 되어 필경은 전진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됨으로 우리의 혁명을 위하여, 광복군의 전도를 위하여, 우리 여성 자신의 권리와 임무를 위하여 광복군 대열에 용감히 참가하라」고 강조하여 여성들의 광복군 참여를 촉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오신도(吳信道)
생몰년도 : 1852. 4. 18 ~ 1933. 9. 5
포상훈격 : 애족장(2006)

1920년 5월 평양에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본부 총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원, 군자금 모집, 배일 사상 고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신도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장 손정도(孫貞道)의 어머니로 감리파 지회의 서기인 손진실(孫眞實)은 그녀의 손녀(손정도 장녀)였다.

1919년 6월 평양을 중심으로 예수교 장로파와 감리파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원조할 목적으로 각각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를 조직하였다. 두 단체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였으며, 강서·진남포 등의 지방에도 조직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의 비밀조직을 통합하고자 김정목(金貞穆)·김순일(金淳一) 등을 파견해 두 단체의 연합을 제안하였다. 2개월간 외국인이 경영하는 기흥병원(記笏病院) 및 교회당에서 회합, 논의 끝에 두 단체는 연합하였고 이름을 대한애국부인회라 하였다. 대한애국부인회는 5월 이래 군자금 2,400여 원을 회원 및 동지들로부터 모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냈다. 이처럼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로 송금하던 중 1920년 11월 금산지회장 송성겸(宋聖謙)이 체포됨으로써 조직이 발각되었다.

오신도는 본부 총재로서 1921년 2월 23일 평양지방법원에서 '1919년 제7호(정치범처벌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오영선(吳英善)
생몰년도 : 1887. 4. 29 ~ 1961. 2. 8
포상훈격 : 애족장(2016)

1940년 중국 중경(重慶)에서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 창립에 참여하고, 1944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한국혁명여성동맹은 1940년 6월 16일 중국 중경에서 결성되었다. 한국독립당의 산하단체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독립운동 지원과 교육 활동에 주력했던 여성독립운동가 단체였다.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가숙들의 생계 및 교육을 담당했으며 나아가 직접 여러 단체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주요 인물로는 조용제(趙鏞濟)·송정헌(宋靜軒)·정정산(鄭正山)·오건해(吳健海)·김수현(金秀賢)·노영재(盧英哉) 등이었다.

한국독립당은 1930년 1월 25일 중국 상해(上海)에서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창립한 독립운동 단체였다. 설립 당시 이사장에 이동녕(李東寧), 당무이사에 김구(金九)·조소앙(趙素昂) 등이 선출되었다. 특히 조소앙은 한국독립당의 당의 및 당강이었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기초한 인물이었다.

오영선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외무부장(外務部長)이었던 조소앙의 부인이자 임시정부 내 여성동맹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아울러 한국독립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부녀자들의 각성과 단결을 촉구하며 여성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오정화(吳貞嬋)
생몰년도 : 1899. 1. 25 ~ 1974. 11. 1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1)

서울 사람이다.

1919년 3월 5일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용강면(龍江面) 동막상리(東幕上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고양군에서는 한지면(漢芝面)과 용강면(龍江面) 및 군내 각 면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용강면 동막상리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은 정호석(鄭浩錫)에 의해 추진되었다.

정호석은 3월 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음을 전해 듣고, 동막상리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정호석은 3월 5일 자신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동막 사립 흥영학교 앞에서 흔들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동막 사립 흥영학교 직원이었던 오정화(吳貞嬋)는 정호석으로부터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고, 여기에 찬동하여 흥영학교 직원 박성철과 학교 생도 10여 명을 인솔하여 만세운동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학교에서부터 용강면 공덕리까지 행진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오정화는 이날 시위로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미결(未決)로 8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오항선(吳恒善)
생몰년도 : 1910. 10. 3 ~ 2006. 8. 5
포상훈격 : 애국장(1990)

황해도 신천(信川) 사람으로 만주 길림성 중동선(中東線) 석두하자(石頭河子)에서 출생하였다.
1928년 김좌진(金佐鎭)장군 휘하에서 활약하고 있던 유창덕(兪昌德)과 결혼하여 남편을 따라 독립군 대열에 가담하여 대일항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1월 신민부 산하 독립투사 40여명이 석두하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을 때 하얼빈(哈爾濱) 일본 영사관원의 습격을 받아 유정근(兪政根) 등 12명이 체포되자 다른 동지들과 같이 재빨리 도피하여 각지에 숨겨둔 무기를 운반하였다. 한편 김좌진장군의 부인 나혜국(羅惠國)과 같이 독립군의 식사와 의복 등 보급에 진력하는 한편 외부와의 연락 및 무기 운반에도 참가하였다.
1930년 1월 24일 김좌진장군이 암살당하자 동지들과 함께 복수전을 계획하는 한편 적의 동향을 탐지하였다. 그리고 동년 9월에는 고강산(高崗山)·김수산(金壽山) 등과 함께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1930년 10월 석두하자(石頭河子)에 있던 자택을 일본경찰이 습격하여 남편과 함께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오희영(吳熙英)
생몰년도 : 1924. 4. 23 ~ 1969. 2. 17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에 입대하였다가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오광심(吳光心)·김효숙(金孝淑) 등과 함께 여군으로 입대하여 제3지대 간부로 활동하였다.

1942년에는 김학규(金學奎) 제3지대장의 인솔하에 일군의 점령지구를 돌파하여 오광심(吳光心)·이복영(李復榮)·신송식(申松植) 등과 함께 중국군 유격부대가 자리잡고 있는 부양(阜陽)에서 활동하였다.

1944년에는 부양(阜陽)에서 군사 교육 훈련을 마친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단의 1기 졸업생들과 함께 신송식(申松植)교관의 인솔하에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는 중경(重慶)으로 갔으며,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였다. 그곳에서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오희옥(吳姬玉)
생몰년도 : 1926. 5. 7 ~ 생존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독립운동가 오광선(吳光鮮)의 차녀이다. 1939년 4월 중국 유주(柳州)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에 입대하여 일본군의 정보수집, 초모(招募)와 연극·무용 등을 통한 한국인 사병에 대한 위무(慰撫) 활동에 종사하면서 1941년 1월 1일 광복군(光復軍) 제5지대(第5支隊)로 편입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1944년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옥운경(玉雲瓊)
생몰년도 : 1904. 6. 24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0)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기생들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2월 말, 문응순(예명 月仙), 김성일(金聖日, 예명 月姬)은 고종의 인산(因山)을 봉도하기 위해 상경하여 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고종의 인산을 배관하고 해주로 돌아왔다. 3월 10일 해주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수수방관할 수 없었던 문응순과 김성일은 3월 하순, 옥운경(예명 彩珠), 김용성(金用性, 海中月), 문재민(文載敏, 예명 馨姬) 등과 거사를 논의한 후 4월 1일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김성일과 문응순이 직접 한글로 독립선언서를 지어 5천장을 인쇄하는 한편, 옥운경 등은 태극기를 제작하여 준비를 마쳤다.

4월 1일 오후 2시경 옥운경을 비롯한 해주 기생들은 남문 쪽을 향해 나가며 태극기를 흔들고 전단을 뿌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소식을 듣고 동료 기생들을 비롯한 군중들이 모여 들어 행렬은 3,000여명에 달하였다. 이들 행렬은 재판소를 거쳐 동문으로 들어와 다시 종로로 향하였다. 이때 출동한 일제 경찰에 의해 옥운경 등 주동자 5명은 붙잡혀 종로경찰서로 끌려갔다. 이들은 종로경찰서 앞에 이르자, 돌을 집어 유리창을 부수는 한편, 다시 만세를 부르는 의기를 보였다. 경찰서에서 이들은 심한 악형으로 온 몸이 멍이 들고,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시위를 주도한 옥운경은 체포되어 1919년 9월 9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왕경애(王敬愛)
생몰년도 : 1863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6)

황해도 신천군(信川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신천군의 만세운동은 문화읍(文化邑)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읍에서는 천도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연계하여 3월 11일 장날을 기하여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하고 인근 각지로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였다.
거사 당일 오전 11시경 3백여 명의 시위대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부르니 장꾼들이 호응하여 1천여 명의 만세 대열은 시가를 누비며 행진하였다. 뒤를 이어 3월 15일 초리면(草里面) 달천리(達泉里) 장날에는 초리면·궁흥면·문화면 3개 면민들을 중심으로 연합시위가 일어났으며, 3월 19일 용진면(用珍面) 유천리(柳川里)에서도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왕경애는 3월 27일 신천읍 장날 무정리(武井里)의 훈련원 장터에서 2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왕경애는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유관순(柳寬順)

생몰년도 : 1902. 12. 16 ~ 1920. 9. 28

포상훈격 : 독립장(1962)

충청남도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갈전면(葛田面, 現 竝川面) 아우내(竝川)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녀는 공주 영명여학교(永明女學校)에서 수학한 뒤 1916년 기독교 감리교(基督教 監理敎) 충청도 교구(忠淸道敎區) 본부의 미국인 여자 선교사(宣敎師)의 주선으로 이화학당(梨花學堂)에 교비 장학생으로 편입하여 고등과(高等科) 1학년 3학기 때에 거족적인 3·1 독립만세운동을 맞이하였다.

3월 5일 남대문(南大門)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강제 명령에 의해 이화학당이 휴교되자 곧 독립선언서를 감추어 가지고 귀향하였다. 그녀는 인근의 교회와 청신학교(靑新學校) 등을 돌아다니며 서울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하고, 천안·연기(燕岐)·청주(淸州)·진천(鎭川) 등지의 교회·학교를 돌아다니며 만세운동을 협의하였다. 또한 기독교 전도사인 조인원(趙仁元)과 김구응(金球應) 등의 인사들과 만나 4월 1일의 아우내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은 두 계열에서 계획되었는데, 그 하나는 홍일선(洪鎰善)·김교선(金敎善)·한동규(韓東奎)·이순구(李旬求) 등의 수신면(修新面)민과 이백하(李柏夏)·김상철(金相喆)로 대표하는 성남면(城南面)·갈전면민들이고, 하나는 동면(東面)의 유관순·조인원·조병호(趙炳鎬)·유중권(柳重權)·유중무(柳重武)·조만형(趙萬衡)·김상훈(金相訓)·김용이(金用伊)와 갈전면의 박제석(朴濟奭)·박봉래(朴鳳來) 등이다.

이 두 계열의 주동자가 서로 연락을 취하며 4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합동으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3월 31일 자정을 기하여 다음날의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알리는 봉화를 요소마다 올렸다. 4월 1일 아침 일찍부터 아우내 장터에는 천안군 일대뿐만 아니라 청주·진천 방면에서도 장꾼과 장꾼을 가장한 시위군중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오전 9시, 3천여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조인원이 긴 장대에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높이 달아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아우내 장터는 삼시간에 시위중의 만세소리로 진동하였다. 이때 그녀는 미리 만들어 온 태극기를 시위군중에게 나누어주고, 시위대열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시위행진하였다.

독립만세운동이 절정에 달하던 오후 1시경 긴급 출동한 일본 헌병에 의하여 시위대열의 선두에 있던 한 사람이 칼에 찔려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 그녀는 시위군중과 함께 최초의 희생자를 둘러메고 헌병파견소로 물러갔다. 시위군중은 무참하게 살해된 동지의 시체를 파견소 앞마당에 내려놓고 일제의 만행을 격렬하게 성토했고, 일부 흥분한 청년들은 파견소의 뒤로 돌아가서 전화선을 끊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일본 헌병들은 파견소내로 들어가 숨어 버렸고, 시위군중은 조인원의 설득으로 충돌없이 곧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오후 2시경, 응원요청을 받은 헌병 분견대원과 수비대원 30여명이 트럭을 타고 도착하여 총검을 휘두르고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였다. 시위군중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일본 헌병들은 시위군중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발포하고 칼로 쓰러뜨렸다. 이같은 일제의 만행으로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씨(李氏) 등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3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오후 4시경, 그녀는 좌복부와 머리를 칼에 찔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업고 유중무, 조인원, 조병호, 김용이 등 40여명과 함께 파견소로 물러가, 파견소장 소산(小山)과 헌병 상등병 주곡(湊谷) 등 일본 헌병들에게 달려들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에 그녀는 한꺼번에 부모를 잃었을 뿐아니라 이 독립만세운동 주모자로 체포되어 공주 검사국(公州檢事局)으로 송치되었다. 그녀는 여기서 공주 영명학교(永明學校) 학생대표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다가 체포된 오빠 유우석(柳愚錫)을 만났으니, 그녀의 가족은 모두 조국의 광복을 위한 애국투사가 아닌 이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경성(京城)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3년형이 확정되어 서대문(西大門) 형무소에 감금되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어윤희(魚允姬)·박인덕(朴仁德) 등과 계속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말미암아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유순희(劉順姬)
생몰년도 : 1926. 7. 15 ~ 생존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황해도 황주(黃州) 사람이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重慶)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총사령부(韓國光復軍總司令部)는 임시로 광복군을 4개 지대(支隊)로 편성하고 각 지대 내에 3개 구대(區隊)를 두고, 다시 각 구대 내에 3개 분대(分隊)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광복군의 부대 편성은 부대원의 다수 부족으로 1942년 4월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함에 따라 겨우 2개 지대로 편성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광복군총사령부가 1942년 2월 김학규(金學奎)를 산둥성(山東省)으로 특파하여 일본군으로 강제 징집당한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모공작(招募工作)을 전개하도록 하자, 김학규는 양자강 이남의 안휘성(安徽省) 부양(阜陽)에 머물면서 3년 남짓 초모활동을 전개하였다.

1944년 11월 중국 하남성(河南省) 녹읍(鹿邑)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전방 특파원 조성산(趙城山)과 접선하여 지하공작원으로 활동한 그는 1945년 2월 김학규가 이끄는 광복군 제3지대 화중지구(華中地區) 지하공작원 윤창호(尹昌浩)로부터 광복군 지하공작원으로 임명한다는 임명장을 수여받았으며, 동월 중순 동지(同地)를 탈출하여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한 뒤 제3지대 제1구대 본부 구호대원(救護隊員)으로 광복이 될 때까지 조국독립투쟁을 위해 적극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유예도(柳禮道)
생몰년도 : 1896. 8. 15 ~ 1989. 3. 25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충청남도 천안(天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공원에서 있는 독립선언문선포식에 사촌동생 유관순(柳寬順)과 함께 참가하고, 이어 독립만세시위에 가담하였다. 3월 13일에는 유관순과 함께 귀향하여 갈전면(葛田面) 아우내(川) 장터에서 4월 1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동리 어른들과 상의하였다.

4월 1일 3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시가를 행진하면서 시위를 계속하다가 일본 헌병의 야만적인 발포와 함께 주모자 검거가 시작될 때, 아버지 유중무(柳重武)와 유관순 등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으나 그녀는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가까스로 피신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유인경(兪仁卿)
생몰년도 : 1896. 10. 20 ~ 1944. 3. 2
포상훈격 : 애족장(1990)

대구(大邱) 사람이다.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이후 동회는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그는 거창·밀양·통영을 통괄하는 대구지부장으로 선임되어 조직확대에 힘쓰는 한편 동년 8월 군자금 백원을 본부에 교부하는 등의 활동을 폈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다. 동회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본부와 지부를 통해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19년 11월 일경에 피체되어 그는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유점선(劉點善)
생몰년도 : 1901. 11. 5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4)

1919년 3월 서울에서 학생단이 이끈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역 광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운동은 강기덕(康基德)·김원벽(金元璧)을 비롯한 학생들이 주도하였다. 아침 8시경 남대문역 앞 광장에는 10,000여 명의 학생과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유점선은 9시 무렵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화학당 기숙사에서 나와 대한문 앞에서 군중과 함께 붉은 천을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불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을 때까지 약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윤경열(尹敬烈)
생몰년도 : 1918. 2. 29 ~ 1980. 2. 7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82)

1944. 12월 中國 光復軍 第3支隊의 敵地區工作隊에 입대하여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성 명 : 윤선녀(尹仙女)
생몰년도 : 1911. 4. 18 ~ 1994. 12. 6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함북 회령(會寧) 사람이다.

1930년 1월 22일 함경북도 회령(會寧) 보흥여학교(普興女學校) 재학중에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을 지지하는 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다.

동년 2월 10일 근우회(槿友會) 회령지회(會寧支會) 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진(淸津)에 있는 윤천녀(尹天女 : 一名 善淑)와 같이 청진여고(淸津女高) 학생들을 동원하여 항일격문 180여매와 태극기(太極旗) 170여개를 만들어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을 지지하는 만세시위를 추진하려다가 피체되었다. 동년 4월 2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윤악이(尹岳伊)
생몰년도 : 1897. 4. 17 ~ 1962. 2. 26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7)

경북 영덕군(盈德郡) 지품면(知品面) 원전동(院前洞) 시장에서 신분금(申分今)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윤악이는 남편이 독립운동을 계획하다 검거된 후 같은 처지인 신분금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1919년 3월 24일 장날 원전동 시장에서 윤악이가 앞장서 “우리는 여자인데도 한국독립을 희망하고 한국의 만세를 부르짖는다”라고 연설하자 신분금도 이에 호응하여 만세시위를 펼쳤다.

윤악이는 체포되어 1919년 4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윤용자(尹龍慈)
생몰년도 : 1890. 4. 30 ~ 1964. 2. 3
포상훈격 : 애족장(2017)

1939년 中國 綦江縣에서 韓國國民黨 黨員, 1940년 中國 重慶에서 韓國革命女性同盟 창립에 참여함.

성 명 : 윤찬복(尹贊福)
생몰년도 : 1868. 1. 5 ~ 1946. 6 19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남 순천(順川) 사람이다.

기독교 전도사로 있던 그는 1919년 음력 8월 평양(平壤)의 예수교신학교 기숙사에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총무 박승명(朴承明)으로부터 향촌회(鄉村會)를 조직할 것을 권유받고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최복길(崔福吉)·정찬성(鄭燦成) 등과 함께 동년 음력 10월 9일경 순천군 제현면(濟賢面)의 예수교계열 여학교에서 수십명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대한국민회부인향촌회(大韓國民會婦人鄉村會)를 조직하였다. 그는 동회의 회장을 맡고 최복길·정찬성은 회계를 담당하였다.

동회는 임시정부에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회원들로부터 4원씩을 모금한 후 그중 1원은 향촌회의 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군자금으로 적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모금한 160원을 1920년 3월(음력) 임시정부 요원 차경신(車敬信)에게 교부하였다.

동회는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21년 1월 조직이 노출되어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윤천녀(尹天女)
생몰년도 : 1908. 5. 29 ~ 1967. 6. 25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함북 회령(會寧) 사람이다.

1930년 2월 3일부터 10일사이에 함북 청진(淸津) 신암동(新岩洞) 92번지 자택에서 동생 윤선녀(尹仙女)와 함께 청진여학교(淸津女學校) 학생인 황금진(黃金振) 등 다수를 규합하고 전국 각지에 파급되고 있는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여 시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모두의 찬동을 받은 다음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에 대한 정당성과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는 격문 180여매, 그리고 태극기 170여매를 자택에서 비밀리에 인쇄하고 다음날인 동년 2월 11일 9시경 청진에서 열린 장터부근에서 청진여자고등보통학교(淸津女子高等普通學校) 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다가 피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1930년 4월 2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1930년 5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됨으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윤형숙(尹亨淑)
생몰년도 : 1900. 9. 13 ~ 1950. 9. 28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4)

1919년 3월 6일 김복현(金福鉉)·김강(金剛)·서정희(徐廷禧) 등은 송일학교(崇一學校) 교사 최병준(崔丙浚) 및 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 교사 박애순(朴愛順) 등과 협의하여 3월 10일 전남 광주의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결행하기로 계획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다.

3월 10일 오후 3시 반경, 주도자들은 계획에 따라 광주교(光州橋) 밑 천변에서 수백 명의 군중을 지휘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천변을 따라 시장으로 진출하여 시위대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이곳을 출발하여 서문통(西門通)을 경유하여 우편국 앞에 이르러 왼편으로 돌아 본정통(本町通)으로 행진하였다. 이 때 누문리(樓門里) 방면으로부터 농업학교 학생 등 수백 명의 시위군중이 합세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행진하였다.

당시 광주 수피아여학교 학생이었던 윤형숙도 동교 학생들과 함께 시위대열에 참가하여 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시위대가 행진하는 도중 일본 헌병대가 출동하여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헌병들은 실탄사격을 감행하며 무자비한 탄압에 나섰다.

일본 헌병은 선두에 있던 그녀의 왼팔을 군도로 내리쳤다. 팔이 잘린 그녀는 잠시 땅에 쓰러졌다가 일어나 오른팔로 태극기를 집어 들고 독립만세를 더욱 크게 불렀다. 이 광경을 목격한 군중들은 비분강개하여 더욱 격렬하게 항거하였다. 그녀는 중상을 당한 채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윤희순(尹熙順)
생몰년도 : 1860. 6. 25 ~ 1935. 8. 1
포상훈격 : 애족장(1990)

1895년 의병장 유홍석(柳弘錫, 의병장 柳麟錫의 재종형)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에 그 며느리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가(義兵歌)", "의병군가(義兵軍歌)", "병정가(兵丁歌)" 등을 작사·작곡하여 부르게 해서 의병운동을 고취하고 부녀자들의 항일독립정신을 고취했으며, 친일파와 일본군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들의 죄상을 꾸짖었다. 1907~1908년의 의병운동 때에는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가정리(柯亭里) 여우천(如愚川)골짜기에서 여자의병 30여명을 조직하여 군자금을 모아서 의병운동을 지원하였다. 1911년 4월에 만주로 망명하여 시아버지 유홍석과 남편 유제원(柳濟遠)의 독립운동을 돕다가 1935년에 봉천성 해성현(海城縣) 묘관둔(廟官屯)에서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겸양(李謙良)
생몰년도 : 1895. 10. 24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3)

1919년 11월 평안남도 평양(平壤)에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 조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6월경 평안남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파(長老派)와 감리파(監理派)의 부인 신도들이 각기 자기 교파의 부인 신도들을 결속하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부인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년 8월경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원인 김정목(金貞穆)·김순일(金淳一) 등의 권유에 의하여 두 교파의 부인 신도들이 서로 제휴·연합을 논의한 끝에 동년 11월 연합에 성공하여 명칭을 대한애국부인회라 하며, 평양에 연합회 본부를 두고 주요 지방에 지회를 두는 계통적 비밀 결사를 이루었다.

이겸양은 전라남도 목포부(木浦府)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의 교사로서, 한영신(韓永信)의 발기로 1919년 6월경 김용복(金用福)·김경선(金景善)·김보원(金寶源) 등과 함께 평양부 신양리(新陽里) 김경희(金景喜)의 방에서 애국부인회라는 단체를 조직한 뒤, 한영신을 회장으로 추대하여 임원을 천거하고 동지규합, 회비의 징수, 군자금 모집, 배일사상의 고취, 결사대·독립단 기타 운동원의 원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다. 동년 8월 상순 김용복의 집에서 한영신 외 7명의 간부가 집합하여 활동의 경과, 임원의 개선 및 감리파와의 합동 가부(可否)를 협의하고 연합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년 11월 양파 연합의 논의가 성립하자 동월 상순경 다시 김경희의 방에서, 박승일(朴昇一) 등 양파 간부 각 6명과 함께 모여 박승일·최순덕(崔順德)·이성실(李聖實)·손진실(孫眞實)·황신덕(黃信德) 등이 조직한 애국부인회와 연합하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는 것을 주도하였다. 이 날 모임에서는 본부를 평양에, 지회를 각 지에 둘 것, 본부의 임원은 양파가 공평하게 선임할 것, 이미 설치된 각파 부인회는 그대로 지회로 할 것, 각 지방의 각 파 부인 유지에게 권유하여 지회를 설립할 것, 일반으로부터 회비 이외의 군자금을 모집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후 이겸양은 동 단체의 본부의 서기이자 평양 장로파지회(長老派支會)의 서기로서, 1920년 4월경까지 수차례 걸쳐 외국인이 경영하는 평양의 기흥병원(紀笏病院) 등 기타 장소에 모여 임원의 개선이며 회원의 모집, 회비의 징수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동년 5월 이래 각 지방의 부인 유지들에게 권유하여 지회를 조직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군자금 2400여 원을 회원 및 동지들로부터 모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2107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송부함으로써 독립운동을 원조하고, 나머지 돈 312원은 본회의 경비에 사용하였다.

1920년 10월 15일 송치되어 1921년 2월 24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 件)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고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5월 6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광춘(李光春)
생몰년도 : 1914. 9. 8 ~ 2010. 4. 12
포상훈격 : 건국포장(1996)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일본인 중학생이 당시 광주여고보에 재학 중이던 이광춘과 박기옥을 희롱하였다. 이로써 발단된 광주고보생과 광주중학생간의 충돌은 광주학생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렇듯 광주학생운동의 도화선의 한사람이었던 그는 같은 해 11월 3일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운동이 전개되자, 솔선하여 광주여고보 학생들을 주도하여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가혹한 고문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후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광주학생들의 시위는 다시 추진되었다. 이무렵 광주학생의 시위소식은 전국으로 퍼져 전국 각처에서 학생시위가 크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광춘은 광주여고보를 중심으로 다시 학생시위의 계획을 준비해 갔다. 그리하여 1930년 1월 13일 시험시간 중, 돌연 교단으로 뛰어 올라가 피체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험을 거부하자 백지동맹을 주도해 갔다. 그는 이 일로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고 일경에 피체되어 갖은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이국영(李國英)
생몰년도 : 1921. 1. 15 ~ 1956. 2. 2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충북 청주(淸州) 사람이다.

1941년 6월 17일 중국 중경(重慶)에서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이 조직되자 여기에 가입하여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41년 10월 10일에는 중경에서 3·1유치원이 설립되자 연미당(延微堂)·정정화(鄭靖和) 등과 함께 교사가 되어 중경에 거주하고 있던 교민들의 자제를 교육하였다.

1944년 3월 그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당원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생계부(生計部) 부원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금복(李今福)
생몰년도 : 1912. 11. 8 ~ 2010. 4. 2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8)

이금복은 1925년 9월 경남 고성군 하일면 공립보통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17세(1928년경)에 박대영(朴大榮)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1932년 6월경 '삼천포독서회사건'으로 도피 중이었다. 이때 남편의 동생 박대홍(朴大鴻)의 권유로 ｢별의 나라｣-｢집단(集團)｣ 등 사상 서적을 읽고, 신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1934년 8월경, 부산에 와서 목도조선법랑철기주식회사(牧島朝鮮珞瑯鐵器株式會社)에 여공으로 취직하였다. 이때 정충조(鄭忠朝)의 권유로 동지 박보홍(朴寶洪)·이춘근(李春根)과 함께 정호영(鄭鎬永)의 검거 이후 분산된 적색노동조합을 재조직하기 위해 부산지방의 동지를 규합하는 등 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이금복은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나, 1935년 3월 26일 부산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 후 이금복은 1938년 삼천포를 중심으로 적색농민조합에 가담하여 활동하다 또 다시 체포되었다.

1939년 8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당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그녀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이남순(李南順)
생몰년도 : 1904. 12. 30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2)

1921년 11월 워싱턴회의에 조선독립문제 상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목포부(木浦府) 시내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1월 전라남도 목포부 양동(陽洞)의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에 재학중, 동교생들과 함께 <동아일보> 등 기타 신문을 통하여 워싱턴회의가 개최됨을 알고, "조선민족대표자도 반드시 이 회의에 참열(參列)하여 조선의 독립문제를 제출하고 그것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모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개시한다면 일반 조선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동(同) 회의에 참석하는 조선인 대표자에게 성원을 주며, 또한 일반 조선인의 독립 희망이 얼마나 절실한지 각국 전권위원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그들의 호응을 얻어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동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천귀례(千貴禮)·곽희주(郭喜主)·김나열(金羅烈)·박음전(朴陰田)·문복금(文卜今)·김연순(金蓮順)·박복술(朴福述)·주유금(朱有今)·김옥실(金玉實)·김귀남(金貴南)·김자현(金慈賢) 등 동교생 12명과 동교 기숙사 내에 집합하여 위와 같은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그 방법으로 다음날인 14일 정오 오후(午砲)를 신호로 삼아 각자 대한제국기(大韓帝國旗)를 휴대하고 교문을 나와 목포 시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동 13일 동 기숙사에서 함께 국기 수 십 매를 제작한 뒤, 14일 오전 수업 종료 후 학생과 교사 등이 휴식 중인 정오에 오후를 신호로 20명 모두가 국기를 손에 들고 동교 정문을 나왔다. 이 가운데 11명은 각자 휴대한 국기를 휘두르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동교 정문으로부터 남교동(南橋洞)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를 본 수 명의 학생들은 동교 내에 떨어져 있는 국기를 주워서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남교동에서 동부 죽동(竹洞)을 거쳐 창평정(昌平町)·대정정(大正町)을 행진하였다. 만세 시위를 본 학생들은 동교 내에서 국기를 찾아 그것을 휴대하고 동교 뒷문을 나와 십 수명이 일단이 되어 각자 휴대한 국기를 흔들거나 혹은 손을 들어 모두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연호하면서 대성동(大成洞) 방면을 행진하였다.

1922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件)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 통산 50일)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7월 2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도신(李道信)
생몰년도 : 1902. 2. 21 ~ 1925. 9. 30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12월 서울 종묘 앞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서울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견습(見習)으로 재직 중 1919년 12월 2일 훈정동(薰井洞) 대묘(大廟)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 간호사 김효순(金孝順)·노순경(盧順敬)·박덕혜(朴德蕙)과 함께 참여하였다. 저녁 7시경 노순경은 태극기를, 김효순은 붉은 글씨로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기를 휘저으며 독립만세를 독려하였고, 이도신은 시위 군중 20여 명과 함께 만세를 불렀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되어 1919년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명시(李明施)
생몰년도 : 1902. 2. 2 ~ 1974. 7. 7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0)

부산(釜山) 일신여학교(日新女學校)와 좌천동(左川洞)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2~3일경 기독교 계통의 인사들을 통하여 독립선언서가 부산,마산에 비밀리에 배부되었다. 또 이때 서울로부터 학생 대표가 내려와 경성학생단(京城學生團) 이름으로 부산상업학교,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 대표들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만세운동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일신여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는 거사를 준비하였다. 이때 일신여학교에서는 이명시가 연락을 담당하였다. 3월 11일 새벽 일신여학교 기숙사 주변을 비롯한 각처에는 격문이 뿌려졌으며, 3월 11일 오후 9시 이명시를 비롯한 고등과 학생 11명은 교사 주경애,박시연과 더불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일본 군경이 대거 출동하여 여학생 전원과 여교사 2명을 붙잡아 부산진(釜山鎭) 주재소로 넘겼다. 이때 체포된 이명시는 1919년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을 받고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벽도(李碧桃)
생몰년도 : 1903. 10. 14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0)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기생들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1919년 2월 말, 김성일(金聖日, 예명 月姬)과 문응순(文應順, 예명 月仙)은 고종의 인산(因山)을 봉도하기 위해 상경하여 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해주로 돌아왔다.

3월 10일 해주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수수방관할 수 없었던 문응순은 3월 하순, 김성일, 김용성(金用性, 海中月), 문재민(文載敏, 예명 馨姬), 옥운경(玉雲瓊, 예명 彩珠) 등과 거사를 논의한 후 4월 1일 이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김성일과 문응순이 직접 한글로 독립선언서를 지어 5천장을 인쇄하는 한편, 태극기를 손수 제작하여 준비를 마쳤다.

4월 1일 오후 2시경 이벽도는 문응순 등 해주 기생들과 함께 남문 쪽을 향해 나가며 태극기를 흔들고 전단을 뿌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료 기생들을 비롯한 군중들이 모여 들어 행렬은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 행렬은 재판소를 거쳐 동문으로 들어와 다시 종로로 향하였다. 이때 출동한 일제 경찰에 의해 문응순 등 주동자 5명은 붙잡혀 종로경찰서로 끌려갔다. 이들은 종로경찰서 앞에 이르자, 돌을 집어 유리창을 부수는 한편, 다시 만세를 부르는 의기를 보였다. 경찰서에서 이들은 심한 악형으로 온 몸에 멍이 들고,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일로 체포된 이벽도는 1919년 6월 28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병희(李丙禧) 생몰년도 : 1918. 1. 14 ~ 2012. 8. 02 포상훈격 : 애족장(1996)
------	---

서울 사람이다.

1936년 서울 종연방적주식회사(鍾淵紡績株式會社)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였고, 1938년 북경(北京)으로 망명하여 이육사(李陸史) 등 의열단원(義烈團員)의 연락활동을 지원하였다.

장진홍 의사의 대구 조선은행 폭탄투척의거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바 있는 부친 이경식(李京植)의 민족의식을 이어받은 그는 동덕여자보통학교(同德女子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33년 5월 경성 신설동(新設洞) 종연방적주식회사의 여공으로 근무하며 항일활동에 나섰다.

1936년 그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김희성(金熙星)·박인선(朴仁善) 등과 여성동지들을 규합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는 2년 4월 여의 옥고를 치른 끝에 1939년 4월 1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는 1939년 4월 출옥하자, 1940년 북경으로 망명하여 의열단에 가입하고, 동지 박시목(朴時穆)·박봉필(朴鳳弼) 등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연락책을 맡았다. 그러던 1943년 그는 국내에서 북경으로 망명 온 이육사(李陸史)와 독립운동을 협의하던 중, 이해 9월 일경에 피체되어 북경감옥에 구금되었다. 그리고 잠시 국내로 잠입하였던 이육사도 피체되어 북경감옥에 함께 구금되고 말았다.

그는 1944년 1월 11일 결혼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으나, 이육사는 같은 해 1월 16일 옥중에서 순국하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이육사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품을 정리하여 국내의 유족에게 전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이살눔(李살눔)
생몰년도 : 1886. 8. 7 ~ 1948. 8. 13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2)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성서학교(聖書學校) 학생으로 김포군 월곶면(月串面) 고양리(高陽里)에서 성태영(成泰永)·백일환(白日煥)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3월 22일 군하리(郡下里) 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시위군중에게 태극기를 배부해 주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행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7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8월 1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석담(李石潭)
생몰년도 : 1859 ~ 1930. 5
포상훈격 : 애족장(1991)

황해 평산(平山) 사람이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체결로 전국 각지에서 항일의병이 봉기할 당시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의 명문 부녀자로서 의병장 조맹선(趙孟善)·이진용(李鎭龍) 휘하의 부하 의병들을 자신의 집에 은닉하고 숙식을 제공하였으며 자신의 소유 전답을 매도하여 그 전액을 의병들의 군자금으로 제공하였다.

1919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일제가 주는 소위 은사금(恩賜金)을 거부하며 항일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선경(李善卿)
생몰년도 : 1902. 05. 25 ~ 1921. 04. 21
포상훈격 : 애국장(2012)

이명 : 李愛基

1920년 6월 경기도 수원군(水原郡)에서 구국민단(救國民團)을 결성하여 구제 부장(救濟部長)에 선임되어 회원을 모집하였고, 대한민보(大韓民報) 등의 배포에 관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동년 8월 상해로 망명을 시도하다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1919년 3월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종로경찰서(鍾路警察署)에 15일간 구류를 당하였다.

1920년 6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 3학년 재학 중 경기도 수원 서호(西湖) 부근에서, 수원 삼일여학교(三一女學校) 교사 차인재(車仁載)의 소개로 임순남(林順男,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2년생)·최문순(崔文順, 이화여자고등 보통학교 2년생) 등과 함께, "제1. 일한합병에 반대하여 조선을 일본제국 통치하에서 이탈케 하여 독립국가를 조직할 것, 제2. 독립운동을 하다가 입감되어 있는 사람의 유족을 구조할 것"의 2대 목표를 표방하는 비밀결사 구국민단(일명 : 血復團)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이후 동년 7월경까지 수원 읍내 삼일학교에서 구국민단 부단장 이득수(李得壽) 등과 수차례 회합하여 <대한민보>·<독립신문(獨立新聞)> 등의 배포를 담당하기로 서약하고, 또 기회를 보아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됨으로써 독립운동을 도울 것을 맹서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기 위하여 동년 8월 9일 수원을 출발하여 상해로 향하다가 경성에서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1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件)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성례(李聖禮)
생몰년도 : 1884 ~ 1963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5)

1920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에서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 4월경 대한여자애국단 맥스웰지부 단장, 1930년 동단 로스앤젤레스지부(羅城地方會) 부단장, 1931년 재무, 1937년, 1940년, 1944년 위원, 1938~1939년, 1942년, 1945년 단장을 역임하였다.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지방회에서는 1934년과 1935년 구제원, 1936년 7월 흥사단(興士團) 제23대회 제2구역 로스앤젤레스지방대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2년과 1944년, 1945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에 애국단 대표로 참석하였다.

1945년 1월 광복운동을 위한 군사공작을 촉진할 목적으로 개최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강화회에 참석하여 단체 합동과 집행부 강화에 찬성하였다.

1923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성완(李誠完)
생몰년도 : 1900. 12. 10 ~ 1996. 4. 4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함남 정평(定平) 사람이다.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에 재학 중이던 그는 3·1독립운동 당시 함남 원산(元山)의 상동교회(上洞教會)와 함흥여고(咸興女高)의 동지들을 방문하여 독립선언서·지령문 등을 인쇄·배포하며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으나 면소처분으로 풀려났다.

그는 1919년 4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에 가입·활동하였다.

동회는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투옥지사들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들의 후원활동을 했는데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로 확대·개편되었다.

동회는 이후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그는 백신영(白信永)과 함께 결사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동회는 본부와 지부를 통해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역할을 대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는 1919년 11월 일경에 피체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면소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이소선(李小先)
생몰년도 : 1900. 9. 9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8)

이소선은 기생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2일 오전 10시 경 경남 통영군 통영면 길야정(吉野町) 기생조합소(妓生組合所)에서 정막래(丁莫來) 외 5명의 기생과 함께 기생단을 조직하였다. 그는 일행과 함께 자신의 금반지를 팔아서 마련한 장례용 옷으로 갈아입고, 동일 오후 3시 반 경 통영면 부도정(敷島町)에 나가서 수천명의 시위대와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소선은 시위 직후 체포되어 1919년 4월 18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르고 1919년 10월 1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소제(李少悌)
생몰년도 : 1875. 11. 7 ~ 1919. 4. 1
포상훈격 : 애국장(1991)

충청남도 천안(天安) 사람으로 유관순(柳寬順)의 어머니이다.

1919년 4월 1일 갈전면(葛田面) 아우내(川) 장터에서 전개된 대대적인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오후 1시경 3,000여명의 시위군중 앞에서 조인원(趙仁元)이 태극기와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장터는 독립만세소리로 온 천지가 진동하였다. 이때 그녀는 남편 유중권(柳重權), 딸 유관순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군중에 휩싸여 헌병주재소로 달려가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포악 무도한 일본 경찰이 주재소에서 난사한 기총과,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총검에 맞아, 남편과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소희(李昭姬)
생몰년도 : 1886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6)

1919년 3월 강원도 철원군(鐵原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10일 철원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운동은 철원 지역 학교 학생들과 예수교회 교인,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하였다. 오후 3시경 학생들이 먼저 시위를 벌였고, 군민들이 이끄는 시위대는 오후 4시경에 합류하였다. 시위 군중이 철원군청에 모였을 때는 500명을 헤아렸다. 군청 안팎에서 만세시위를 벌이던 군중은 날이 어두워지자 월하리(月下里)에 있는 친일파 박의병(朴義秉)의 집으로 가서 시위를 이어갔다.
이튿날인 3월 11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으며, 서문거리에 모였던 군중은 철원역으로 행진하여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날도 이소희는 태극기를 휘두르며 700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의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이소희는 이른바 소요죄(騷擾罪)로 징역 3월, 벌금 20원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숙진(李淑珍)
생몰년도 : 1900. 9. 24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7)

1939년 中國 綦江에서 韓國國民黨 黨員, 1940년 6월 重慶에서 韓國革命女性同盟 창립에 참여하고, 1944년 3월 重慶에서 韓國獨立黨 黨員으로 활동함.

성 명 : 이순승(李順承)
생몰년도 : 1902. 11. 12 ~ 1994. 1. 15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1923년 중국 상해(上海)로 망명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에서 활동하던 조용원(趙鏞元 : 時元)과 결혼하여 그를 내조하면서 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 1930년 국내에서 군자금모집을 위하여 활동을 전개하다가 인천(仁川)에서 일경에게 피체되어 20일간 구류되었다고 한다. 그 후 1940년 6월 17일 중국 중경(重慶)에서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의 조직 결성에 참여하여 한국여성에게 민족혁명정신을 고취하였다.

동년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창립위원이 되었고 이듬해인 1941년에는 한국독립당의 중경강북구당(重慶江北區黨)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1943년 3월 한국애국부인회(韓國愛國婦人會)의 재건에 참여하여 이의 집행위원이 되어 전체부녀자의 각성과 단결을 도모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1944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옹호정당인 한국독립당원으로서 중경지구에서 활동하던 중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이신애(李信愛)
생몰년도 : 1891. 1. 20 ~ 1982. 9. 27
포상훈격 : 독립장(1963)

평북 구성(龜城) 사람이다.

그녀는 1913년 개성(開城)의 호수둔여학교(好壽敦女學校)를 졸업한 뒤 원산(元山)의 성경여학교(聖經女學校)를 거쳐 기독교 전도사가 되었고 3·1독립운동 때 서울에서 만세시위에 적극 참가했다.

1919년 9월 강우규(姜宇奎)가 조선 총독 재등실(齋藤實)을 처단하기 위해 서울에 왔을 때에는 한기동(韓基東)과 함께 강우규를 수차에 걸쳐 방문하여 거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동년 10월 초순에는 한기동의 권유에 의해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하고, 동단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의 활동을 폈다.

전 조선민족의 대단결을 표방하고 1919년 3월 말 전 협(全協)?최익환(崔益煥) 등이 결성한 대동단은 동년 10월 초순경 동단의 본부를 상해(上海)로 이전할 계획 아래 의친왕(義親王)의 상해(上海) 망명과 독립만세시위를 추진했다.

3·1독립운동과 같은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목적으로, 이들은 거사 내용과 방법도 3·1독립운동의 방식을 좇아 진행시켰는데, 이때 이신애는 여성대표의 자격으로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로 서명하는 한편 박정선(朴貞善)·한일호(韓逸浩) 등 여성대표를 포섭했고 또 김상열(金商說)·김익하(金益夏) 등 다수의 인사를 동단에 가입시켰다. 그런데 거사를 준비하던 중 의친왕(義親王)의 상해 망명이 일경에 사전 탐지되어 동년 11월 11일 의친왕 일행이 만주 안동역(安東驛)에서 피체됨으로써 대동단의 조직은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의 포위망을 피한 그녀는 나머지 인사들과 함께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강행?추진해갔다.

그리하여 동년 11월 28일 그녀를 비롯한 정규식(鄭奎植)·박정선·나창헌(羅昌憲) 등 열혈 인사들은 종로 안국동(安國洞) 광장에서 준비해 온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살포하면서 독립만세를 드높게 외쳤다. 만세시위 직후 현장에서 피체된 그녀는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아수(李娥洙)
생몰년도 : 1898. 7. 16 ~ 1968. 9. 11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5)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녀는 당시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 3년생으로 3월 1일 학생단의 대규모 만세시위가 있던 뒤, 3월 5일 제 2차 시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찬동하여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개된 남대문역 부근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녀는 남대문역에서 학생 및 시민으로 구성된 대규모 시위대에 합류하여 독립기를 내세우고 적포(赤布)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시위군중과 함께 만세를 연호하며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과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애라(李愛羅)
생몰년도 : 1894. 1. 7 ~ 1922. 9. 4
포상훈격 : 독립장(1962)

충남 아산(牙山) 출신이다.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영명여학교 교감 이규갑(李奎甲)과 결혼 후 공주 영명학교(永明學校)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다.

1917년 평양의 정의(正義)여학교에 전근되어 근무하던 중, 3·1독립만세시위에 가담하였다가 평양서에 구금되기도 하였다. 남편을 돕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그는 한남수(韓南洙)·김사국(金思國)·홍면희(洪冕熹)·이규갑(李奎甲) 등이 비밀히 연락 회합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국민대회를 소집하는데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어린애를 업고 동부서주하였는데, 아현동(阿峴洞)에서 일 헌병에게 몸수색을 당하게 되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애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뛰쳐 달아나는 등 눈물겨운 일화를 남겼다.

이 아기는 애처롭게 사망하였는데 애국부인회에서 장사를 지내었다고 한다.

남편을 쫓아 만주 간도로 건너갔던 그는 국내에 연락차 도문(圖們)을 거쳐 입국하다가 함북 웅기(雄基)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옥진(李玉珍)
생몰년도 : 1923. 10. 18 ~ 2003. 9. 4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68)

1941年 臨政義勇隊 및 光復軍 第1支隊 幹部로서 활약중 上海, 南京, 重慶 등지로서 광복군 초모공작 선전 공작에 활약 중 1945년 해방을 맞이함. (韓國獨立史 p 338, 777)

성 명 : 이월봉(李月峰)
생몰년도 : 1915. 2. 15 ~ 1977. 10. 28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황해도 황주(黃州) 여성이다.

중국 중앙전시간부훈련 제4단 특과총대학원대 한청반(韓靑班)에서 군사훈련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 후 서안(西安)에 있는 광복군 제2지대에 편입하여 항일활동을 벌이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의순(李義旻)
생몰년도 : 1895 ~ 1945. 5. 8
포상훈격 : 애국장(1995)

함남 단천(端川) 사람이다.

이동휘(李東輝)의 차녀이며 남편은 상해지역의 독립운동가 오영선(吳永善)이다.

1902년경 부친이 경기도 강화도(江華島) 진위대장으로 활동하게 되자 할아버지 이발(李發), 언니 인순(仁旻) 등과 함께 7세의 나이에 서울로 이사와 성장했다.

1911년 가을, 서울을 떠나 성진(城津)에서 살다가 부친이 만주로 망명하자 부친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 국자가(局子街)로 이주하였다.

동년 화룡현(和龍縣) 명동촌(明東村)에 있는 민족학교인 명동학교의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 후 근방의 마을마다 야학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부흥사경회(復興查經會)도 개최하여 이를 계기로 1919년 명동여학교를 병설하는 등, 간도지역 여성 민족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1918년 가을에는 부친의 지시에 따라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한 그녀는 그곳 신한촌(新韓村) 삼일여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면서 당시 이곳의 애국지사 채성하(蔡聖河)의 딸 채계복(蔡啓福)과 같이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10월 당시 회원은 50명이었다. 한편 그녀는 미래 독립전쟁에서 활동할 간호부의 양성을 위하여 적십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1919년 부친이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자 이의순은 1920년 할아버지 이발과 상해로 이주하였으며, 그곳에서 오영선과 결혼하였다. 그 후 이동휘가 임시정부와 결별하고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오게 될 무렵 그녀는 상해에 계속 남아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0년 8월 11일 이의순은 인성학교(仁成學校) 교장 김두봉(金斗奉)의 처 조봉원(趙奉元) 등과 함께 기존의 여성단체 조직인 상해한인부인회를 개조하여 보다 급진적인 조직인 상해한인여성동맹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상해지역 여성조직의 분열을 가져오는 점이 있어 김구(金九) 등의 중재로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상해여자청년회를 조직하였는데 이 때 창립대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이역 땅에서 작고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인순(李仁旻)
생몰년도 : 1893 ~ 1919. 11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함남 단천(端川) 사람이다.

이동휘(李東輝)의 장녀로서 1902년경 부친이 경기도 강화도(江華島) 진위대장으로 활동하게 되자 할아버지 이발(李發), 동생 의순(義旻) 등과 함께 서울로 이사와 성장했다.

1906년 부친 이동휘가 강화보창여소학교(江華普昌女小學校)를 설립하자 이 학교에 입학 졸업하였고, 한성연동정신학교(漢城連洞貞信學校)를 졸업한 후 17세의 나이로 함흥(咸興), 성진(城津)에서 교사로 활동하였다. 1912년에는 가족이 모두 북간도 국자가(局子街)로 이주하자 그곳에서 조선여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아울러 그녀는 여성교육에 힘쓰면서 이동휘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고, 여성계의 개조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1918년 가을 가족들이 이동휘의 지시로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 정착하게 되자, 그녀 역시 남편 정창빈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하였으며, 이곳에서 경제적으로 이동휘를 돕기 위하여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19년 11월 장티푸스로 27세의 젊은 나이에 작고하였다.

1920년 1월 17일 오후 2시 주상해(駐上海) 대한애국부인회 주최로 작고한 이인순과 하란사(河蘭史)·김경희(金敬喜) 등의 추도회가 강령리(康寧里) 민단(民團)사무소 내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내빈으로 안창호(安昌浩)·김립(金立)·윤현진(尹顯振) 등 상해 유지인사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정숙(李貞淑)
생몰년도 : 1896. 3. 9 ~ 1950. 7. 22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함남 북청(北靑) 사람이다.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으로 있던 그녀는 1919년 3월 중순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 자매와 함께 정신여학교 학생과 지식여성들을 규합하여 투옥지사들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들을 후원할 목적으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이후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활동을 펴던 중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徹)의 주선으로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주도·조직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로 확대·개편되었다.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총재에는 오현관, 회장은 오현주가 선임되었으며 그녀는 경성지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동회는 이후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는 등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고,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임시정부 국내연통부(聯通府)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군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또한 동회는 본부와 지부를 통해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정숙은 적십자장(赤十字長)을 맡아 이를 주도하였다. 그러던 중 그녀는 1919년 11월 일경에 피체되어 1920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녀는 1925년 2월 21일에 조직된 경성여자청년회(京城女子靑年會)의 초대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항일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태옥(李泰玉)
생몰년도 : 1902. 10. 15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6)

1919년 3월 전남 광주군(光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수피아여학교(須比亞女學校)에 재학 중, 3월 10일 광주 시장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수피아여학교·송일학교(崇一學校) 등 광주 지역 학생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군민들이 함께 전개하였다.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의 참여는 교사 박애순(朴愛順)·진신애(陳信愛) 등이 맡았다. 이태옥은 이들의 인솔 아래 박영자(朴永子)·홍순남(洪順南)·최경애(崔敬愛) 등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광주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 같은 해 8월 1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이헌경(李憲卿)
생몰년도 : 1870 ~ 1956. 1. 30
포상훈격 : 애족장(2017)

1940年 6月 17日 中國 重慶에서 韓國革命女性同盟 창립에 참여했으며, 1943年 韓國獨立黨 당원으로 활동함.

<사진>

성 명 : 이해경(李惠卿)
생몰년도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함남 원산(元山) 사람이다.

진성여학교 교사로 있던 그는 1919년 비밀결사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는 1919년 3~4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 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최숙자(崔淑子)·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이 중심이 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가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青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통합하여 결성되었다.

이후 동회는 기독교회·병원·학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그녀는 부회장에 선임되어 동회의 취지와 본부규칙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동회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본부와 지부를 통해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해련(李惠鍊)

생몰년도 : 1884. 4. 21 ~ 1969. 4. 21

포상훈격 : 애족장(2008)

이혜련은 평남 강서군에서 서당 훈장인 이석관(李錫觀)의 장녀로 출생하였다.

서울의 정신여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고, 그후 1902년 9월 3일 만 18세 때 서울 제중원에서 도산(島山) 안창호(安昌鎬)와 결혼하였다. 결혼 직후 이해련은 안창호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남편 안창호를 도와 공립협회를 결성하여 미주지역 한인사회를 지도하는 한편 국권회복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안창호는 1909년 2월 미본토의 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한인합성협회를 합동하여 국민회를 창설하여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으로 만들었다.

이시기 이해련은 남편 도산 안창호가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다. 일제에 강점된 이후에도 안창호는 미국과 중국·러시아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아내인 이해련은 도산이 조직한 대한국민회를 지원하기 지속적으로 의연금, 국민의무금, 특별의연금 등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19년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도산은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3·1운동의 발발 소식에 접한 미주지역 한인들은 미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국내외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으며 미국민과 미국정부에 우리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미주지역의 부인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 하와이에서는 1919년 4월 1일 대한부인구제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였으며 미본토에서도 여성들의 단체가 새롭게 결성되었다.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이해련은 부인친애회를 조직하여 독립의연금 모금에 솔선수범하였다. 당시 부인친애회에서는 한 주일에 2일(화, 금요일)은 고기없는[meatless] 날, 한 주일에 하루(수요일)는 간장없는[kanchangless] 날로 정하여 3·1운동으로 인해 고국에서 고통받는 동포들과 함께 하고자 하였다. 한편, 북미주 지역의 새크라멘토의 한인부인회와 다뉴바의 신한부인회는 1919년 5월 18일 북미 지역 부인회를 통합하기 위한 통고문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8월 2일 각지의 부인 대표자들이 다뉴바에 모여 발기대회를 열고 합동을 결의하였다. 이때 참석한 부인회는 다뉴바의 신한부인회, 로스앤젤레스의 부인친애회, 새크라멘토의 한인부인회, 샌프란시스코의 한국부인회, 윌로우스의 지방부인회 등으로 대표들이 참석하여 대한여자애국단을 결성하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 부인친애회 대표로는 이해련을 비롯하여 임매불·박순애·김혜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와 같이 북미주의 4개 지방 부인단체들이 국민회 중앙총회에 청원하여 1919년 8월 5일 정식으로 대한여자애국단이 결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후 이해련은 대한여자애국단을 중심으로 국민의무금, 21레, 국민회보조금, 특별의연금 등의 모금을 주도하였고, 미국적십자사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러나 1932년 중국 상해에서 윤봉길의 투탄의거 직후 남편 안창호가 일제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같은 불행에도 불구하고 이해련은 1933년 5월 9일 대한여자애국단 총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할 때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 옥중에 있던 안창호는 부인 이해련에게 편지로나마 위안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1937년 3월 대한국민회가 로스앤젤레스에 총회관을 건립하면서 이해련을 중심으로 한 여자애국단에서도 재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었다. 당시 이해련은 대한여자애국단원의 일원으로 중일전쟁 재난민과 부상병들을 돕기 위하여 약품과 붕대를 모집하였다. 그럴 즈음 일제는 안창호를 또 다시 체포하여 서대문형무소로 이송시켰다. 그러나 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경성제국대학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1938년 3월 10일 불행히도 순국(殉國)하고 말았다.

이처럼 남편인 도산이 순국하였음에도 이해련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여자애국단을 통한 항일전에 참여하였다. 여자애국단에서는 중국 난민구제를 위해 구제금으로 78달러를 거두어 송미령(宋美齡)에게 보냈으며, 또 송미령의 요청으로 1939년 12월 76달러를 송금하였다. 도산 안창호와 이해련 사이에는 장남 필립, 차남 필선, 삼남 필영, 장녀 수산, 차녀 수라를 두었다. 이들 자녀들도 일제가 진주만을 기습공격한 이후 항일전에 당당히 참여하였다. 이해련의 자녀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국방에 협조하기 위해 장남 안필립과 안필선은 민병대에 입대하였다. 조국이 독립된 이후인 1946년 1월 6일 로스앤젤레스 대한국민회 총회관에서 신년도 대한여자애국단 총회가 개최되어 이해련이 총단장으로 선출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고국과 동포들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다가 86세 생일인 1969년 4월 21일 영면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혜수(李惠受)
생몰년도 : 1891. 10. 2 ~ 1961. 2. 7
포상훈격 : 애국장(1990)

서울 사람이다.

그는 1919년 김마리아·신의경(辛義卿) 등과 함께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를 조직하고 상해(上海)의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와 연결,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에 헌납하는 한편 애국지사(愛國志士) 들의 비밀연락을 맡아 활동하였다.

1921년에는 김상옥(金相玉)이 윤익중(尹益重) 등과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고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행하여 친일매국노를 처단하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하자, 주요 회의장소를 제공하고 숙소 및 의류·자금 등을 공급하며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1922년 12월, 김상옥이 상해로부터 무기 등을 반입하자 김상옥을 자신의 집에 피신시키고, 비밀연락과 제반 편의를 제공하였다.

1923년 1월에는 윤익중(尹益重)으로부터 독립운동자금 100원을 받아 김상옥에게 전해 주었으며, 같은 해 1월 12일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18일 효제동 자택으로 찾아오자 김상옥을 나홀동안 은닉시켰다. 이어 22일 새벽 일경 수백명이 효제동 일대와 그의 집을 겹겹이 포위를 하고 집안으로 진입하자 김상옥은 양손에 권총을 들고 3시간 동안 일경과 격전을 벌인 끝에 마지막 총탄으로 자결하였다.

그는 김상옥의 거사로 인해 온가족과 함께 일경에게 끌려가 잔혹한 고문을 받았으며, 1923년 12월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화숙(李華淑)
생몰년도 : 1893 ~ 1978
포상훈격 : 애족장(1995)

이명: Dorothy Ye-Dorothy Lee

서울 사람이다.

1919년 한성 임시정부 성립시 작성된 공약 삼장의 대한민족대표(大韓民族代表) 30명 중 한 사람으로 참가한 뒤, 중국상해로 망명하였다.

1919년 7월 상해의 장빈로(長濱路) 애인리(愛仁里)에서 조직된 임시정부 후원단체인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의 상의원(常議員)으로 선출되었으며, 9월에는 임시정부 국무원(國務院) 참사(參事)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동년 10월에는 상해 불란서 조계(租界) 보창로(寶昌路)에서 임시정부 후원을 목적으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과 동포 구원활동을 펼쳤다.

1920년 임시정부의 외곽후원단체인 민단(民團)의 상의원으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도항하였으며, 미국에서 정순만(鄭淳萬)의 아들인 정양필(鄭良弼)과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출연하는 등 광복이 될 때까지 조국독립을 위한 후원활동에 전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효덕(李孝德)
생몰년도 : 1895. 1. 24 ~ 1978. 9. 1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2)

평남 용강(龍岡)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당시 평양(平壤) 양무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를 만들고 학생 200여명과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 양무학교장의 선창에 따라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내로 행진시위를 하면서 주민들을 규합, 경찰주재소까지 행진을 하였고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9월 2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이효정(李孝貞)
생몰년도 : 1913. 7. 28 ~ 2010. 8. 14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6)

1930년대 초 서울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효정은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 만세를 부르고 종로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으며, 3학년 때는 시험을 거부하는 백지동맹을 주도해 무기정학을 당했다. 졸업 후에는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1933년 9월 21일, 종연방직[鐘紡] 경성제사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그녀는 이재유(李載裕)의 지도를 받아 여직공을 선동하여 총파업을 지도하였다.

노동쟁의의 확대를 꾀해 공장 내 조직의 확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적색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계획 하에 파업을 선동하였던 것이다.

종방 파업 이후 1933년 10월 17일 청량리에서 동대문경찰서 고등계 형사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1935년 11월, 이효정은 서울에서 이재유·권우성(權又成) 등이 주도 조직한 '경성지방좌익노동조합 조직준비회'에 가담하여 동지 규합과 항일의식 고취에 주력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약 13개월 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녀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이희경(李희경)
생몰년도 : 1894. 1. 8 ~ 1947. 6. 26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2)

경북 대구(大邱)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창립된 하와이 부인단체의 통일기관인 대한부인구제회(大韓婦人救濟會)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전쟁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집·제공하였으며, 애국지사 가족들에게 구제금을 송금하는 등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그후 1928년 영남(嶺南) 출신 이극로(李克魯)가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던 길에 하와이에 체류하여 국어강연을 할 당시, 이승만(李承晩)이 이극로를 폄하하면서 영남지역 멸시 발언을 하자, 경상도 출신 부인들과 함께 대한부인구제회를 탈퇴하였다.

탈퇴후 1928년 9월 27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김보배·박금우·곽명숙·박정숙·이양순 등과 함께 영남부인회(嶺南婦人會)를 조직하였다가 후일 영남부인실업동맹회(嶺南婦人實業同盟會)로 개칭하여 회장을 역임하면서 15년간 한인부인사회의 발전과 독립운동 후원, 재미한인사회의 구제사업 활동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독립금과 중경특파원(重慶特派員) 경비, 의연금, 부인구제회 의무금, 혈성금, 중국 구제금, 승전후원금, 군사금 등의 각종 의연금과 군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1940년대 초반에는 부인구제회(婦人救濟會) 호놀룰루지방회 대표로서 부인구제회 승전후원금 모집위원, 부인구제회 사료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의 회원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수백여 원의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헌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임경애(林敬愛)
생몰년도 : 1911. 3. 10 ~ 2004. 2. 12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4)

1930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의 동조시위를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이후 1941년 평양에서 일어난 '만국부인기도회(萬國婦人祈禱會) 사건'에 연루되어 신문을 받았다.

1929년 11월 일어난 광주학생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1930년 1월 15일 이화여고보 교정에서 최복순(崔福順) 등 3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0년 3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941년 당시 태평양전쟁 시국(時局)을 활용하여, 반일·반전의식이 담긴 '만국부인기도회순서'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배포하다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이른바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朝鮮不穩文書臨時取締令) 위반으로 송치되어 평양지방법원에서 신문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임메불(林메불)
생몰년도 : 1886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6)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인친애회(婦人親愛會) 대표,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로스앤젤레스지부(羅城支部) 단장, 대한여자애국단 총단 총단장, 로스앤젤레스여자청년회 재무,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로스앤젤레스지방회(羅城地方會) 구제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19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부인친애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8월 미주 각 지방 부인회가 통합되어 대한여자애국단이 창립될 때, 부인친애회 대표로 참가하였다. 이후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에서 활동하였다.

1929년 12월부터 1930년 1월까지 한인 아동의 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준비 기성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930년 3월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단장으로 조선여자대학 설립에 필요한 건축비 모금운동을 하였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여자청년회(羅城女子青年會) 재무, 1936년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단장, 1937년 동 지부 위원으로 활동하고, 같은 해 8월 중국항일전쟁 동정금 모집 수전위원(收錢委員)으로 110달러를 모금하여 후원하였다.

1938년 대한여자애국단 동 지부 위원과 로스앤젤레스여자청년회 재무, 1939년 여자청년회 구제원으로 선임되었다.

1940년 대한여자애국단 총부 위원, 1940년과 1941년 동 지부 단장으로 선출되어 대한인국민회 창립기념식 등에서 축사를 낭독하였다.

1942년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지방회 구제위원, 같은 해 2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 집행부 주최 3·1절 경축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3~1945년 대한여자애국단 총단 총단장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09년부터 1945년까지 광주학생운동 후원금, 임시정부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으로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임명애(林明愛)
생몰년도 : 1886. 3. 25 ~ 1938. 8. 28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기도 파주(坡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26일 김수덕(金守德)·김선명(金善明)·염규호(廉圭浩) 등과 와석면(瓦石面) 일대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구세군(救世軍)으로서 3월 10일 교하리(交河里)에 있는 공립보통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 1백여 명을 동원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고, 3월 25일 김수덕·김선명 등과 함께 염규호의 집에서 염규호가 초고한, 3월 28일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 할테니 모두 동리산으로 모이라는 내용의 격문 60여 매를 인쇄하였다. 이에 격문을 김선명·염규호·김창실(金昌實)과 나누어 주어 구당리(九堂里)·당하리(堂下里) 일대의 주민에게 배포케 하였다.

그리고 3월 26일에 7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그는 선두에 서서 이들을 지휘하여 면사무소로 가서 사무소 유리창을 깨부수고, 면서기들에게도 휴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주재소로 행진하던 중, 연락을 받고 미리 대비하고 있던 일본 경찰의 발포로 최홍주(崔鴻柱)가 현장에서 순국하고 시위군중은 해산되었다.

그는 결국 체포되어, 이 해 6월 3일 소위 보안법·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임봉선(林鳳善)
생몰년도 : 1897. 10. 10 ~ 1923. 2. 10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상북도 칠곡(漆谷) 사람이다.

1919년 3월 8일의 대구(大邱) 서문외(西門外)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곳은 2월 24일 경상도 독립만세운동의 연락책임자였던 이갑성(李甲成)이 대구에 내려와, 제일교회에서 기독교계의 유지 이만집(李萬集)·이상백(李相柏)·백남채(白南埰) 등과 만나 국내외의 정세를 설명하고, 3월 2일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학생인 이용상(李容祥)을 통하여 2백여매의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면서부터 독립만세운동이 계획되었다.

당시 신명여학교(信明女學校) 여교사인 그녀는 이 계획에 찬성하였는데, 마침 자기를 찾아온 김무생(金武生)·박제원(朴齊元)으로부터 서울과 평양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 때의 여성의 활약상을 전해듣고,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한편 계성중학교(啓聖中學校)·대구고보(大邱高普)·성경학교(聖經學校) 학생들과도 연락을 취하여 3월 8일의 서문외 장날을 이용하여 연합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3월 8일 오후 3시경, 그녀는 50여명의 신명여학교 학생들을 인솔하고 시장에 나아가, 1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시가지를 행진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시위군중과 함께 경찰서 앞의 제지선을 뚫고 중앙파출소를 돌아 달성군청(達城郡廳)앞의 삼각지에 이르렀을 때, 6대의 기관총을 설치해 놓고 대기중이던 일본군 80연대와 대치하게 되어 부득이 행진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일본군 헌병·경찰은 시위대열로 뛰어 들어 닥치는 대로 시위군중을 구타하며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현장에서 많은 시위군중이 체포되었는데, 그녀도 함께 체포되었으며, 이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임성실(林成實)
생몰년도 : 1882. 7. 19 ~ 1947. 8. 30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5)

1919년부터 1944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뉴바(dinuba) 신한부인회(新韓婦人會),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다뉴바 지부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1919년 3월 2일 캘리포니아주 다뉴바에서 신한부인회가 조직되자, 5월 18일 한인부인회 대표 양제현과 신한부인회 대표 강원신 등은 5개 지방 부인회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임성실은 8월 2일 다뉴바에서 개최된 부인회 합동발기대회에 한성선·이은기·이성애와 신한부인회 대표로 참석하여 합동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한여자애국단을 조직하였다.

1921년 8월 대한여자애국단 다뉴바지부 단장으로서 애국단 창립 2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같은 해 11월 11일 제1차세계대전 휴전기념식 설비위원이 되었다. 한편, 상해에서 국민대표회(國民代表會) 기성회가 조직되자, 11월 다뉴바 국민대표회 기성회를 조직하고 회원이 되었다.

1938년 11월 대한여자기독청년회 구제원, 1940년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羅城支部)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1919년부터 1944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임소녀(林小女)
생몰년도 : 1908. 9. 24 ~ 1971. 7. 9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하여 제2구대 제2분대에서 활동을 전개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임수명(任壽命)
생몰년도 : 1894. 2. 15 ~ 1924. 11. 2
포상훈격 : 애국장(1990)

충북 진천(鎭川) 사람이다.

1912년 서울 모(某)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환자로 위장하고 입원하고 있던 신파균(申八均 ; 통의부군사위원장겸 사령관)과 알게되어 1914년 결혼하였다.

그 후 북경으로 망명한 부군의 비밀문서 연락 등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1921년 밀명을 띠고 입국한 부군을 따라 만주로 가서 계속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1924년 8월 1일(음) 신파균이 통의부(統義府)사령관 소재지를 습격하는 중국 마적과 전투 중 전사하자, 귀국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동(鐘路區社稷洞) 자택에서 딸과 함께 자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임진실(林眞實)
생몰년도 : 1899. 8. 1.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5)

1919년 3월 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에 재학 중 전남 광주군(光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주에서는 장날인 3월 10일에 학생, 기독교인,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수피아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임진실은 교사 박애순(朴愛順) 등으로부터 독립만세를 부르자는 권유를 받고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3월 10일 오후 2시경 기독교인, 송실학교, 수피아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양림동 쪽에서 광주천을 따라 시위 행진을 하였다. 시위대가 우편국 앞으로 행진을 계속하자, 일제 기마 헌병대와 소방대, 재향군인회 소속 회원들까지 가세하여 강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만세시위 주도자와 시위 군중 100여 명이 붙잡히면서 해산하였다.
임진실은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고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장경례(張慶禮)
생몰년도 : 1913. 4. 6 ~ 1998. 2. 19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광주(光州) 사람이다.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중 1928년 11월에 동교생 장매성(張梅性)·고순례(高順禮)·박옥련(朴玉連)·남협협(南俠俠)·이금자(李錦子) 등과 함께 광주사범학교 뒷산에 모여 조국의 독립과 여성해방을 목적인 항일학생결사, 소녀회(少女會)를 조직하였다.

동회는 사업의 일환으로 동지포섭에 힘쓰는 한편 매월 1회 월례연구회를 통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한편 동회는 성진회(醒進會)의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광주학생의 항일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29년 6월에 결성된 독서회 중앙본부와도 연락을 갖고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동본부가 독서회원의 친목단결 및 재정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소비조합을 조직할 때 각학교 독서회 및 학생들로부터 자본금을 출자하게 했는데 이때 광주여고보에서는 소녀회가 주동이 되어 자본금 30원을 출자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소녀회가 앞장서서 부상학생을 치료, 식수공급, 돌맹이 운반 등 남학생들의 시위를 도왔다. 그 후 소녀회의 조직이 일경에 발각됨에 따라 그녀도 1930년 1월 15일에 피체되었으며,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형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장경숙(張京淑)
생몰년도 : 1903. 5. 13 ~ 1994. 12. 31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남 대동(大同) 사람이다.

광복군 제2지대 제2구대에 입대하여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복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장매성(張梅性)
생몰년도 : 1911. 6. 22 ~ 1993. 12. 14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광주(光州) 사람이다.

당시 광주지역 학생운동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장재성(張載性)의 동생인 그는 광주여고보 재학중 1928년 11월에 동교생 장경례(張慶禮)·박옥련(朴玉連)·남협협(南俠俠)·고순례(高順禮)·이금자(李錦子) 등과 함께 광주사범학교 뒷산에 모여 조국의 독립과 여성해방을 목적인 항일학생결사 소녀회(少女會)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동지포섭에 힘쓰는 한편 매월 1회 월례연구회를 통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녀는 박계남(朴繼男)·박채희(朴采熙)·박현숙(朴賢淑)·김금연(金錦) 및 김귀선(金貴善) 등을 동지로 포섭하였으며, 그녀의 집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동회는 성진회(醒進會)의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광주학생의 항일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29년 6월에 결성된 독서회중앙본부와도 연락을 갖고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동본부가 독서회원의 친목단결 및 재정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소비조합을 조직할 때 각학교 독서회 및 학생들로부터 자본금을 출자하게 했는데 이때 광주여고보에서는 소녀회가 주동이 되어 자본금 30원을 출자하였다.

그녀는 소녀회의 중심인물로 항일민족정신을 고취하다가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동회를 주도하여 가두시위 도중 다친 부상학생 치료, 식수공급, 돌맹이운반 등 남학생들의 가두시위를 도왔다.

그 후 소녀회의 조직이 발각됨에 따라 그녀도 1930년 1월 15일에 피체되었으며,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형을 언도받았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장선희(張善禧)
생몰년도 : 1893. 2. 19 ~ 1970. 8. 28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황해도 재령(載寧)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서울 정신여학교(眞信女學校) 교사로 근무하던 그녀는 독립선언서를 휴대하고 귀향, 독립선언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재령의 만세시위운동을 격발시켰다.

또한 그녀는 1919년 3~4월경 오현주(吳玄洲)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에 가입·활동하였다. 동회는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투옥지사들의 옥바라지와 그 가족들의 후원활동을 했는데 동년 6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 총무 이병철(李秉徹)의 주선으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로 확대·개편되었다. 이때 그녀는 동회의 외교원을 맡았다. 이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1919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고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였는데 그녀는 재무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동회는 본부와 지부를 통해 임시정부 국내연통부(聯通府)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녀는 1919년 11월 일경에 피체되어 1920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장태화(張泰燁)
생몰년도 : 1878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3)

1924년 11월 중국 길림성 연길현 용정촌에서 대동회 선전원으로 선전문을 배포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4년 10월경 길림성(吉林省) 안도현(安圖縣)에서 연두익(延斗翼) 등이 청년회를 개편하여 대동회(大同會)를 조직하고 총부(總部)를 액목현(額穆縣) 흑석둔(黑石屯)에 설치할 때 의열단(義烈團), 의용군사회(義勇軍事會), 광복단(光復團), 국민회(國民會), 독군부(督軍府) 등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대동회는 각 단체의 위원합 의제도로 운영되었다. 대동회는 창립 직후 간도 방면으로 중앙집행위원 김관(金權)을 특파하자, 장 태화는 같은 해 11월 김관 휘하에 들어가 선전원(宣傳員)으로 임명되어 길림성(吉林省) 연길현(延吉縣) 용정촌(龍井村)에서 선전문을 배포하였다.

같은 달 28일 용정촌 시내 잡화상 지남극(池南極)에게 대동회 선전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발행 독립공채권을 제시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였으며, 30일에도 용정촌 자산가 오명언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을 시도하다가 12월 17일 체포되었다.

1925년 5월 8일 소위 강도, 대정(大正)8년제령(制令)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같은 해 6월 5일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일제 말기에는 국내 함남 북청(北靑), 갑산(甲山), 혜산(惠山)을 근거지로 삼고 이영대, 김해산, 조두희, 박창건, 이우영, 이정섭, 박인진, 주동림 등과 연결되어 활동했다. 간도에서는 천도교 용정종리원을 근거로 하여 활동하면서 안 도현 일대의 독립운동단체와의 연락, 국내에서 군자금 모집후 독립운동단체로 의 송금, 무기 보관과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전수산(田壽山)
생몰년도 : 1894. 5. 23 ~ 1969. 6. 19
포상훈격 : 건국포장(2002)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미국 하와이로 이민하여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어 공채를 발행하자 미화 15불 상당의 공채를 매입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고, 1919년 4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창립된 하와이 부인단체의 통일기관인 대한부인구제회(大韓婦人救濟會)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권회복운동과 독립전쟁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집·제공하였으며, 애국지사 가족들에게 구제금을 송금하는 등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1930년대에는 이승만(李承晩)이 결성한 동지회(同志會)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승만을 후원하였으며, 1942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인부인구제회(大韓人婦人救濟會; Korean Women's Reliefs Society)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중국 중경(重慶)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와 이승만(李承晩) 등에게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활동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전월순(全月順)
생몰년도 : 1923. 2. 6 ~ 2009. 5. 25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북 상주(尙州) 사람이다.

1939년 9월 중국 귀주성(貴州省) 계림(桂林)에서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에 입대하여 일본군에 대한 정보수집 및 병사초모 등의 공작활동을 전개하다가 1942년 4월 20일 개최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제28차 국무회의의 결의에 따라 광복군(光復軍)으로 편입되었다.

그는 1942년 4월 20일부터 1945년 8월 14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광복군 제1지대(第一支隊)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전창신(全昌信)
생몰년도 : 1900. 1. 24 ~ 1985. 3. 1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2)

함남 함흥(咸興) 사람이다.

1919년 3월 3일 당시 함흥영생여학교(咸興永生女學校) 교사로 있으면서 함흥군 함흥면(咸興面) 신창리(新昌里)에서 50여명의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 태극기와 선언문을 만들고 운동자금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던 중 계획이 노출되어, 동료들과 함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4월 2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전흥순(田興順)
생몰년도 : 1919. 12. 10 ~ 2005. 6. 19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63)

1940年 2月 上海市立商科大學 商科卒業.
1940年 2月 株式會社 上海銀行 本店 入社.
1942年 4月 辭任.
1942年 6月 金炳斗, 朴時昌, 朴奎燦, 金泰俊, 金昌淑 接線 獨立運動하다.上海, 南京, 齊南 一帶 地下工作運動 展開
1943年 4月 韓國光復軍 第三支隊 入隊, 特殊工作資金調達 地下工作 前後方工作의 一員으로 活躍하다.
1943年 10月 中支 昆明 抗州地區 派遣하다.
1944年 2月 昆明 上海地帶 資金工作隊 情察派遣 李福源과 資金調達 活躍하다.
1945年 8月 南支抗州에서 光復되니 韓國光復軍 本部隊 歸隊 畔阜 李福源 副支隊長 駐屯地로 歸隊.
1963年 8月 建國功勞表彰狀 授與됨.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정막래(丁莫來)
생몰년도 : 1899. 9. 8 ~ 1976. 12. 24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8)

1919년 4월 2일 오전 10시 경 경남 통영군 통영면 길야정(吉野町) 기생조합소(妓生組合所)에서 이소선(李小先) 외 5명의 기생과 함께 기생단을 조직하였다.
일행과 함께 자신의 금반지를 팔아서 마련한 장례용 옷으로 갈아입고, 동일 오후 3시 반 경 통영면 부도정(敷島町)에 나가서 수천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정막래는 1919년 4월 18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징역 6월을 받았다.
마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19년 10월 1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정수현(鄭壽賢)
생몰년도 : 1887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6)

1920년 서울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입한 모형 권총을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 일명 大同團) 간부 신덕영(申德永)에게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조선민족대동단은 1919년 3월 말경 서울에 있는 전협(全協)의 집에서 결성된 비밀결사였다. 첫째, 한국을 일본제국의 통치에서 이탈하게 해 독립국을 형성하게 할 것, 둘째,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할 것, 셋째, 사회주의를 철저히 실행할 것 등의 3대 강령을 내걸었다. 김가진(金嘉鎭)을 총재로, 귀족·관리·유학자·종교인·상공인·청년·학생·부녀자 등 각계각층의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전국 각지와 만주에 지부를 설치하고 비밀 유지를 위해 점조직으로 운영되었다. 1919년 4월부터 1년간 지하문서를 배포했으며, 『대동신보(大同新報)』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정수현은 1920년 이동녕(李東寧)·박은식(朴殷植)의 지시로 국내로 들어와 군자금 모집을 위해 대동단에 가입해 활동하던 신덕영의 거사 계획에 찬성하여 동지가 되었다. 대동단의 군자금 모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완구용 권총을 구입하여, 당시 전남 광주(光州)에 내려가 있던 신덕영에게 편지를 보내 권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1920년 10월 22일경 권총 2정을 자신의 짐 속에 숨겨 최양옥(崔養玉)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신덕영에게 전달하였다. 1921년 5월 31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정영(鄭瑛)
생몰년도 : 1922. 10. 11 ~ 2009. 5. 24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북 선천(宣川) 사람이다.

그녀는 한국광복군 제3정모처에 입대하여 지하공작을 하다가 후방지역으로 탈출하여 제2지대에서 복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정영순(鄭英淳)
생몰년도 : 1921. 9. 15 ~ 2002. 12. 9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황해도 서흥(瑞興) 사람이다.

광복군 제2지대에 협조하여 노안(潞安)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정월라(鄭月羅)
생몰년도 : 1895 ~ 1959. 1. 1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8)

1919년 平南 平壤에서 조직된 大韓愛國婦人會 本部 財務部長, 赤十字部員등으로 활동함.
1928년 미국 하와이에서 호놀룰루 감리교회 부인보조회 회장, 1942년 독립금예약수봉위원회 수봉위원,
1944년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지부 선전부원, 1945년 同 지부 사교부원 등으로 활동함.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함.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정정화(鄭靖和)
생몰년도 : 1900. 8. 3 ~ 1991. 11. 2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충남 연기(燕岐) 사람이다.

시부(媿父)인 대동단(大同團) 총재 김가진(金嘉鎭)을 따라 1919년 3·1독립운동 직후 상해로 건너갔다.

그녀는 1930년까지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6회에 걸쳐서 국내를 왕복하면서 거액의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1932년에는 윤봉길(尹奉吉)의 상해(上海) 홍구공원(虹口公園) 의거 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임시정부가 절강성(浙江省) 가흥(嘉興)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동녕(李東寧) 김 구(金九) 엄항섭(嚴恒燮) 등과 함께 이동하여 임시정부를 도왔다.

1934년에는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에 입당하여 활동하였으며, 1940년에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창당요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또한 같은 1940년에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을 조직하고 그 간부로서 항일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41년에는 임시정부의 보호 하에 있는 중경(重慶) 3·1유치원(幼稚園)의 교사로 임명되어 독립운동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1943년 2월 23일에는 중경(重慶)에 있는 임시정부 산하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의 재건조직에 참여하여 훈련부장에 선출되었으며, 국내외 한인 부녀의 총단결과 조국광복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방송을 통하여 국내외에 있는 동포여성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혹은 위문 금품을 거두어 일선에 있는 독립군을 위문하며, 혹은 적진 중에 끼어 있다가 포로수용소를 통하여 넘어오는 동포 여성들을 계몽 교육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또 전란과 병고로 고생하는 동포들을 찾아 정성어린 위문과 부조로 천애이역(天涯異域)에서 동포애의 꽃을 피우기도 하였으며, 멀리는 미주 한국여성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재미(在美) 각계 동포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성원을 두터이 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적을 인정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정찬성(鄭燦成)
생몰년도 : 1886. 4. 23 ~ 1951. 7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평남 순천(順川) 사람이다.

1919년 10월 9일 평남 순천에서 비밀결사인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부인향촌회(婦人鄉村會)를 조직하였다. 부인향촌회는 1919년 9월 평양에서 결성된 대한국민회의 여성 지부조직이었다.

대한국민회는 평양에 본부를 설치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지부조직을 세워 갔는데 특히 평안도 일대에 지부조직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의 참가도 두드러져 부인향촌회와 같은 여성만의 독립조직을 세울 정도였다.

부인향촌회의 주요 활동은 군자금 모집과 임시정부의 선전에 있었다. 군자금의 모집은 주로 회원의 의연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순천의 부인향촌회에서는 회원으로부터 4원씩 의연금을 모집하여 일부는 향촌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원을 모아 1920년 3월 23일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 차경신(車敬信)에게 교부하는 등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21년 1월 조직이 발각되어 피체된 그는 1921년 7월 2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정현숙(鄭賢淑)
생몰년도 : 1900. 3. 13 ~ 1992. 8. 3
포상훈격 : 애족장(1995)

경기도 용인(龍仁) 사람이다.

1918년경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별동대장 및 경비대장으로 활동한 부군 오광선(吳光鮮)을 따라 만주로 망명한 후 1935년까지 만주 길림성(吉林省) 일대에서 독립군의 뒷바라지와 비밀 연락임무 등을 수행하며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35년 이후 중국 남경(南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뒷바라지와 함께 1941년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을 결성하여 맹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1944년경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당원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여 귀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조계림(趙桂林)
생몰년도 : 1925. 10. 10 ~ 1965. 7. 14
포상훈격 : 애족장(1996)

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이다.

1940년대 전반기 중국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 총무과원으로 근무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조계림은 임시정부 외무부장이던 조소앙(趙素昂)의 딸로서, 부친의 활동을 보좌하는 한편 1943년 4월 2일 개최된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외무부 과원으로 선임되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40년 5월 중경(重慶)에서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재건한국독립당(再建韓國獨立黨)·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 등 3당이 통합하여 결성된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 1943년 6월 가입하여 여성 당원으로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1945년 광복 때까지 임시정부에 몸을 담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조마리아(趙마리아)
생몰년도 : 1862 ~ 1927. 7. 15
포상훈격 : 애족장(2008)

조마리아는 1907년 5월 평안남도(平安南道) 삼화항(三和港) 은금폐지부인회를 통해 국채보상의연금(國債報償義捐金)을 납입하였고, 1926년 7월 19일 조직된 상해재류동포정부경제후원회(上海在留同胞政府經濟後援會) 위원을 역임하였다.

동년(同年) 9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경제후원회 창립총회에서 안창호(安昌浩), 조상섭(趙尙燮) 등과 함께 정위원(正委員)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안중근(安重根) 의사(義士)의 어머니이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조순옥(趙順玉)
생몰년도 : 1923. 9. 17 ~ 1973. 4. 23
포상훈격 : 애국장(1990)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이 창설됨에 따라 오광심(吳光心)·김정숙(金貞淑)·이복영(李復榮)과 함께 여군으로 광복군에 입대하였다.

1940년 10월부터 1942년 3월까지 광복군 총사령부가 서안(西安)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서안으로 가서 총사령부 총무처에 배속되어 근무하였다.

1942년에는 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 2분대원으로 편입되어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조신성(趙信聖)
생몰년도 : 1873 ~ 1953. 5. 5
포상훈격 : 애국장(1991)

평북 의주(義州) 사람이다.

평양(平壤)에서 진명여학교(進明女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을 맡아 민족교육에 전념하였으나 3·1독립운동에 연루되어 사임하였다.

1920년에 김봉규(金奉奎)·방임주(方壬柱)·안국정(安國汀) 등과 함께 평남 맹산(孟山)에서 대한독립청년단(大韓獨立靑年團)을 결성하였다.

동단은 이후 조직을 확대하여 단원이 수십명에 달하였으며 맹산·영원(寧遠)·덕천(德川) 일대를 중심으로 독립사상 고취, 군자금 모집, 부일분자 응징, 관공서 파괴, 관공리 처단 등의 무장력에 바탕한 직접투쟁을 펴나갔다. 그러던 중 그는 1920년 11월경 일경에 피체되어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 후 1928년 1월 30일 박현숙(朴賢淑)·박승일(朴昇一) 등과 함께 좌·우익 여성단체의 통일적 기관인 근우회(槿友會)의 평양지회를 조직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동년 근우회 중앙집행위원, 1930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동회를 이끌었다.

1930년 12월 최의경(崔儀敬)·왕혜실(王惠實) 등과 더불어 여성실업장려회(女性失業獎勵會)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여성의 경제적 각성과 취업확대를 위해 힘썼다.

1932년 6월에는 조선교육학교(朝鮮教育學校)를 설립하여 청소년 교육에 헌신하였으며 동년 9월 10여명의 동지와 더불어 평양여자소비조합조직준비회(平壤女子消費組合組織準備會)를 개최하여 여성 경제기관의 설립에 힘을 쏟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조애실(趙愛實)
생몰년도 : 1920. 11. 17 ~ 1998. 1. 7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함북 길주(吉州) 사람이다.

1932년 명천읍(明川邑) 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한 그는 함북 아오지(阿吾地)탄광의 광산촌에 거주하면서 1940년 1월 중순 야학을 설치하여 부녀자들에게 문맹퇴치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1941년 3월 일경에 피체되어 3개월간에 걸친 가혹한 고문을 당한 끝에 유치장에서 병을 얻어 석방되었다. 1942년 상경한 그는 교회에서 알게 된 전영신(全榮信) 등의 부녀자들에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그 역사와 문자를 모르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하며 «단종애사(端宗哀史)»·«이차돈(李次頓)의 죽음» 등의 소설과 한국의 역사와 한글을 공부할 것을 권하는 등 민족의식의 고취에 힘썼다.

1944년 6월에는 기독교 감리파소속 동대문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한국의 여성들은 고려시대의 충신 정몽주(鄭夢周)의 어머니처럼 조국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정감록(鄭鑑錄)의 내용을 인용하여 조국의 독립이 멀지 않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일본어 상용이 강제되고 있으나 한글도 못 읽고 한국말도 못한다면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니 한국어를 사용하자는 내용의 설교를 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44년 10월 5일에는 부녀자들에게 현재명(玄濟明)이 작곡한 조선의 노래라는 제목의 악보를 보이며 이 노래를 애창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와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1945년 4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형을 언도받았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조옥희(曹玉姬)
생몰년도 : 1901. 3. 15 ~ 1971. 11. 30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3)

전남 곡성(谷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전남(全南) 광주(光州)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전남 광주에 있는 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에 재학 중이던 조옥희는 3월 6일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출신인 김강(金剛)·송흥진(宋興眞)·서정희(徐廷禧), 송일학교(崇一學校) 교사 최병준(崔丙浚) 등과 함께 3월 10일 광주 큰 시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광주시내를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때 조옥희는 시내에서 일반인의 운동참가를 권유하기로 하였으며, 최병준은 송일학교 학생들을 운동에 참가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독립선언서와 기타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김강은 수피아여학교 교사인 박애순(朴愛順)과 교섭하여 독립선언서 배포 및 여학생들의 운동참가를 권유하였다.

3월 10일 3시경 조옥희는 김복현·김강·서정희 등과 함께 광주교 밑의 천변에서 수 백명의 사람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천변을 따라 작은 냇가에 자리잡은 작은 시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송흥진을 선두로 양림리(楊林里) 방면에서 모여든 송일학교 학생 10여 명, 수피아여학교 여학생 20여 명, 그리고 우시장에 모여든 군중들과 합류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행렬은 우시장을 지나 서문통을 경유 우편국 앞을 지나 중앙로로 행진하였고, 여기에서 누문리(樓門里) 방면으로부터 쇠도한 농림학교 학생들과 합류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였다.

이 일로 조옥희는 피체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조용제(趙鏞濟)
생몰년도 : 1898. 9. 14 ~ 1948. 3. 10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기도 연천(漣川) 사람이다.

1929년 중국 상해(上海)로 오빠인 조소앙(趙素昂)·조시원(趙時元) 등 일가와 함께 망명하여 항일운동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1935년 9월 5일 조소앙이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재건하기 위해 활동할 때 그도 이에 참여하여 창당작업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1940년 6월 17일 한국혁명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 창립요원으로 참여하여 한국 여성에게 민족혁명정신을 고취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는 한편 동년 5월에는 한국독립당의 창립위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1941년 한국독립당의 중경(重慶) 강북구당(江北區黨) 요원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를 지지하며 독립운동을 하였고 1943년 2월 중국 중경에서 한국애국부인회(韓國愛國婦人會)의 재건요인으로 선임되어 전체 부녀자들의 각성과 단결을 촉구하며 여성의 독립운동을 지도하면서 광복시까지 활동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조인애(曹仁愛)
생몰년도 : 1883. 11. 6 ~ 1961. 8. 1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2)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강화군 강화읍(江華邑) 장날에 유봉진(劉鳳鎭)·최창인(崔昌仁)·이봉석(李奉石)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장터에 모인 1만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시위를 벌이면서 강화 군청으로 가서 군수에게 독립만세를 함께 부르자고 요구하고 경찰에 연행되어 있던 유희철(劉熙哲)·조기신(趙基信) 등의 석방을 위해 활동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해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조충성(曹忠誠)
생몰년도 : 1895. 5. 29 ~ 1981. 10. 2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5)

여학교를 졸업한 뒤 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가사를 돌보고 있던 그녀는 3월 1일 황해도 웅진군(甯津郡) 마산면(馬山面) 온천리(溫泉里) 기독교 예배당에서 열린 독립기원 예배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도사 이경호(李京鎬)는 광무황제 봉도식을 올린 후 독립선언서 취지를 설명하고 독립 기원 예배를 올렸다. 그녀는 이경호에게 독립선언서를 교부받은 후 집으로 가져와 보관하고 있었다. 이날 저녁 일본 헌병이 그녀의 집에 들이닥쳐 독립선언서의 보관 여부를 추궁한 뒤 그녀를 체포하였다. 그녀는 1919년 6월 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해주여자청년회(海州女子靑年會) 간사와 회장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조화벽(趙和璧)
생몰년도 : 1895. 10. 17 ~ 1975. 9. 3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녀는 양양군내의 감리교회에 많은 청년을 포섭하여 활발히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조영순(趙英淳) 전도사의 딸이다.

전국적으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개성 호수둔여학교(開城好壽敦女學校) 학생으로서 선배인 권애라(權愛羅) 등 수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세우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나누어 준 뒤, 헌병대에서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 후 1925년 4월 18일 교직생활을 하던 중 유우석(柳愚錫; 柳寬順의 오빠)과 결혼하였는데, 이후 유우석의 가족을 모두 양양에 은신시켰고, 유관순의 동생인 관복(寬福)과 관석(寬錫)을 양육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주세죽(朱世竹)
생몰년도 : 1899. 6. 7 ~ 1950
포상훈격 : 애족장(2007)

함경남도 함흥 출신인 주세죽은 1919년 3.1운동당시 함흥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1개월간 함흥경찰서에 수감된 바 있었다. 이후 서울에서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 등을 주도하며 여성운동을 이끄는 한편,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중앙 후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에 있었다. 일제는 이런 그를 '여자 사회주의자 중 가장 맹렬한 자'로 평가하며 '요시찰인물'로 감시하고 있었다. 1924년 5월 서울에서 사회주의 여성단체 여성동우회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이듬해 1월 경성여자청년동맹(京城女子靑年同盟) 결성을 주도했다. 4월 고려공산청년회에서 활동하다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였다. 1925년 11월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으로 남편 박헌영이 일경에 붙잡힌 후, 그 또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1926년 6월 주세죽은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던 일경에 다시 붙잡혔으나 2개월만에 풀려났다. 1927년 5월 근우회(槿友會) 임시집행부에서 활동하던 주세죽은 병보석으로 출감한 박헌영과 1928년 8월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했다.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하여 1931년 졸업하였다.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중국 상해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하던 중, 박헌영이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자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소련에서도 주세죽은 '사회적 위험분자'로 낙인찍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등 박해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주순이(朱順伊)
생몰년도 : 1900. 6. 17 ~ 1975. 4. 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9)

1927년 경남 도평의원으로서 있던 김기정(金淇正)이 “한국인은 교육이 불필요하며 한국어 통역을 철폐해야 한다”는 등의 매국적 언사를 했다. 이에 1927년 3월 경남 통영에서 박봉삼(朴奉杉) 등 10여 명이 친일파 김기정에 대한 시민징토대회(市民懲討大會)를 주최하여 시민들에게 그의 매국 발언을 고발하는 한편 김기정의 사퇴 및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그의 집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는 등 군중집회를 주도하였다. 이때 박봉삼 등 10여 명이 일경에 체포되자, 이들의 석방을 위해 통영 시민들은 1927년 5월 13일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수천 명의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격문이 살포되자 고무된 시위군중은 통영경찰서로 몰려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주순이는 일경에 체포되어 1927년 12월 7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소요 등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주유금(朱有今)
생몰년도 : 1903. 05. 15 ~ 1995. 9. 14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2)

1921년 11월 워싱턴회의에 조선독립문제 상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목포부(木浦府) 시내에서 독립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1년 11월 전라남도 목포부 양동(陽洞)의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에 재학중, 동교생들과 함께 <동아일보> 등 기타 신문을 통하여 워싱턴회의가 개최됨을 알고, "조선민족대표자도 반드시 이 회의에 참열(參列)하여 조선의 독립문제를 제출하고 그것을 토론해야 할 것이다", "모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독립운동을 개시한다면 일반 조선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동(同) 회의에 참석하는 조선인 대표자에게 성원을 주며, 또한 일반 조선인의 독립 희망이 얼마나 절실한지 각국 전권위원회에 알릴 수 있으므로 그들의 호응을 얻어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동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경 천귀례(千貴禮), 곽희주(郭喜主), 김나열(金羅烈), 이남순(李南順), 문복금(文卜今), 김연순(金蓮順), 이남순(李南順), 이남순(李南順), 김옥실(金玉實), 김귀남(金貴南), 김자현(金慈賢) 등 동교생 12명과 동교 기숙사 내에 집합하여 위와 같은 독립운동

을 개시하고, 그 방법으로 다음날인 14일 정오 오폭(午砲)을 신호로 삼아 각자 대한제국기(大韓帝國旗)를 휴대하고 교문을 나와 목포 시가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리고 동 13일 동 기숙사에서 함께 국기 수 십 매를 제작한 뒤, 14일 오전 수업 종료 후 학생과 교사 등이 휴식 중인 정오에 오폭을 신호로 20명 모두가 국기를 손에 들고 동교 정문을 나왔다. 이 가운데 11명은 각자 휴대한 국기를 휘두르며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동교 정문으로부터 목포부 남교동(南橋洞)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를 본 수명의 학생들은 동교 내에 떨어져 있는 국기를 주워서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남교동에서 동부죽동(竹洞)을 거쳐 창평정(昌平町), 대정정(大正町)을 행진하였다.

만세 시위를 본 학생들은 동교 내에서 국기를 찾아 그것을 휴대하고 동교 뒷문을 나와 십 수명이 일단이 되어 각자 휴대한 국기를 흔들거나 혹은 손을 들어 모두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연호하면서 대성동(大成洞) 방면을 행진하였다.

1922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소위 1919년 제령(制令) 제7호(政治에 관한 犯罪處罰의件)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 통산 50일)을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2년 7월 2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지복영(池復榮) 생몰년도 : 1920. 4. 11 ~ 2007. 4. 18 포상훈격 : 애국장(1990)
------	---

서울 종로(鍾路) 사람이다.
일찍이 부친 지청천(池靑天)을 좇아 중국으로 건너가 수학하였다.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이 창설됨에 따라 오광심(吳光心)·김정숙(金貞淑)·조순옥(趙順玉) 등과 함께 여군으로 광복군에 입대하였다.
같은 해 11월에 총사령부가 중경(重慶)에서 서안시 이부가(西安市二府街)로 이동함에 따라 그녀도 서안으로 옮겨갔다.
1942년에는 광복군 제3지대로 배속되어 광복군 초모위원회 위원 겸 비서로 부양(阜陽)에서 활동하였으며, 1944년에는 임정 선전부 자료과와 선전과에 복무하면서 대적 선전방송을 하고 또한 원고를 작성하는 등 활동하였다.
1945년 4월에는 임시정부 회계검사원 및 조리원(助理員)에 임명되어 검직 근무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진신애(陳信愛)
생몰년도 : 1900. 7. 3 ~ 1930. 2. 23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전남 광양(光陽)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光州郡 孝泉面 楊林里)에 거주하면서 수피아(須彼亞)여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3·1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2·8독립선언서가 광주지방의 청년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광무황제(光武皇帝)의 국장(國葬)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던 김철(金鐵)과 서울 유학생 최정두(崔正斗) 등이 1919년 3월 5일 광주로 돌아오면서부터 곧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준비가 진행되었다.

그는 3월 10일 박애순(朴愛順) 교사와 함께 기숙중인 여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하였으며 수피아여학생들을 이끌고 광주장터로 나아가서 모여든 시위군중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이처럼 선두에 서서 학생들을 지휘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 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차경신(車敬信)
생몰년도 : 미상
포상훈격 : 애국장(1993)

평북 선천(宣川) 사람이다.

1919년 2월에 일본 횡빈(橫濱)여자신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중 동경에서 2·8독립선언 후 국제정세의 변화를 독립운동의 절호의 기회로 포착, 2천만 한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독립운동을 결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를 결해하는데 있어 일반 여자들을 일깨워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큰 책임을 지고 김마리아와 같이 비밀리에 입국하여 대구(大邱)로 갔다. 이곳에서 김순애(金淳愛)와 서병호(徐炳浩)를 만나 장래 여성이 독립운동 참여를 위하여 부인회를 조직한 뒤 평북 선천(宣川)에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의 이름으로 5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3월 1일에 독립선언을 행하였다. 이에 일경의 체포령이 있게 되자 피난 겸 벽촌으로 밀행하여 독립전쟁의 준비로 간호대(看護隊)를 조직, 봉대·가위·약품 등을 마련한 후 의주(義州)에서 청년단(靑年團)을 조직하고 반년간 활동하다가 군무에 필요한 기구를 주선하여 안동(安東)으로 향하던 중 일경에게 피체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19년 11월경에 대한청년단연합회(大韓靑年團聯合會)의 총무겸 재무로 피선되어 국내외를 다니면서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12월에는 국내 여성독립운동 상황을 시찰, 격려하고자 출발하여 모처에서 삼도여자총회(三道女子總會)를 열어 결속을 다졌다. 이듬해 1920년 3월 1일에는 평북 선천군(宣川郡)에 소재한 보성여자학교와 신성(信聖)학교 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는 1920년 8월 하순, 보다 구체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 도산 안창호(安昌浩)를 도와 국내를 오가면서 비밀요원으로 활약하였다.

1921년 1월에는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부인향촌회(婦人鄉村會)와 연계하여 군자금을 모금하였으며, 동년 9월 정애경·최윤덕 등과 여자연합단(女子聯合團)의 대표로 임정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10월 26일에는 평남 평양부 김상만(金相萬)이 모금한 4백여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등 조국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자금조달에 일익을 담당하다가 1921년에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상해 홍십자(紅十字)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1924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초대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회장과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회원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고, 로스앤젤레스에 한국어 학교를 설립하여 초대 교장으로 교포 자녀들의 교육에 진력하였다.

1931년 로스앤젤레스 한국어 학교 교장직을 사면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애국부인회 총본부가 로스앤젤레스로 옮기게 되자 1932년부터 1939년까지 애국부인회 총단장에 재임하면서 각지에 지회를 조직하는 등 활동하였다. 애국부인회에서는 임시정부, 독립신문사, 광복위로금,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 군축선전비, 만주동포구제금 그 외에도 국내 수재의연금, 혹은 고아원 원조비 등 독립운동과 구제사업을 위해 힘썼다.

1924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조국광복의 날까지 독립운동을 위한 군자금 조달과 여성교육에 큰 몫을 담당했던 그는 1978년 9월 28일 로스앤젤레스 작은 마을에서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차미리사(車美理士)
생몰년도 : 1880. 8. 21 ~ 1955. 6. 1
포상훈격 : 애족장(2002)

서울 사람이다.

일찍이 기독교에 입교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서양 선진문화를 습득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05년부터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대동교육회(大同教育會),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 활동을 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유홍조, 이병준 등과 함께 대동교육회를 조직하였다. 대동교육회는 국망을 예견하고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들끼리 나라를 구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한 교육기관이었다. 대동교육회는 북미 파사디나에서 조직되었으며 장경희가 회장을 맡은 단체였다.

그는 대동교육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동교육회가 대동보국회로 발전할 때도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대동신문의 발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17년 미국선교회에서 파견하는 선교사로 귀국한 후 배화학교(培花學校) 교사와 사감(舍監)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배화학교 사감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다 나가서 죽더라도 독립을 해야 한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나라 없는 설움 당해 봤지. 나 한 목숨이 죽고 나라를 찾으면 대대손손이 다 살게 아닌가!"를 역설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3·1 운동 이후에는 조선여자교육회(朝鮮女子教育會)를 조직해 활동하였다. 조선여자 교육회는 여성의 교육과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1920년 1월에 조직한 것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배화학교 사감을 그만두고 예배당을 빌려 여자야학을 실시해 여성들의 문맹퇴치와 계몽에 헌신하였다. 또한 근화학원(槿花學院)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여자시론』이란 잡지를 발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전국순회강연회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차미리사는 무궁화를 사랑해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정에 무궁화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자수시간에도 무궁화를 수놓도록 했다고 한다. 광복후에는 여성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해 1950년 덕성여자초급대학(현 덕성여자대학교)을 설립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차보석(車寶錫)
생몰년도 : 1892 ~ 1932. 3. 21
포상훈격 : 애족장(2016)

1921년부터 1932년까지 중국 상해(上海)에서 재상해유일학생회(在上海留日學生會) 회원으로 활동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총단장 및 샌프란시스코지부 단장,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 회원, 샌프란시스코 국어학교 교사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국내에서 종교계와 교육계에 종사하다 중국 상해로 건너가 1921년 재상해유일학생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1925년 대한여자애국단 샌프란시스코지부 단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그해 9월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관리하는 국어학교 교사로 선정되어 1928년까지 아동 교육에 힘썼다.

1926년 3월 대한여자애국단 총단 위원 선거에서 총단 위원 겸 총단장에 선출되었으며, 1927~1928년에도 총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3월 대한여자애국단 총단 서기, 7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재류 부인들이 조직한 대한인여자저금회 재무로 선출되었다. 1929년 7월 대한여자애국단 총단 명의로 미주 화교 대일 외교후원회에 중국혁명동정금 65달러를 후원하면서 한·중간 혁명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1930년 3월 애국단 총단 재무, 1931년 1월에는 샌프란시스코 국어학교 재무를 맡았다. 1931년 2월 대한인국민회에 가입하였고, 3월 애국단 총단 재무로 재선되어 활동하였다. 1932년 2월 국민회 3·1절 기념식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부터 1932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차인재(車仁載)
생몰년도 : 1895. 4. 26 ~ 1971. 4. 7
포상훈격 : 애족장(2018)

1920년 6월 京畿道 水原郡 水原面에서 三一學校 교사로 근무 중 朴善泰 등이 조직한 救國民團에 참여, '獨立新聞·大韓民報' 등의 독립 사상에 관한 기사 배포 활동을 함.
同年 8월 미국으로 이주 후 1924년 대한인국민회 맥스웰지방회 學務員, 1933년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부단장, 1935년 同團 서기, 1936년 재무 및 여자청년회 서기로 활동함.
1936년 대한여자애국단 총단 서기, 1937년부터 1942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서기, 1939년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지방회 집행위원 및 총무를 역임함.
1941년부터 이듬해까지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지방회 교육위원, 1942년 대한여자애국단 총부 위원, 1943년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지방회 집행위원 및 총무, 1944년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회장으로 활동함.
1944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선전과장, 1945년 대한여자애국단 로스앤젤레스지부 위원 및 대한인국민회 로스앤젤레스지방회 총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군자금 모집 위원으로 활동하며 1922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함.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채혜수(蔡惠秀)
생몰년도 : 1896. 11. 9 ~ 1978. 12. 17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08)

1919년 3월 초순경 平壤府에서 血誠歌를 부르며 직접 제작한 태극기 100여 개를 시위 군중에게 배부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가 체포되어 懲役 6月을 받고 동년 12월 假出獄한 사실이 확인됨.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최갑순(崔甲順)
생몰년도 : 1898. 5. 11 ~ 1990. 11. 22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함남 정평(定平) 사람이다.

독립운동가 송세호(宋世浩)의 부인으로 대한민국 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의 지도를 받아 1919년 4월 김원경(金元慶)·김희열(金熙烈)·김희옥(金熙玉) 등과 함께 비밀결사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大朝鮮獨立愛國婦人會)를 조직하고 부회장에 선임되어 활동을 주도하였다.

동회는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며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활동을 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총무 이병철(李秉澈)의 주선으로 동년 6월 오현주(吳玄洲)·오현관(吳玄觀)·이정숙(李貞淑) 등이 주도·조직한 혈성단애국부인회(血誠團愛國婦人會)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를 결성되었다. 이때 총재는 오현관, 회장은 오현주가 맡았으며 그는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동회는 이후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동회는 동년 9월 김마리아(金瑪利亞)·황애시덕(黃愛施德)을 중심으로 결사부(決死部)·적십자부(赤十字部)를 신설하는 등 항일독립전쟁에 대비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하고 본부와 지부를 통해 임시정부 국내 연통부(聯通府)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활동을 대행하였다. 또한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6천원의 군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였다.

이후 그는 신간회(新幹會)의 자매 단체로서 1927년 결성된 근우회(槿友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1930년 12월 18일 근우회 중앙위원 확대회의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과 항일독립운동에 힘썼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최금봉(崔錦鳳)
생몰년도 : 1896. 5. 6 ~ 1983. 11. 7
포상훈격 : 애국장(1990)

평남 진남포(鎭南浦) 사람이다.

사립학교 선생으로 있던 그는 1913년 9월에 조직된 비밀결사 송죽회(松竹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의식의 고취와 독립지사 가족들의 후원활동을 폈으며 1916년 송죽회가 지방조직을 결성할 때 남포지역 책임자로 선임되어 조직확대에 힘썼다.

1919년에는 비밀결사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계속하였는데 동회는 1919년 6월 박승일(朴昇一)·이성실(李誠實)·손진실(孫眞實) 등이 평양(平壤)에서 기독교 감리파의 부인신도들을 규합하여 결성한 임시정부 지원단체였다.

동회는 11월 임시정부 요원 김정목(金貞穆)·김순일(金淳一)의 권유로 한영신(韓永信)·김보원(金寶源)·김용복(金用福) 등이 기독교 북장로파 부인신도들을 중심으로 주도·조직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와 통합하여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로 확대·개편되어 회장은 안정석(安貞錫)이 맡았으며 그는 서기 겸 진남포감리파 지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동회는 재무부·교통부·적십자부의 부서를 갖추고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역의 부인회 조직을 지회로 흡수하였으며 본부는 지회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었는데, 이후 항일독립사상의 고취와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써 2천 백여원의 군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는 1920년 12월 일경에 피체되어 1921년 2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최복순(崔福順)
생몰년도 : 1911. 1. 13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4)

1930년 1월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의 동조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9년 11월 이후 일어난 광주학생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1930년 1월 9일경 동급생 최윤숙(崔胤淑)·김진현(金鎭賢)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최복순은 당시 기독교청년회(基督教青年會)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근우회(槿友會) 서무부장이었던 허정숙(許貞淑)과 광주학생운동의 동조시위를 주도하였다.

최복순 등은 1월 12일 최윤숙의 집에 모여, "학교는 경찰의 침입을 반대하라, 식민지 교육정책을 전폐시켜라, 학생 희생자 모두를 석방시켜라, 조선 청년 학생이여, 아아, 일본의 야만정책에 반대하자, 각 학교의 퇴학생을 복교시켜라" 등 6개 항목을 결의하였다.

각 학년 간의 단결을 위해 학년별로 본부를 정하여 상호 연락을 취했는데, 최복순은 4학년 본부를 맡았다. 또한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 등 서울 시내 각 학교와 연락을 취하고 격문과 태극기를 준비하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30년 1월 15일 이화여고보 교정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 타교생들과 함께 격문을 뿌리며 시위를 계속 하려다가 저지당하고 학우 약 50명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0년 3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최봉선(崔鳳善)
생몰년도 : 1904. 8. 10 ~ 1996. 3. 8
포상훈격 : 애족장(1992)

경남 마산(馬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마산에 있는 의신학교(義信學校)에 재학중 김남준(金南俊)·이수학(李秀學)·안음전(安音全) 등과 함께 결사단을 조직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꺾기에 필요한 태극기와 격문 등을 만들었는데 그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하였다.

이날 의신학교, 창신학교 학생들과 장터에 모인 군중까지 3,000여명을 헤아리는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대대적인 학생중심의 시위를 벌였다. 또한 1927년 3월에는 통영군(統營郡) 통영면(統營面)에 거주하는 친일파이자 경상남도 평의원인 김기정(金淇正)이 평의회 석상에서 "조선인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 않으며 조선어로 통역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매국적 발언을 한데 분개하여 시민대회를 열 때 이에 참가하고 시민공동절교에 동참하였으며, '김기정은 일체의 공직을 파직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김기정이 도리어 고소함으로써 박봉삼(朴奉杉)·황덕윤(黃德允)·황봉석(黃奉石)등과 함께 12명이 통영경찰서에 구속되었다.

석방되자 동지들과 함께 다시 3월 12일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경찰서로 몰려가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김기정의 집으로 가서 고소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김기정이 반성의 기미가 없음을 알고 15일 격문을 만들어 수천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김기정의 집을 습격하며 활동하다가 피체되었다.

1928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6월형을 받았으나 1년 8개월간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최서경(崔曙卿)
생몰년도 : 1902. 3. 20 ~ 1955. 7. 16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평북 운산(雲山) 사람이다.

중국 상해에서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지와 후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여성부문 단체로서 결성된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에서 1932년부터 1934년까지 집사(執事)로 선임되어 3·1운동기념일, 8·29국치(國恥)기념일 등에 전단을 배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32년 2월에는 상해사변(上海事變)의 발발로 일본군과 교전 중인 중국군 제19로군(路軍) 부상병사들에게 위문품을 보내어 위로하는 등 독립운동 후원에 진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p>성 명 : 최선화(崔善嬋) 생몰년도 : 1911. 6. 20 ~ 2003. 4. 19 포상훈격 : 애국장(1991)</p>
------	--

인천(仁川) 사람이다.

1931년 이화여전(梨花女專)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6년 상해(上海)로 건너갔다. 그녀는 이곳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다 퇴학하고 흥사단(興士團)에 가입하여 1937년 5월에는 광주(廣州)에서 흥사단 제24회 창립기념식을 갖기도 하였다. 이 무렵 임시정부 재무차장이던 애국지사 양우조(楊宇朝)를 만나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뒤에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계기가 되었다.

1940년에 한국독립당이 창립되자 이에 가입하여 임시정부를 적극 뒷바라지하였으며, 동년 6월 임시정부가 광서성 유주(廣西省柳州)에서 사천성 기강(四川省 江)으로 이전한 뒤에는 교포 부인들을 단합시켜 한국혁명 여성동맹(韓國革命女性同盟)을 결성하는 주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3년 2월에는 다시 임시정부를 쫓아 중경(重慶)으로 옮겨 가, 기미년 3·1독립운동 직후에 조직되었던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의 재건운동에 착수하여 조국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한국애국부인회의 재건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서무부장에 선출되었으며, 회장에는 김순애(金淳愛)가 추대되었다.

이들은 임시정부를 도와 각 방면에서 눈부신 활동을 벌였는데, 방송을 통하여 국내외 여성들에게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위문품을 거두어 항일전선에서 활동하는 군인들을 위문하는 한편 여성과 청소년들의 계몽과 교육에 열을 올리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녀의 공적을 인정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최수향(崔秀香)
생몰년도 : 1903. 1. 27 ~ 1984. 7. 25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광주(光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광주지역의 독립만세시위를 위하여 교사인 박애순(朴愛順)·진신애(陳信愛) 등의 지휘를 받으며 태극기와 독립선언문 등을 준비하고 시위 당일에 시위하기 위하여 모여든 군중에게 배포하여 주면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시가를 행진하며 열광적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다가 피체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1920년부터 1924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서울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에 재학하고 있을 때 춘·추계방학을 이용하여 광주흥학관(光州興學)에서 야학을 지도하며 청소년에 대한 계몽과 독립정신의 고취에 이바지하였다.

1928년부터 1940년 8월까지 동아일보(東亞日報) 광주지국장인 남편과 함께 동지국 총무 겸 기자로 임명되어 민족정신 계몽과 민족지 보급을 위하여 활동하는 등 구국운동에 기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최순덕(崔順德)
생몰년도 : 1897 ~ 1926. 8. 25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6월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박승일(朴昇一)·이성실(李誠實)·손진실(孫眞實) 등 감리파 부인 신도들과 함께 비밀결사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를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동회는 상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지원 및 독립정신의 고취·군자금 모집 등을 주요 활동 지침으로 삼았으며, 그는 동지 규합과 군자금 모집에 힘을 쏟았다. 그런데 이 무렵 감리파 중심의 애국부인회와 별도로 평양지역 장노파 부인 신도들이 조직한 애국부인회가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최순덕 등은 이들 여성단체의 통합에 크게 노력하였다. 그 결과 동년 11월에 이들 두 여성단체는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로 통합 발전하였으며, 최순덕은 연합회 본부의 교통부장(交通部長)에 선임되었다.

또한 그는 동년 11월 말 대한애국부인회의 대표 자격으로 대한청년단연합회(大韓靑年團聯合會)에 참가하여 다른 독립운동단체와도 긴밀한 연락을 이루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20년 10월 대한애국부인회의 조직이 발각되어 중심인물이 피체될 때, 일경의 포위망을 피하여 만주로 망명하였다.

망명 생활 중 병을 얻어 귀국한 그는 1926년 8월 25일 29세의 젊은 나이로 평남 의주(義州)에서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최예근(崔禮根)
생몰년도 : 1924. 8. 17 ~ 2011. 10. 05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서울 종로(鐘路) 사람이다.

1935년 10월 신축된 서탑신사(神社) 방화사건 때 모친 정신기(鄭新奇)와 함께 현장에 간 혐의로 체포되어 12세의 나이로 2주일간 구류되었다고 한다.

1940년 1월에는 경찰의 감시를 피해 봉천(奉天)에서 사평가로 이주하여 모친의 지시로 군자금을 전달하였으며, 동년 7월 23일에는 군자금과 모친이 보내는 독립운동에 관한 연락문을 휴대하고 전달도중 봉천행 열차에서 일경에게 체포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성 명 : 최요한나(崔堯漢羅)
생몰년도 : 1900. 8. 3 ~ 1950. 8. 6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9)

전북 전주(全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3일 전주시장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전주의 독립만세운동은 기독교측과 천도교측 인사들이 연합하여 추진되었다.

이때 기전여학교에 재학하던 최요한나는 기독교 인사 및 신흥학교 학생들과 함께 신흥학교 지하실에서 밤 새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제작·인쇄하면서 만세시위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최요한나는 기전·신흥학교 학생들과 함께 거사 당일인 3월 13일 정오경 남문에서 울려 나오는 인경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였다.

천도교·기독교인 및 학생 등 150여 명은 남문시장(南門市場)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에 시민들과 장꾼들은 이에 호응하여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대화동(大和洞)을 거쳐 우체국까지 시위행진하였다. 이에 일제측은 총검을 휘둘러 시위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 주도자들을 검거하였다.

그는 이 일로 피체되어, 이해 6월 30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최용신(崔容信)
생몰년도 : 1909. 8. 12 ~ 1935. 1. 23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함남 덕원(德原) 사람이다.

식민지 수탈에 의해 피폐된 농촌사회의 부흥을 위해 농촌계몽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이다. 그가 농촌사업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은 1928년 함남 원산의 루씨여고보(樓氏女高普)를 졸업하고 협성여자신학교(協成女子神學校)에 재학하면서부터였다. 이 때 그는 "조선의 부흥은 농촌에 있고, 민족의 발전은 농민에 있다"는 생각에서 농촌계몽운동에 투신하였다.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 총회 때 협성학생기독교청년회(협성학생YWCA)의 대표로 참가한 그는 본격적으로 YWCA의 농촌계몽사업에 참가하였다.

1923년 창립된 조선 YWCA가 도시 중심의 활동을 펴다가 농촌계몽사업에 뛰어든 것은 1927년경부터였다.

당시 조선 YWCA는 피폐된 식민지 농촌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활동의 중심을 농촌으로 옮겨갔다.

YWCA의 농촌사업은 농민의 의식계몽을 위한 농촌강습소와 야학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는 이러한 YWCA의 농촌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1929년에는 황해도 수안(遂安)과 경북 포항에 파견되어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31년 10월 YWCA 파견교사로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반월면(半月面) 천곡(泉谷;샘골)에 파견되었다.

그는 예배당을 빌려 한글·산술·재봉·수예·가사·노래공부·성경공부 등의 학습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용신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현지 주민의 물이해로 인한 냉대와 질시를 감내해야 했고, 일경의 감시와 탄압 또한 이겨내야 했다. 그리고 학원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의 마련도 여의치 못하였다. 그렇지만 최용신의 헌신적 노력으로 현지 주민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었고, 어려운 중에도 학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YWCA와 현지 유지의 기금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강습소는 1932년 5월 정식으로 강습소 인가를 받았으며, 동년 8월에는 천곡학원(泉谷學院) 건축발기회를 조직하고 그곳 유지와 YWCA의 보조로 학원 건축을 시작하여 1933년 1월 15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1934년부터 YWCA의 보조금이 끊어지게 되자 천곡학원의 운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이 학원을 살리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강구하던 중 1935년 1월 23일 지나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그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눈물겨운 행적은 심훈(沈薰)의 소설 『상록수(常綠樹)』에서 실재화되어 농촌운동의 귀감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최윤숙(崔允淑)
생몰년도 : 1912. 9. 22 ~ 2000. 6. 17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7)

1930年 1月 서울에서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 재학 중 학생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懲役 6月 執行猶豫 3年을 받았고, 1931年 서울系 共産黨 재건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됨.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최은희(崔恩喜)
생몰년도 : 1904. 11. 21 ~ 1984. 8. 17
포상훈격 : 애족장(1992)

황해도 연백(延白)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당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京城女子高等普通學校)에 재학중 서울 탑동공원에서 일어났던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한 후 고향인 배천(白川)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숨겨 가져온 '동포(同胞)여 일어서자'는 격문 등을 송흥국(洪興國)·이정식(李廷植)·오예제(吳禮濟)·조기복(趙起福)에게 전달하고 이들과 함께 태극기와 격문 등을 제작하는 등 시위준비를 하였다.

3월 30일 배천읍 장터에 모인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5월 24일 해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5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9월부터 황해도 안주(安州) 유신여학교(維新女學校)에서 교사로 활동하였다.

1924년 10월에는 조선일보(朝鮮日報) 본사에 학예부 기자로 입사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로서 정치부 사회부에서 활동하였으며, 1930년 7월에는 학예부장으로 임명되어 2년간 활동하다 은퇴하였다.

1927년 5월 27일 근우회(槿友會)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초대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그후 근우회가 폐회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최이옥(崔伊玉)
생몰년도 : 1926. 6. 16 ~ 1990. 7. 12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북 용천(龍川) 사람이다.

광복군 제3지대 제1구대 구호대(救護隊)에 입대하여 항일활동을 전개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최정숙(崔貞淑)
생몰년도 : 1902. 2. 10 ~ 1977. 2. 22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3)

제주(濟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경성여자보통학교 학생으로 3월 1일 서울 탑동(塔洞)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자 수천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으로 시위가 강제로 해산되고 다른 동지들과 함께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도 교사로 민족교육 및 인재양성에 힘쓰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최정철(崔貞徹)
생몰년도 : 1853. 6. 26 ~ 1919. 4. 1
포상훈격 : 애국장(1995)

충남 천안(天安)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군 병천(竝川)시장에서 아들 김구응(金球應)이 만세시위를 벌이던 중 일경에 총살되자 현장에서 일경에 대항하다가 피살, 순국하였다.

병천에서의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이화학당(梨花學堂)에 다니던 유관순(柳寬順)이 만세운동에 참가한 뒤 선언서를 갖고 내려오면서 추진되어 갔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4월 1일 병천 장날에는 미리 준비해온 태극기와 선언서를 살포하면서 3천여의 군중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군중은 일본군과 경찰의 총격에도 무릅쓰고 주재소, 면사무소, 소방서, 우편소 등의 일제 기관을 점거하고 위세를 드날렸다. 그런 과정에서 일제의 무자비한 총격에 의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때 시위의 선두에 섰던 김구응이 일본군의 총에 맞아 쓰러졌다.

일본군은 쓰러진 김구응의 두개골을 무자비하게 부셔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비보를 접한 김구응의 어머니 최정철(채씨)은 달려와 아들의 시체를 안고 통곡하다가, 일경의 창과 칼에 찔려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최형록(崔亨祿)
생몰년도 : 1895. 2. 20 ~ 1968. 2. 18
포상훈격 : 애족장(1996)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최형록은 1914년 상해의 박달학원(博達學院)을 수료하고, 독립운동계에 투신한 뒤 1940년 한국여성동맹회, 애국부인회 등 중국관내 여성독립운동단체에서 활약하는 한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 총무과 과원으로 활동하였다.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한 그는 1914년 박은식 . 신규식 등이 상해에서 설립한 박달학원에서 수학하며 민족 의식을 키워 나갔다. 그리고 1918년 4월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가 조소앙(趙素昂)과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계에 투신하였다.

1940년 최형록은 한국여성동맹회(韓國女性同盟會)를 조직하여 감찰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1943년에는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한편 그는 1940년 5월 중경(重慶)에서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재건한국독립당(再建韓國獨立黨)·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 등 3당이 통합하여 결성된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 1943년 6월 가입하여 여성당원으로서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또한 1943년 12월 임시정부 외무부 총무과 과원으로 선임되어 남편을 도와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최혜순(崔惠淳)
생몰년도 : 1900. 9. 2 ~ 1976. 1. 16
포상훈격 : 애족장(2010)

최혜순은 간호사 출신으로 일찍부터 상해(上海)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인 김철(金澈)과 혼인하여 남편과 함께 상해 지역의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며 여성운동가로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1931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만주사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해에 있는 조선인각단체 대표회의(朝鮮人各團體代表會議)를 소집하였다. 이때 최혜순은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이 회의에서 중국을 후원하고 일제를 타도하여 조선 독립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상해한인각단체연합회(上海韓人各團體聯合會)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임원을 선임하였는데, 회계 책임자로 선출되었다. 동년 12월 제23회 임시의정원에서 전라도 의원으로 선출되어 1933년 2월까지 활동하였다.

최혜순은 1933년 상해한인애국부인회의 집사장(執事長)으로 3.1운동기념일 등에 관한 인쇄물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일을 주도하였다.

이후에도 상해에서 조산병원을 경영하며 1936년 3월 서판암(徐判岩)의 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 입교를 주선하는 등 국내와의 연락 알선 및 독립자금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탁명숙(卓明淑)
생몰년도 : 1900. 12. 4 ~ 1972. 10. 24
포상훈격 : 건국포장(2013)

탁명숙은 1919년 3월 서울 남대문역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같은 해 9월 조선총독 처단을 시도한 강우규(姜宇奎)를 지인의 집에 피신시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5일 아침 남대문 정거장 광장에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학생들과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남대문 쪽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 시위 군중 속에는 평양 학생 약 2백여 명과 탁명숙 등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 11명도 섞여 있었다. 탁명숙은 3월 5일 도량동(都梁洞) 오화영(吳華英)의 집에 가는 도중, 명월관 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시위대에 참가하였다.

시위행렬이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경비 중이던 일제의 군경이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약 10,000명으로 늘어난 시위 군중은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때 시위대를 이끌던 강기덕과 김원벽 등 약 50명이 본정(本町)경찰서로부터 지원 나온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강제 연행되어 갔다. 이때부터 시위 행렬은 2갈래로 갈라졌다. 1갈래는 남대문 안 시장으로부터 조선은행(한국은행) 앞을 거쳐 종로 쪽으로 향하였고, 또 다른 1갈래는 남대문 안에서 태평통, 대한문 앞, 황금정 1정목(을지로 1가)을 거쳐 종로로 향하였다. 결국 2대열은 보신각 앞에서 다시 만났는데 군중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일제 경찰대도 더욱 증강되어 검을 빼어서 휘두르며 해산을 강행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중상을 입고 75명(남자 40, 여자 35)이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으며, 나머지 군중은 강제해산 당하였다.

종로네거리에서 체포된 탁명숙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한편 탁명숙은 1919년 9월 2일 신임 총독이 부임할 때 남대문역에 폭탄을 던진 강우규를, 9월 13일 경성부 누하동(樓下洞) 136번지 임재화(林在和)의 집에 피신시켰다. 체포된 탁명숙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하란사(河蘭史)
생몰년도 : 1875 ~ 1919. 04. 10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평남 안주(安州) 사람이다.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앞장 섰다.

그는 이화학당을 거쳐 일본 동경(東京)의 경응의숙(慶應義塾)에서 1년간 유학한 뒤, 1900년 남편 하상기(河相驥)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유학하여 오하이오주 웨슬렌 대학에서 수학하고 귀국하여 이화학당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후 이화학당을 중심으로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성경학원(聖經學院)을 설립하여 기독교정신 보급과 아울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인도주의가 부상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19년 초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친왕(義親王)의 밀칙을 받아 북경(北京)으로 건너갔으나 유행병에 감염되어 1919년 4월 10일 북경에서 작고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하영자(河永子)
생몰년도 : 1903. 6. 27 ~ 1993. 10. 1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1996)

전남 장성(長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 광주읍(光州邑)내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고종의 인산(因山)차 서울에 올라갔던 송일학교(崇一學校) 교사 김복현(金福鉉)·서울 유학생 최정두(崔正斗) 등이 1919년 3월 5일 광주로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거사 당일인 3월 10일 오후 3시, 부동교(不動橋) 아래 작은 장터에는 천여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양림동의 기독교인, 송일학교 및 하영자를 비롯한 수피아 학생들은 광주천(光州川) 쪽으로 내려왔고, 농업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은 북문쪽으로 모여들었으며, 서문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왔다.

하영자는 시위군중에게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와 '경고아이천만동포(警告我二千萬同胞)'라고 쓴 경고문을 나눠주는 한편,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시위군중은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한 뒤, 큰 사거리로 행진하여 나아갔다. 이날 밤 시위 군중들이 경찰 서로 행진하여 나가자, 일경과 일본 헌병들은 총과 칼로 시위군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한편 주도자들을 현장에서 검속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피체되어, 이해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4 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한성선(韓成善)
생몰년도 : 1864. 4. 29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5)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뉴바에서 신한부인회(新韓婦人會) 대표, 대한여자애국단(大韓女子愛國團) 총부위원·총단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2일 다뉴바에서 강원신(姜元信)·김혜원(金惠園) 등과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의 조국광복 운동 후원과 한인부녀자들의 민족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신한부인회를 조직하였다.

1919년 10월 대한여자애국단 총부위원으로 활동하고, 1921년 8월 대한여자애국단 제2회 창립기념식에서 총단장으로서 애국단 적립금 저축을 시행하기로 발표하였다. 같은 해 11월 리들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 휴전기념일 행사 준비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워싱턴회의에 참가할 서재필(徐載弼)을 위해 경비를 모집해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로 송금하였다.

1921년 11월 25일 다뉴바에서 국민대표회기성회를 조직하였다.

1922년 8월 5일 대한여자애국단 총단장으로 애국단 창립 3주년 기념식을 주관하였고, 1923년 다뉴바에서 열린 3·1절 경축식에서 연설하였다. 1924년 2월 대한여자애국단 총부위원으로 총선거 대표회를 소집하였고, 4월 애국단 총부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전되자 예식에 참석하였다. 그 후 딜라노로 이주하여 1931년과 1932년 3·1절 기념식, 1937년 5월 순국선열추도식과 8월 애국단 창립기념식, 1939년 2월 국민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하였다. 1918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한영신(韓永信)
생몰년도 : 1887. 7. 22 ~ 1969. 2. 20
포상훈격 : 애족장(1995)

평북 신의주(新義州)사람이다.

1919년 6월 평양에서 김용복(金用福)·김보원(金寶原)·김신희(金信喜)등 장로파 부인 신도들과 함께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를 조직하고 동 부인회의 회장으로 활약하였다.

평양 장대현 예배당에서 결성된 애국부인회는 상해(上海)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자금 모집 및 임시정부의 선전활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평안도일대의 장로파 교인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이때 그는 일경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하여 노파로 변장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이 무렵 평양에서는 장로파를 중심한 애국부인회 외에도 감리파를 중심으로 생겨난 애국부인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 양파의 여성조직들은 합동을 모색하여 1919년 11월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로 통합하였는데, 이때 그는 대한애국부인회의 연합회의 본부 부회장을 맡았다.

대한 애국부인회는 8백 원의 군자금을 모집하여 임시정부에 송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920년 10월 동회가 일경에 발각될 때 피체되었다. 그는 이 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고 공소했으나 평양복심법원에서 오히려 6개월의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평양여자신학원(平壤女子神學院)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한편 전국기독교 부인전도회 회장을 맡아 전도사업을 벌였는데 일제의 탄압에 의해 회장직을 사임하였으며 이후 일제의 주요 감시대상으로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5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성 명 : 한영애(韓永愛)
생몰년도 : 1920. 9. 9 ~ 2002. 2. 1
포상훈격 : 애족장(1990)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강남(江南)분대에 입대하여 적 정보수집, 초모 공작활동 등을 전개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사진>

성 명 : 한이순(韓二順)
생몰년도 : 1906. 11. 14 ~ 1980. 1. 31
포상훈격 : 애족장(1990)

충남 천안(天安) 사람이다.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笠場面 良垞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곳의 여학교(女學校)에 재학중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0일 양대리 장날을 기하여 학교학생·교사·주민 등 약 70여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이어 6~7백명으로 증가된 군중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하장리(下場里)에 있는 입장장터를 향하여 시위행진을 벌였다.

그는 이날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 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함연춘(咸然春)
생몰년도 : 1901. 4. 8 ~ 1974. 5. 25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0)

전북 전주군(全州郡) 전주면 남문(南門) 밖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1919년 3월 13일, 함연춘은 기전여학교(紀全女學校) 재학 중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오후 1시경 전주면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남문을 지나 대정정(大正町) 우편국 부근까지 행진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함연춘은 1919년 9월 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기까지 약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함용환(咸用煥)
생몰년도 : 1895. 3. 10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2014)

1934년 12월 강원도 회양군(淮陽郡)에서 삼도교(三道敎)를 창립하고, 1936년 12월과 1937년 3월 서울에서 천도교와 삼도교의 독립운동 제휴를 모색하였으며, 삼도교 교도와 함께 조선총독부 앞 광장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4년 12월 강원도 회양군 장양면(長楊面) 병이무지리(竝伊武只里)에서 삼도교를 창립하고 교주가 되었다. 1936년 9월 16일경 삼도교도의 힘만으로는 조선독립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므로, 3·1운동 당시 중심세력인 천도교도의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삼도교도의 천도교 입교를 촉구하였다. 같은 해 12월 20일 경 엄주현(嚴柱賢)과 함께 서울 돈암정(敦岩町) 천도교 중앙교회의 장로 최준모(崔俊模)를 찾아가 조선총독부 뜰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삼창함으로써 동지(同志)·공명자(共鳴者)들을 환기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면서, 천도교도 이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1937년 1월 하순경 김홍섭(金弘燮)·김홍진(金弘鎭) 등과 회합하여, "조선독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리들 삼도교도는 오는 3월 9일 조선총독부 앞뜰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삼창할 것인데 3월 5일까지 모두 서울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교도들과 실행 방법 등을 협의하였다.

1937년 3월 9일 정오에 오방기(五方旗)를 앞세워 시위 계획을 협의하는 등 교도들과 시위 준비를 마치고, 만세시위를 위해 대기하다가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37년 7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홍순남(洪順南)
생몰년도 : 1902. 6. 13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6)

1919년 3월 전남 광주군(光州郡)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수피아여학교(須比亞女學校)에 재학 중, 3월 10일 광주시장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는 수피아여학교·송일학교(崇一學校) 등 광주 지역 학생들과 기독교인, 그리고 군민들이 함께 전개하였다.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의 참여는 교사 박애순(朴愛順)·진신애(陳信愛) 등이 맡았다. 박애순은 약 50장의 독립선언서 등을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들의 인솔 아래 박영자(朴永子)·최경애(崔敬愛)·양태원(楊泰元)과 태극기를 준비하여,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광주 시내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광주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홍씨(洪氏)
생몰년도 : 미상 ~ 1919. 3. 3
포상훈격 : 애국장(2002)

1919년 3월 3일 평남 안주읍(安州邑)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안주군의 만세운동은 천도교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당시 안주교구장인 김안실(金安實)이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해 받고, 천도교 간부인 김광호(金光浩)·김춘택(金春澤) 등과 만세운동 계획을 상의하였다. 그리고 김기수(金淇洙)를 군내 각 천도교 전교실에 보내어 교인들을 포섭하였다.
김안실을 비롯한 천도교인들은 3월 3일 오전 11시 울산공원(栗山公園)에 5천여 명의 군중이 모이자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대형 태극기와 악대를 선두로 하여 서문연당(西門蓮塘)·공립보통학교·공립농업학교·군청·평양지방법원 안주지청을 거쳐 시위행진을 한 후 오후 1시경 헌병대에 도착하였다. 이때 홍씨(洪氏) 부인도 시위군중과 함께 헌병대를 포위하고, 3월 1일의 만세운동 때 체포된 인원 전부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헌병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홍씨(洪氏) 부인은 연성운(延聖云)·이의범(李義範)·박사손(朴四孫)·강이진(康利珍) 등과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홍애시덕(洪愛施德)
생몰년도 : 1892. 3. 20 ~ 미상
포상훈격 : 애족장(1990)

경기 수원(水原) 사람이다.

1912년 이화학당(梨花學堂)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성계몽과 문맹퇴치운동을 통해 애국정신을 고취하였으며 1919년 유관순(柳寬順)과 함께 비밀결사 여성동지회(女性同志會)를 조직, 여성운동을 폈다고 한다.

1920년에는 김활란(金活蘭)·윤성덕(尹聖德) 등과 7인전도대(7人傳道隊)를 조직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계몽운동을 펴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그는 1922년 6월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朝鮮女子基督青年會 : YMCA)의 초대 부회장에 선임되어 동회를 이끌었으며, 1923년 9월 유각경(兪珏卿)·최활란(崔活蘭) 등과 함께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朝鮮基督教女子節制會)의 결성에 참여하여 여성의 권익옹호 및 사회풍토 개선활동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썼다.

1926년 12월에는 김활란·방신영(方信榮) 등 기독교계 인사들과 함께 망월구락부(望月俱樂部)를 결성하고 사회주의 계열 여성운동과 협력을 모색하였다.

1927년 1월에는 재경동경여자유학생친목회(在京東京女子留學生親睦會)의 발기총회준비위원회에 선임되어 여성운동단체의 통합에 힘을 쏟았다.

동년 4월 신간회(新幹會)의 자매단체로서 좌·우익 여성단체의 통일적 기관인 근우회(槿友會)의 결성준비에 참여하여 동년 5월 27일 창립총회에서 21명의 집행위원 중 한명으로 선임되어 김활란·이현경(李賢卿)과 함께 조사부를 맡아 여성의 지위향상과 항일독립운동에 힘썼다.

1928년 1월 상해(上海)에서 개최되는 감리교동아회(監理教東亞會)에 김창준(金昌俊)·조병옥(趙炳玉) 등 교계 대표 8인과 함께 한국교회대표단(韓國教會代表團)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그 후 1935년부터 8·15광복 때까지 종교를 통한 민족운동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성 명 : 황금순(黃金順)
생몰년도 : 1902. 10. 15 ~ 1964. 10. 20
포상훈격 : 애족장(2015)

1919년 3월 충남 천안군(天安郡) 입장면(笠場面) 양대리(良垞里) 입장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황금순은 광명학교(光明學校)에 재학 중 동교(同校) 학생 민옥금(閔玉錦)·한이순(韓二順)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들은 1919년 3월 10일경 입장 장날인 3월 20일에 학생들과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계획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며 주변에 알리는 등 시위 준비에 나섰다.

3월 20일 오전 10시경 민옥금·한이순은 교사 강기형과 함께 광명학교 학생 80명을 이끌고 입장시장으로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광부 안시봉 등이 이끄는 주민 600여 명도 참여하였다. 시위행진 과정에서 천안에서 출동한 일본 헌병과 충돌하여 50여 명이 체포되었으나, 일부는 시장에 이르러 수천 명의 농민, 상인, 주민과 함께 만세를 외쳤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되어 1919년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 뒤 1930년 2월 충남 홍성군(洪城郡)에서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여 홍성공립공업전문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전개하자, 그 배후 지도 인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황마리아(黃마리아)
생몰년도 : 1865 ~ 1937. 8. 5
포상훈격 : 애족장(2017)

1913년 4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조직된 대한인부인회 회장, 1914년 동회 재무로 활동하고, 1919년 3월 29일 동 대표로 독립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부인구제회를 조직함.

1928년 호놀룰루 감리교회 부인보조회 부회장, 1930년 '임시정부로 집중, 독립당 통일' 등을 목적으로 한 하와이 한인협회 조직에 참여, 1934년 하와이 미감리교회 부인보조회 회장 등으로 활동함.

1936년에는 김구에게 군인양성자금 100불을 보냄.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성 명 : 황보옥(黃寶玉)
생몰년도 : 1872 ~ 미상
포상훈격 : 대통령표창(2012)

1919년 11월 평안남도 평양(平壤)에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 조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는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6월경 평안남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장로파(長老派)와 감리파(監理派의) 부인 신도들이 각기 자기 교파의 부인 신도들을 결속하여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애국부인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동년 8월경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원인 김정목(金貞穆), 김순일(金淳一) 등의 권유에 의하여 두 교파의 부인 신도들이 서로 제휴, 연합을 논의한 끝에 동년 11월 연합에 성공하여 명칭을 대한애국부인회라 하며, 평양에 연합회 본부를 두고 주요 지방에 지회를 두는 계통적 비밀 결사를 이루었다.
1920년 이후 평안남도 평양에서 대한애국부인회 회원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가, 1920년 10월 평안남도 증산군(甑山郡)에서 송승겸(宋承謙), 박치은(朴治恩) 등과 함께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사진>

성 명 : 황애시덕(黃愛施德)
생몰년도 : 1892. 4. 19 ~ 1971. 8. 24
포상훈격 : 애국장(1990)

평남 평양(平壤) 사람이다.

이화학당(梨花學堂)을 졸업하고 평양숭의여학교(平壤崇義女學校) 교사로 근무하던 그는 1913년 김경희(金敬熙)·안정석(安貞錫)과 함께 여성들의 항일구국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송죽결사대(松竹決死隊)를 조직하였다.

송죽결사대는 이후 중년층 여성(松兄弟)과 젊은 여성(竹兄弟)을 고루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회비와 자수 등을 통해 군자금을 모집하여 국외 독립운동기지에 송금하였다.

1919년에는 파리강화회의에 여성대표를 파견하기 위한 여비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동경(東京)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에 참가한 후 독립운동 지령문을 휴대하고 귀국하여 국내 각처를 순회하며 비밀리에 항일유세 활동을 폈다. 그는 1919년 3월 김마리아(金瑪利亞)·박인덕 등과 독립운동의 방안에 관해 협의한 결과 첫째, 부인단체를 조직, 남성들과 제휴하여 항일운동을 펴며, 둘째, 각 학교 학생들은 동맹휴교로 항쟁할 것을 결의하고 정신여학교·신명여학교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이일로 인하여 그는 일경에 피체되었으나 동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면소되었다.

출옥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大韓民國愛國婦人會)에 가입하여 동회의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총무 겸 편집인을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동회는 대한민국청년외교단(大韓民國靑年外交團)과의 유기적 관련하에 본부와 지부를 통해 상해 임시정부 국내연통부(聯通府)와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 대한총지부(大韓總支部)의 역할을 대행하였다. 그러던 중 동년 11월 일경에 피체되어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1928년 2월 뉴욕에서 김마리아·이선행(李善行) 등과 함께 근화회(槿花會)를 조직하여 재미동포들의 조국광복운동을 후원하였다.

귀국한 그는 1929년 8월 우봉운(禹鳳雲)·김정원(金貞媛) 등과 함께 여성들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경성여자소비조합(京城女子消費組合)을 주도·결성하였는데 이는 각 방면의 여성들을 망라하여 회원들의 출자에 의해 운영되는 유일한 여성경제기관이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